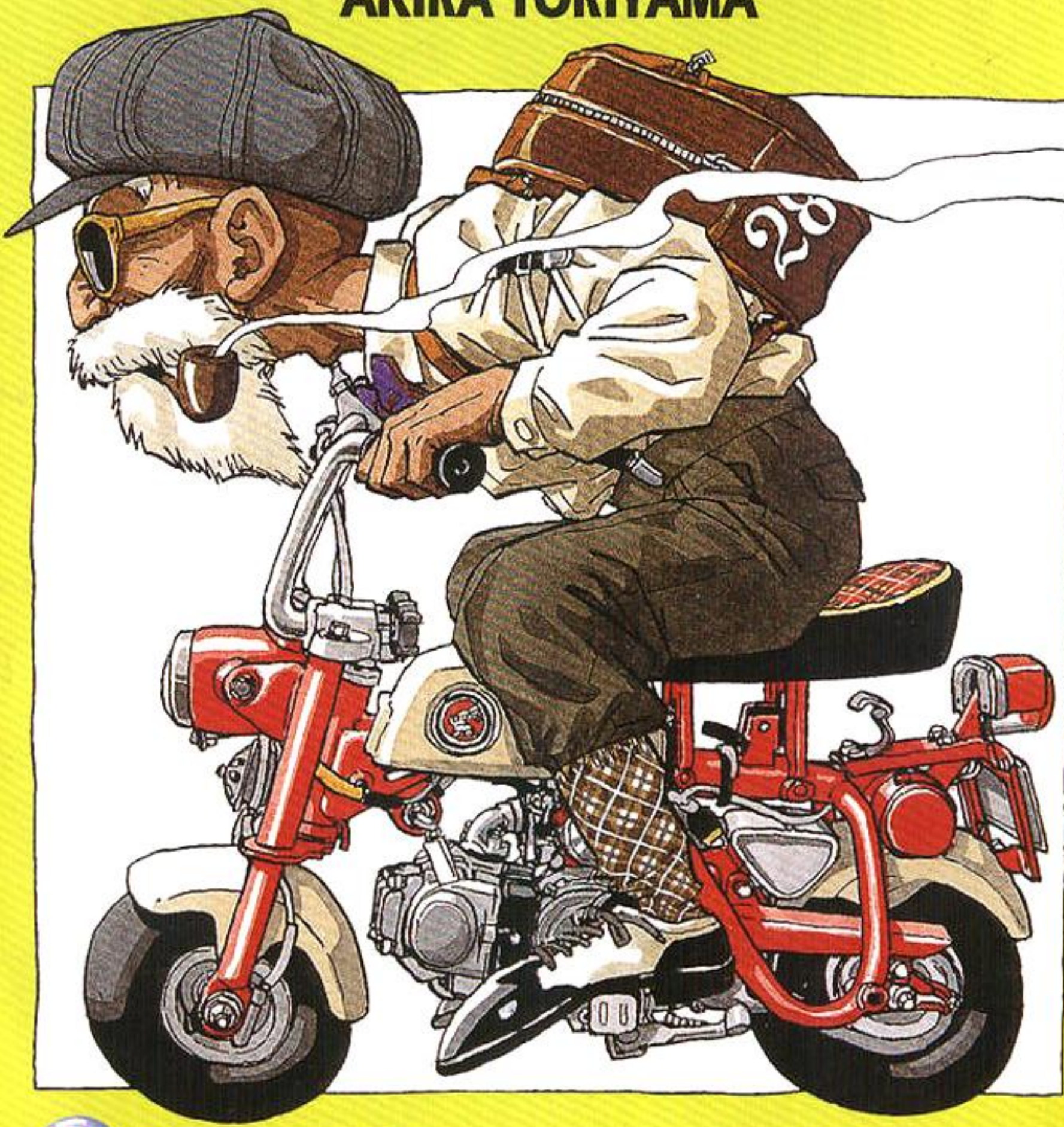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 DRAGON BALL

# 드래곤볼

AKIRA TORIYAMA




## 28 미래에서 온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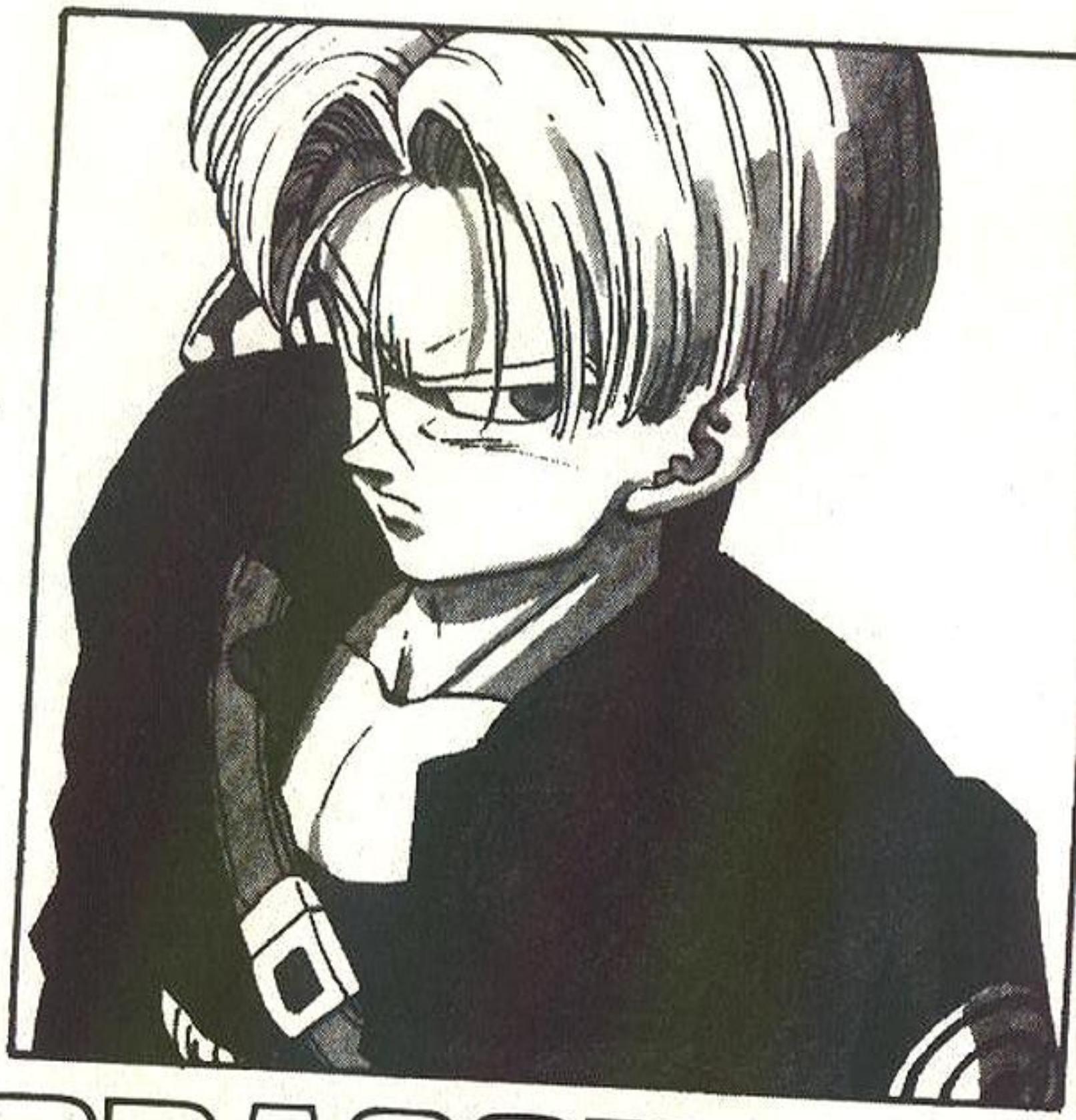
scanned by raprnb




## AKIRA TORIYAMA
## -토리야마 아키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열중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헤엄을 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상어와 같죠. 아무리 쓸데 없는 것이라도 좋으니 열중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렇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등에는 매우 불안하여 방안을 어슬렁어슬렁…. 일도 열중의 하나였다면 좋았을 것을….

canned by rapr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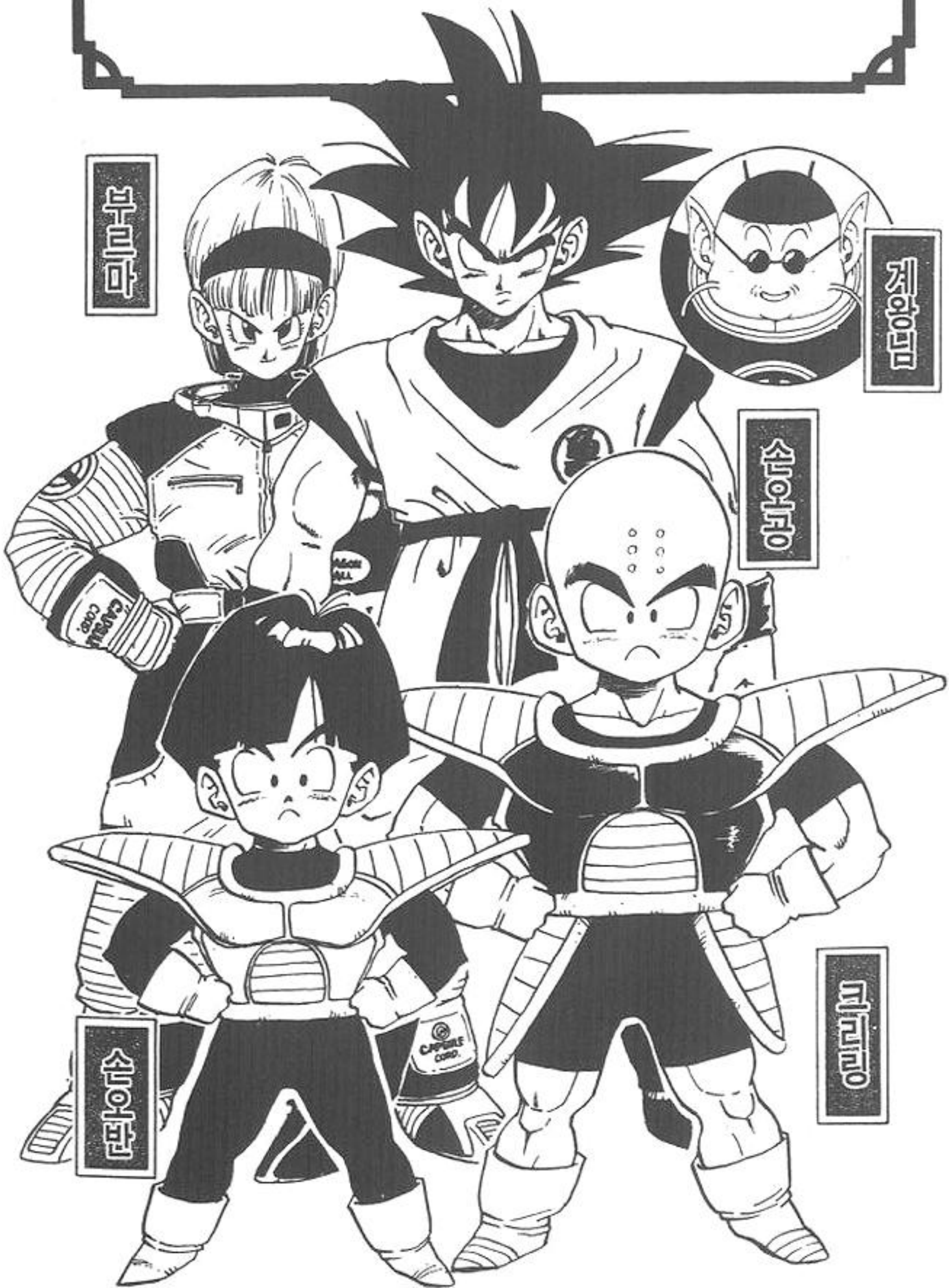
# DRAGON BALL

## 드래곤 볼

### 제28편 미래에서 온 소년

AKIRA TORIYAMA

# 등장인물소개















##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더욱 수련을 쌓은 오공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우승을 이룬다. 그 후 지구를 습격한 베지터와 오공, 프리더 일당은 잃어버린 드래곤 볼을 찾아 나메크성에서 쟁탈전을 벌인다. 그리고 슈퍼 몬스터 프리더와 오공 최후의 대결전이 한창일 때, 오공은 마침내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했다!! 전투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

# DRAGON BALL 28

## 미래에서 온 소년




제326화 허무한 결과 …… 7
제327화 모든 것의 끝 …… 23
제328화 나메크성의 소멸 …… 36
제329화 돌아올 수 없는 오공 …… 50
제330화 프리더 부자의 지구 착륙 …… 64
제331화 수수께끼의 소년 …… 78
제332화 두 번째의 초사이어인 …… 96
제333화 돌아온 손오공 …… 110
제334화 미래에서 온 소년 …… 124
제335화 공포의 메시지 …… 138
제336화 3년 후의 도박 …… 152
제337화 초전사들의 집결 …… 167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VII ……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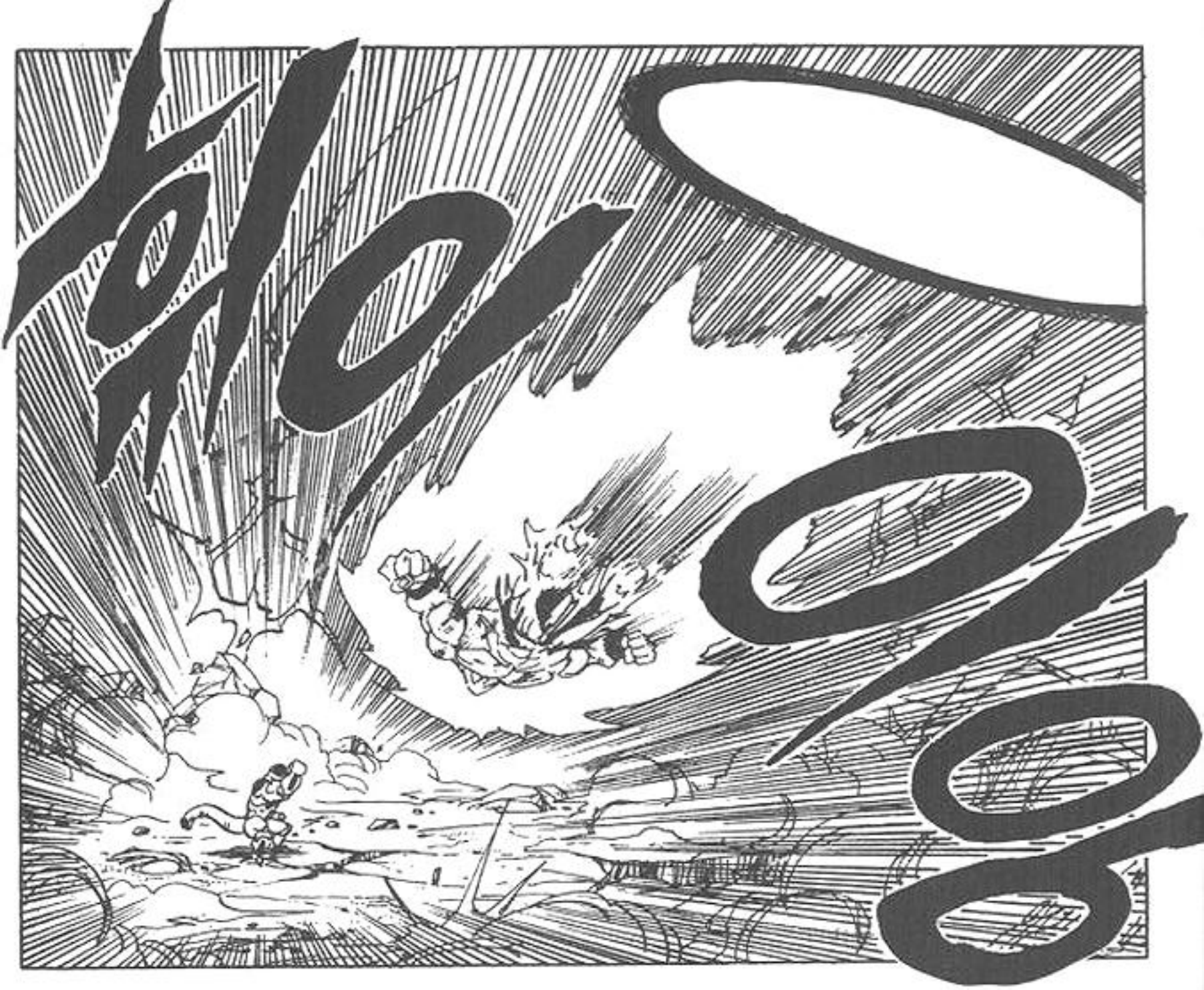
드래곤 볼

# DRAGON BALL

## 제326화

## 허무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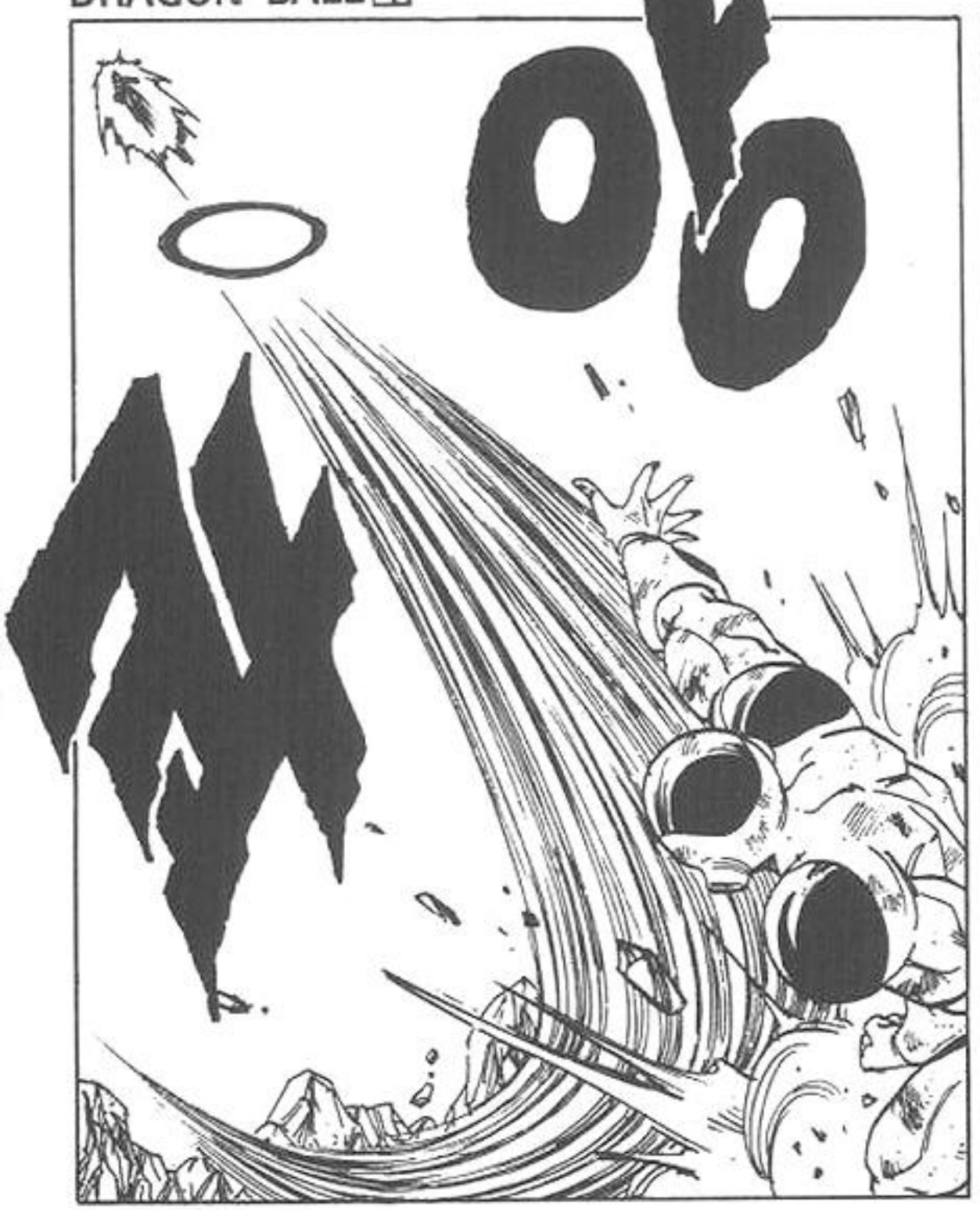



휙


으아아앙


그런
낡은 수법에
난 안 걸려!




아아


타앗- !!




아아


끝냈다!
!?
이쪽이다, 프리더.
휘잉!!!


꼭 승부를
내고 싶다면
체력을 회복시키고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라.
역시 지금의 너랑은
싸울 맛이 안 나….
그런 한심한
기술 가지고 나와
맞짱을
뜨겠다니….


잔상이었나…?
꽤 실력이
있네….


부우우--웅


하…, 한심한
기술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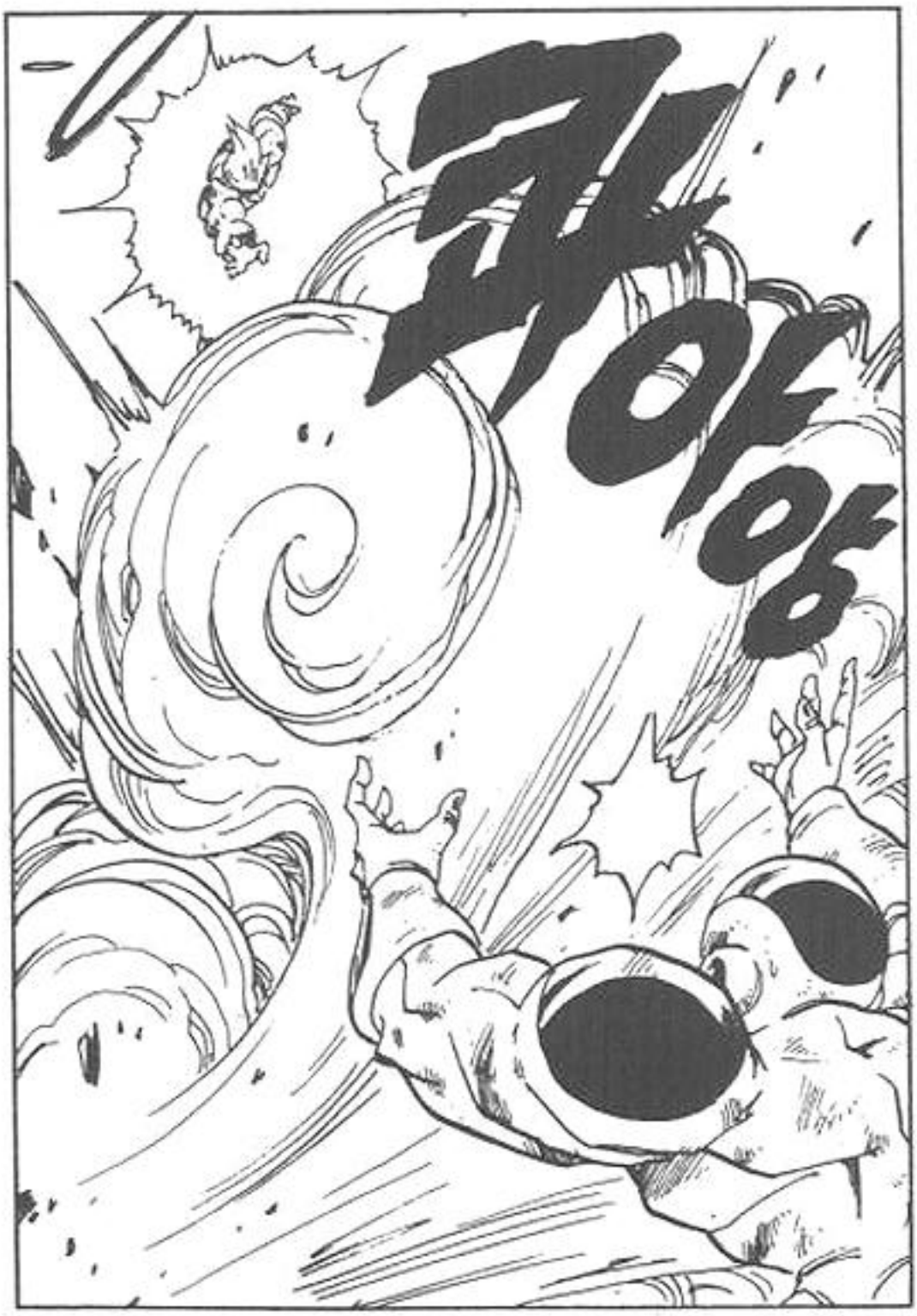

꾸꾸
두 개는
어떠셔!!

철없는 놈!



똑같은
패턴이라니,
진짜 실력 없는
놈이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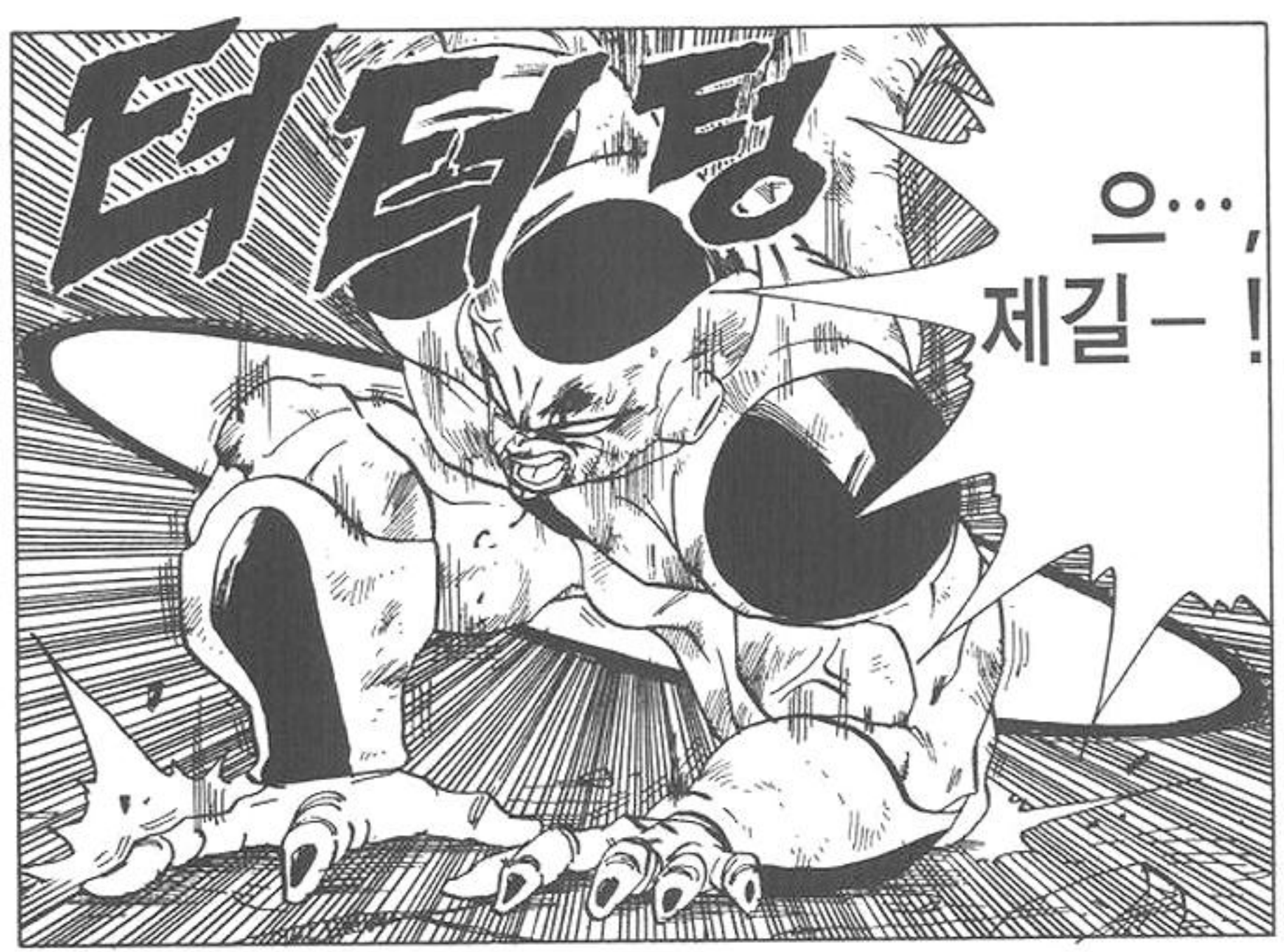







파앗
욱!!
제길!
그런 어린애 수법에 …!!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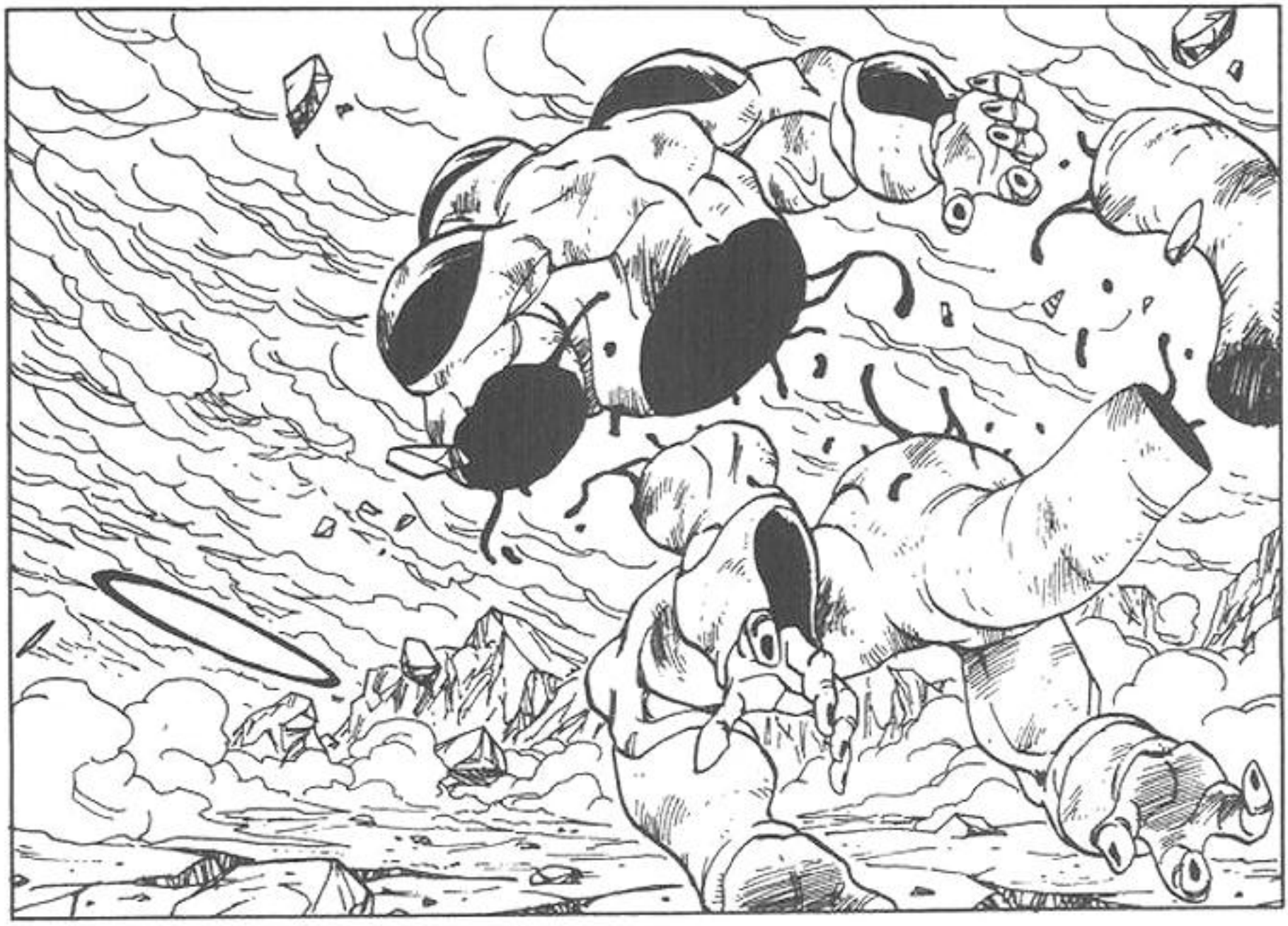

터팅
으…,
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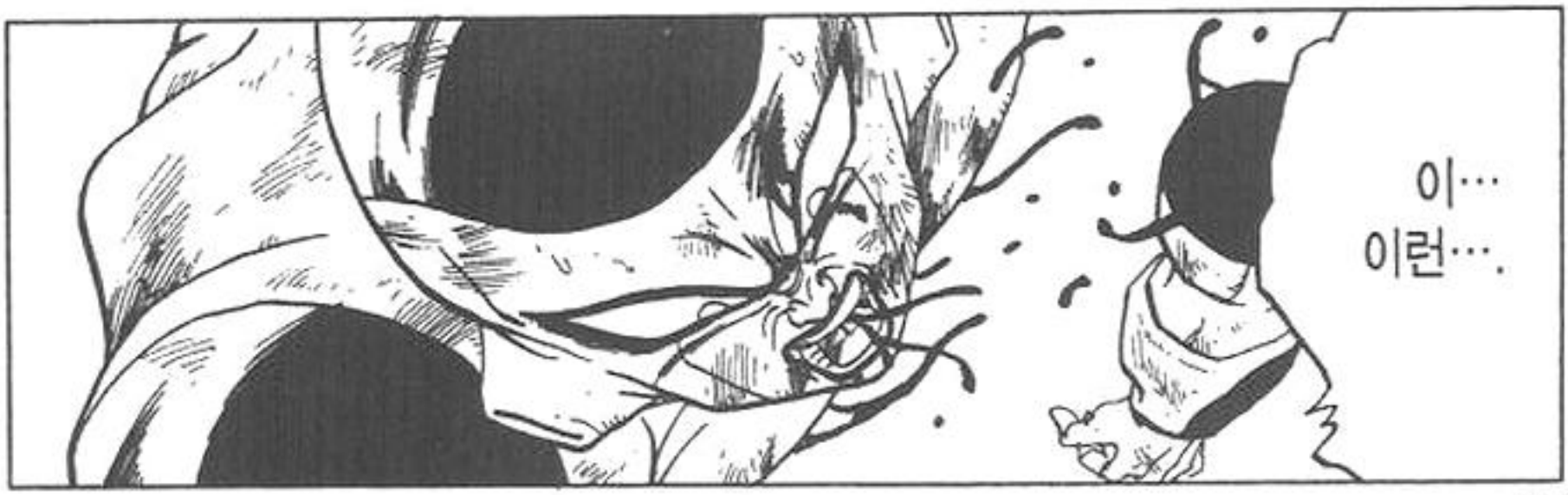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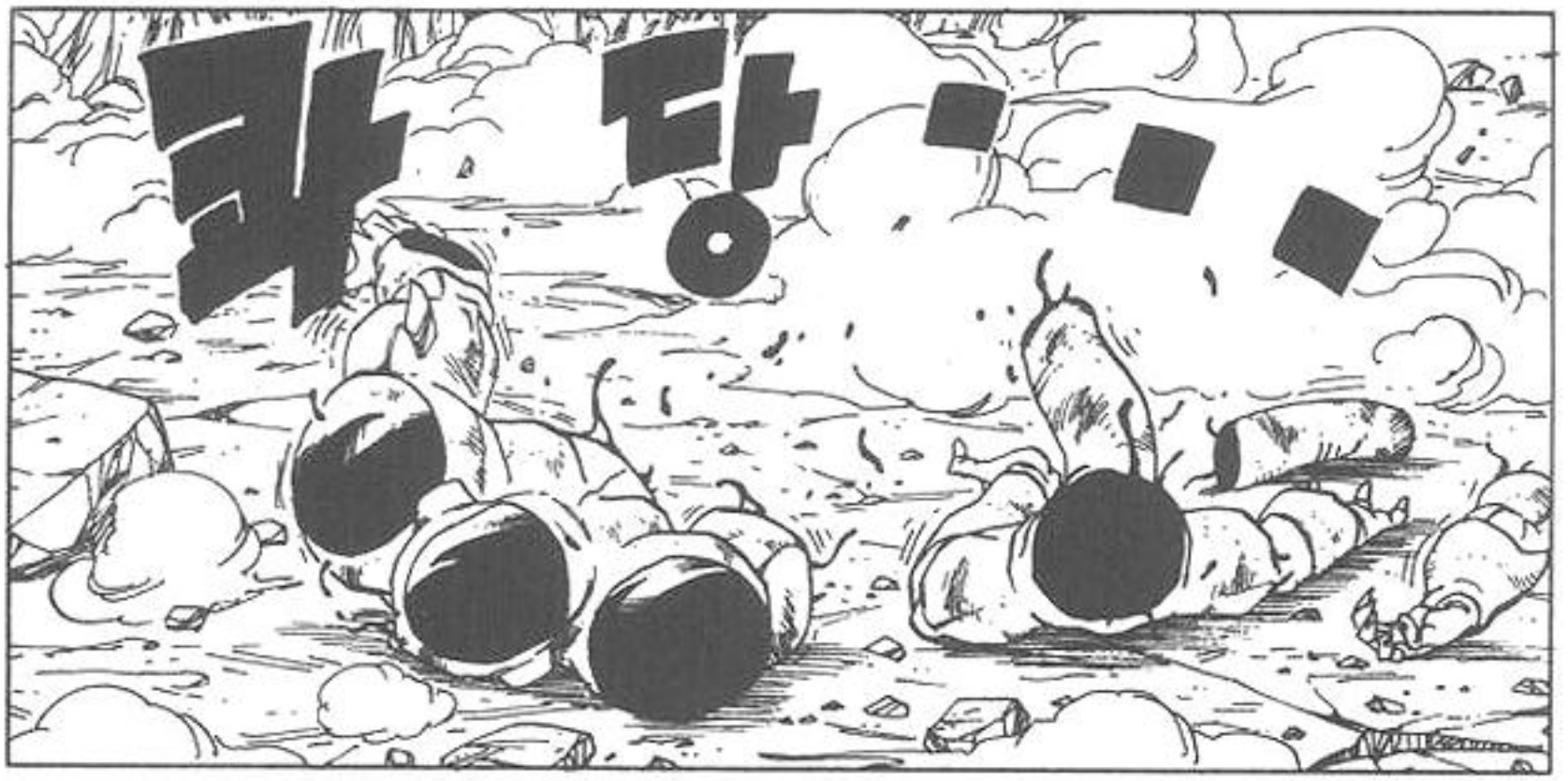

엎드리
라구!!
서지 마!
엎드려!








이…
이런….


콰 당 ·




타
아….
아으…
으….


자기 죄값을
받긴 했지만,
너답지 않은
비참한 최후였다….
제… 제길….
비… 빌어먹을….

으…
으으….

나는
어떻게든
지구로
돌아가겠다.

너는 네 자신이
파괴해버린
이 별과 함께
사라지는 거야….

제… 제발
부탁이야….

사…
살려줘….
살려….

살려
다오…!

커헉!
커헉!

사…
살려
다오…!

뭘, 뭘
꾸물대는
거야!
어서 빨리
탈출해!

제…
제발
부탁해…!

제발 헛소리 좀
지껄이지 마!!
너는 그런 식으로
살려달라는
사람을 대체
몇 명이나
죽인 줄
알아!?

다음은
네 맘대로
해라…!

내 기를 약간
나누어줬다….
네놈은 그 정도
몸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야….


悟

# 제327화

# 모든 것의 끝


모두들 되살아나
이 지구로 피난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소원은 프리더
일당에게 죽은
사람들을 되살려
달라…라고 하는
거였지?
나는
프리더 일당이
아니란 말씀….
실수한 거야.


그건 아마
내가 전멸시킨
마을 놈들이겠지.


그…
그러고
보니….
그… 그렇지만
최고장로님.
투노 장로 마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터엉 터어엉
!!
큭….
그렇게 되면 드래곤 볼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드래곤 볼을 좋은 곳에 써다오….
이제부터는 무리, 네가 최고장로가 되어라.
아까도 말했지만 내 수명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
나메크성의 드래곤 볼도 우리를 쫓아 이 지구로 온 것 같군.
부디 편안히 가세요….
최고 장로님….
팟!!
최고 장로님….
최… 최고 장로님…!
나메크 성인에게 영원한 평화를….
부탁한다….
예… 예….


이,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다, 당신은 네일 아저씨와 융합한 거군요!
……?


아… 아빠는 남아서 싸우고 돌아오겠다고…. 꼭 돌아올 거야….
크리링 아저씨는…, 프리더가 죽였어….
저, 저기! 오공이랑 크리링은!? 왜 없는 거지!?


왜 같이 살아나지 못했지!?
자, 잠깐만! 크리링은 프리더에게 당했었잖아!?
아빠 스스로 그렇게 하길 원한 거야…. 아마 크리링 아저씨의 원수를….
응….
나…, 남아서 프리더랑 싸우고 있다고!?


뭐?
어…? 또다시라니…? 또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의 드래곤 볼은 원래 그러나요?
아…, 그… 그러고 보니….
한 번 드래곤 볼로 살아난 사람은 또다시 살려낼 수 없대….

크리링 아저씨도, 차오즈 아저씨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그러면 다음에 다시 그 뎀데들의 드래곤 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그럼…!

나메크성 드래곤 볼은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면 아마 몇 번이든….

프리더와의 파워 차이는 너무 확실한데…. 승산은 제로(0)에 가까워…. 그렇게까지 죽고 싶었나…!

그렇지만 손오공 녀석, 정말 무모함에도 정도가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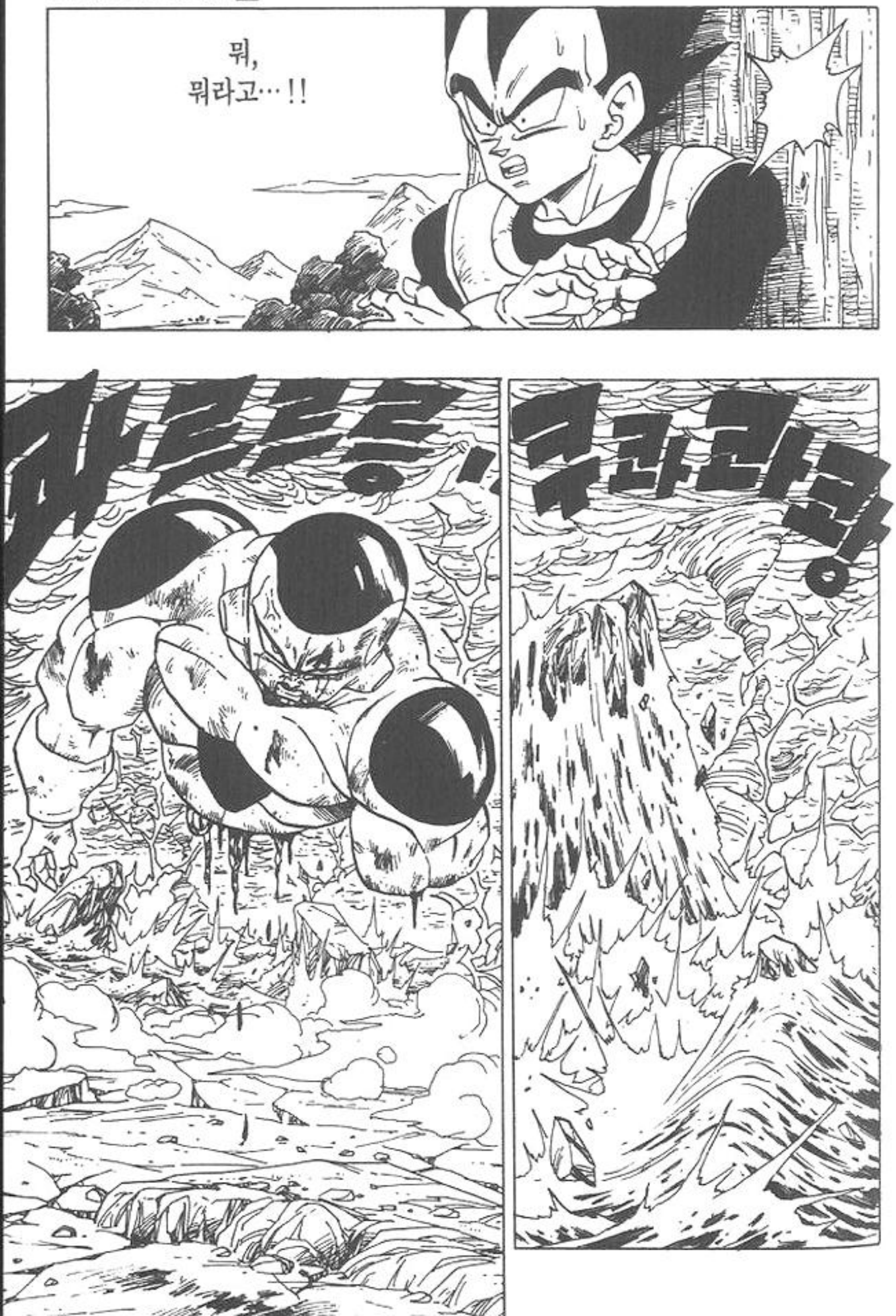
초 사이어인을 말야!!

아니, 피콜로 아저씨. 아빠는 분명히 프리더에게 이길 거야!

뭐?

난 봤어.

아빠는 드디어 이뤘지….


뭐,
뭐라고…!!

그렇다면 어서 이 별에서 탈출해야지.

넌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갈 수 있잖아?

이… 이건 정말 뜻밖이군…. 나… 나한테 에너지를 나누어 주다니….

살아남아서 목숨의 고마움을 철저히 느껴봐라!

……

분명…, 내가 타고온 우주선까지 갈 시간이 이젠 없지….

이렇게 된 이상, 네 우주선을 좀 빌려야겠다.

아무리 벌버둥쳐봐야 우주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너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다….

이, 이 나메크 성은 이제 폭발 직전이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크….

크크큭….


하하
그 우
베
폭파
늘
없
아주 꼴좋구만!
승부에 이긴
네놈은 죽고,
나는 살아나다니!!


나도
살아날
테다.
……
나… 나
프리더 님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진짜 건방진 짓을
했기 때문에 생긴
업보라구….


그… 그러니
너는 내 손에
죽어야만 해…!
나… 나는
우주
제일이다…!


나한테
죽어야
한다구
—!!



멍청한
자식—!!



















다음은, 제328화 나메크성의 소멸

프리더는 죽었다….

손오공은 자기 기를 나눠줘서 놈에게 찬스를 줬지만, 놈은 그걸 이용해 공격한 거야….

…할 수 없이 손오공은 놈을 끝장내 버리고….

해… 해냈어…! 대단하군!

그… 그런데…, 그 정도까지라니. 초사이어인이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 이제 오공은 우주 최고가 되었어….

어쩐지…, 다른 먼 세계 인간이 돼버린 것 같아….

그 녀석은 근처에 있는 프리더의 우주선으로 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건 고장난 것 같아….

나메크성의 폭발이 닥쳐오고 있어…. 오공이 타고간 우주선까지는 도착할 시간이 없고….

예!?

우주 최고가 된 것도 아주 한순간일지 몰라….

지… 지금까지도 몇번씩 위기를…. 게… 게다가 지금은 초사이어인이야….

거…, 걱정도 팔자셔…. 오공은 달라. 탈출할 수 있을 거야….

……

아무튼 제발 더 빨리…!!

서둘러…!

파아아


부탁이야!
제발 시간아,
좀 기다려
다오!!

여긴가 !?

출발 스위치는 ?

이거다 !

차칵

타고온 우주선과 거의 같다 !

그래, 좋아 !

다닥

제발
움직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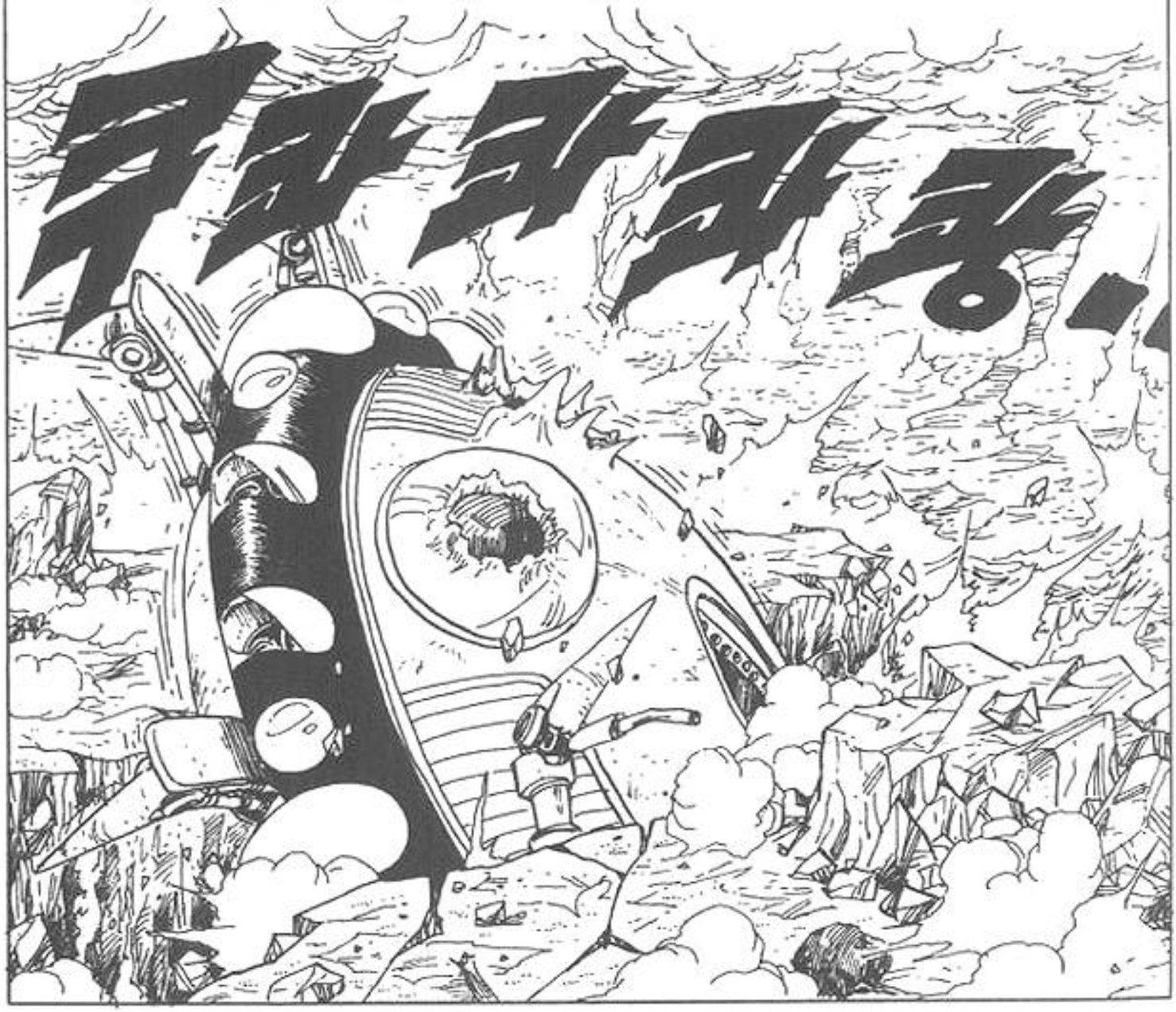
좀 움직여
달라구!

끼이이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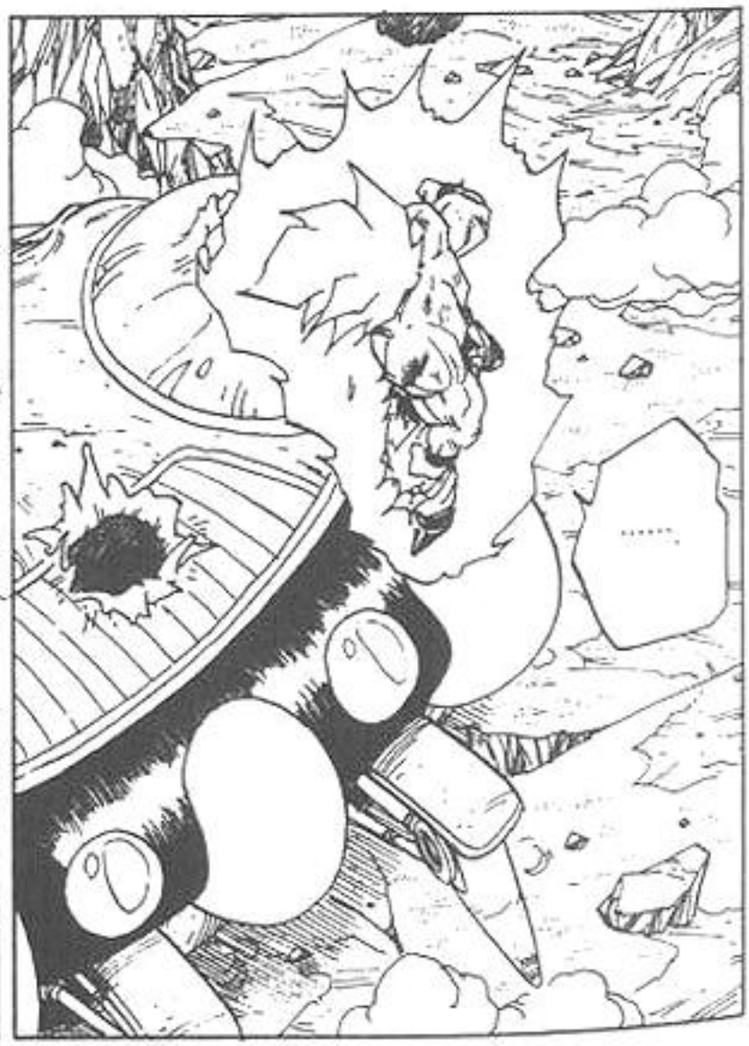
비,
빌어먹을-!
제발 움직이란
말야…!!

차차
칵칵

!!


AH AH 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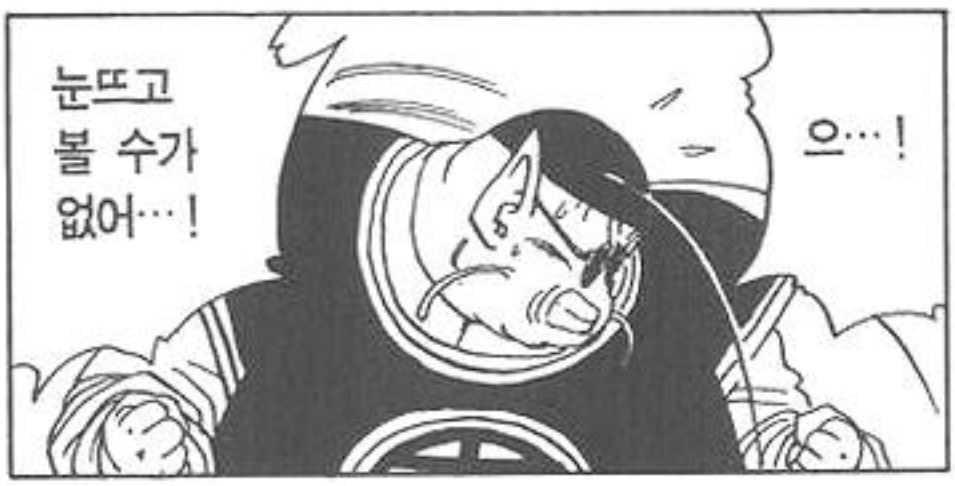
마… 마지막
희망의 불빛인
프리더의
우주선이….

완전히 망가져서
나는 건
완전 꽝이야….

이…
이럴
수가….

아니…!


폭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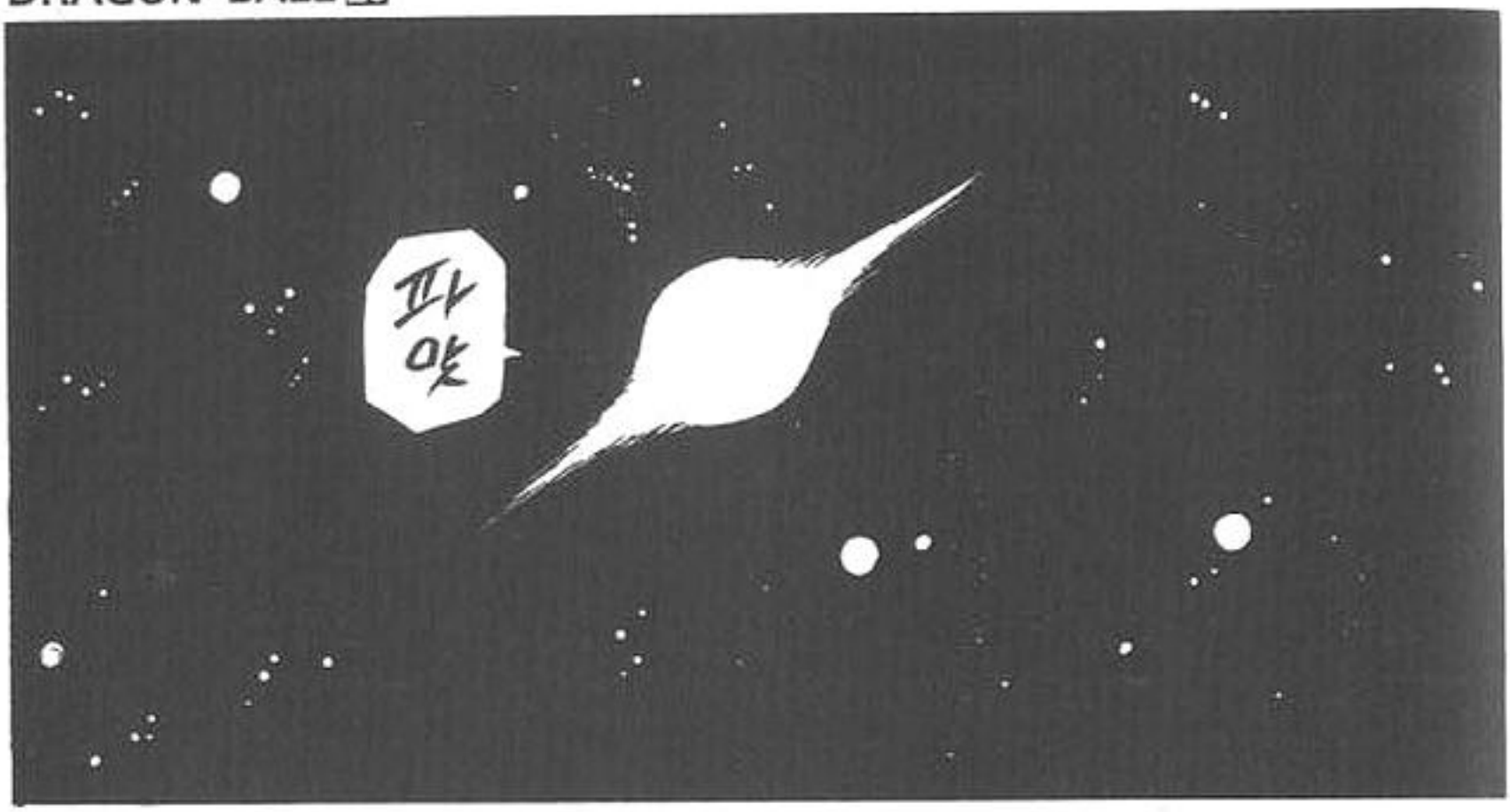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으…!


이런
제기랄
…!!


죽지
마….
오…
오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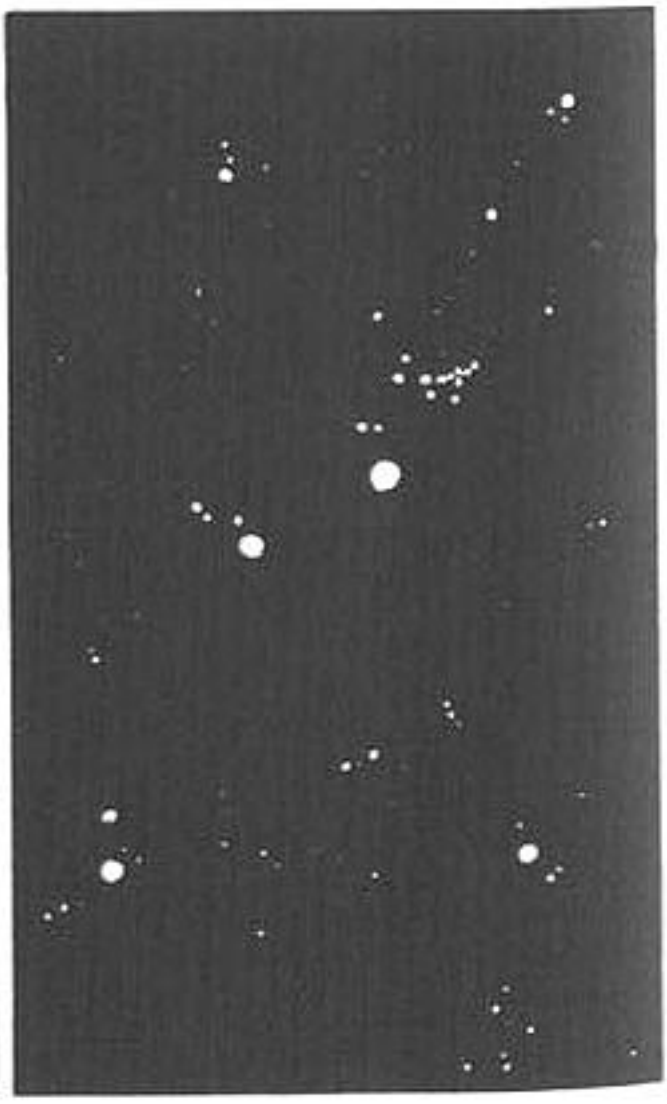

제발
죽지
마!!




피
앗




계…
계왕님….
……
으아…
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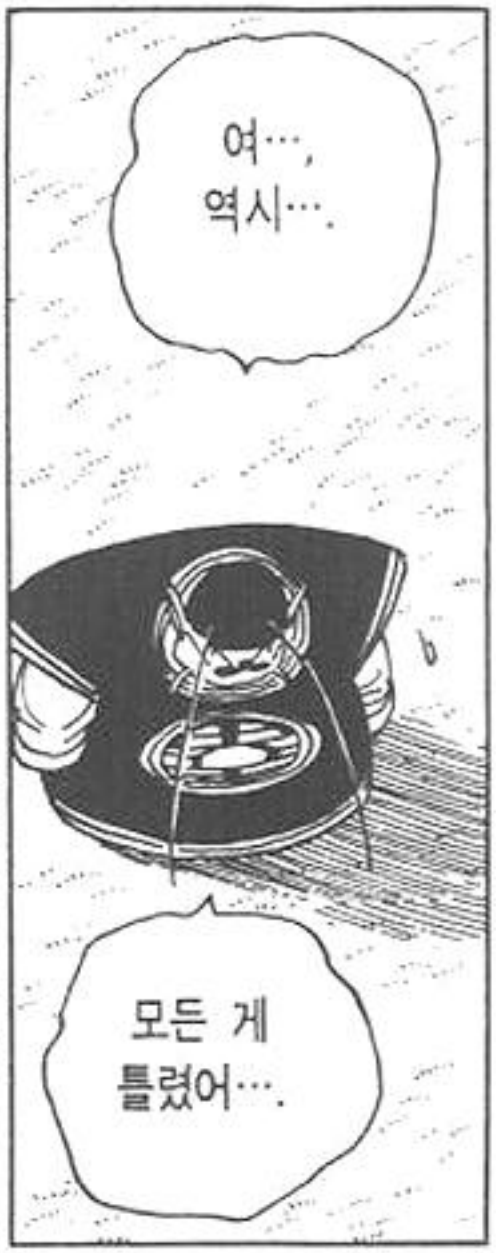



……


!!




털썩…
오공…


여…,
역시….
모든 게
틀렸어….

부탁한다….
그래….
제가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계왕님….
오공의 아들에게 알려주기 괴로운걸….
이거 큰일났군….
나야…. 아무치다….
부르마…. 부르마 들리니?
으음….
그럼…, 오반과 같이 있는 부르마란 여자한테 전해달라고 하죠….
마음에!? 진짜!?
그래, 야무치야. 계왕님을 통해 너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는 거야.
뭐? 야무치? 어머…!
…!?
…어머! 너 정말 귀신 다 됐다. 지금 야무치가 말하고 있거든.
혹시 계왕님한테?
무슨 일이야?

오공은 프리더를 해치웠어…. 그리고….

그… 그보다, 침착하게 내 말 잘 들어…. 오공에 대한 얘기야….

으… 으음. 죽기는 했지만, 잘 지내긴 잘 지내….

근데…, 잘 있었어? 야무치.

그… 그뿐만이 아니야….

조용히…, 조용히 하고 들어봐…!

프… 프리더를 ….

카… 카카로트가 ….

정말!? 만세-!!

모두들 들어봐! 손오공이 프리더를 해치웠대!

어머나-! 오공도 별이 폭발하는 바람에 죽었대-! 진짜 쇼크다-!

나… 나메크성이 폭발하는 바람에 너무 늦어서 죽었어….

오… 오공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

이 띨띨아! 오, 오반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 그렇게 말하면 오반이 충격 먹잖아…!

아빠는 빠져나오지 못했구나….

내 말 들으면
놀랠걸~!
나메크성의
드래곤 볼이면
몇번이든 살려낼 수
있단 말씀!!

호호호-!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나메크성인들과 함께
드래곤 볼도 지구로
이동했다구….

그렇지만…,
그 나메크성은
이제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너야…. 차오즈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지만,
오공과 크리링은
나메크성에서 살아나게
되잖아….

말하자면!
오공도,
크리링도,
차오즈도
다 살려낼 수
있다구!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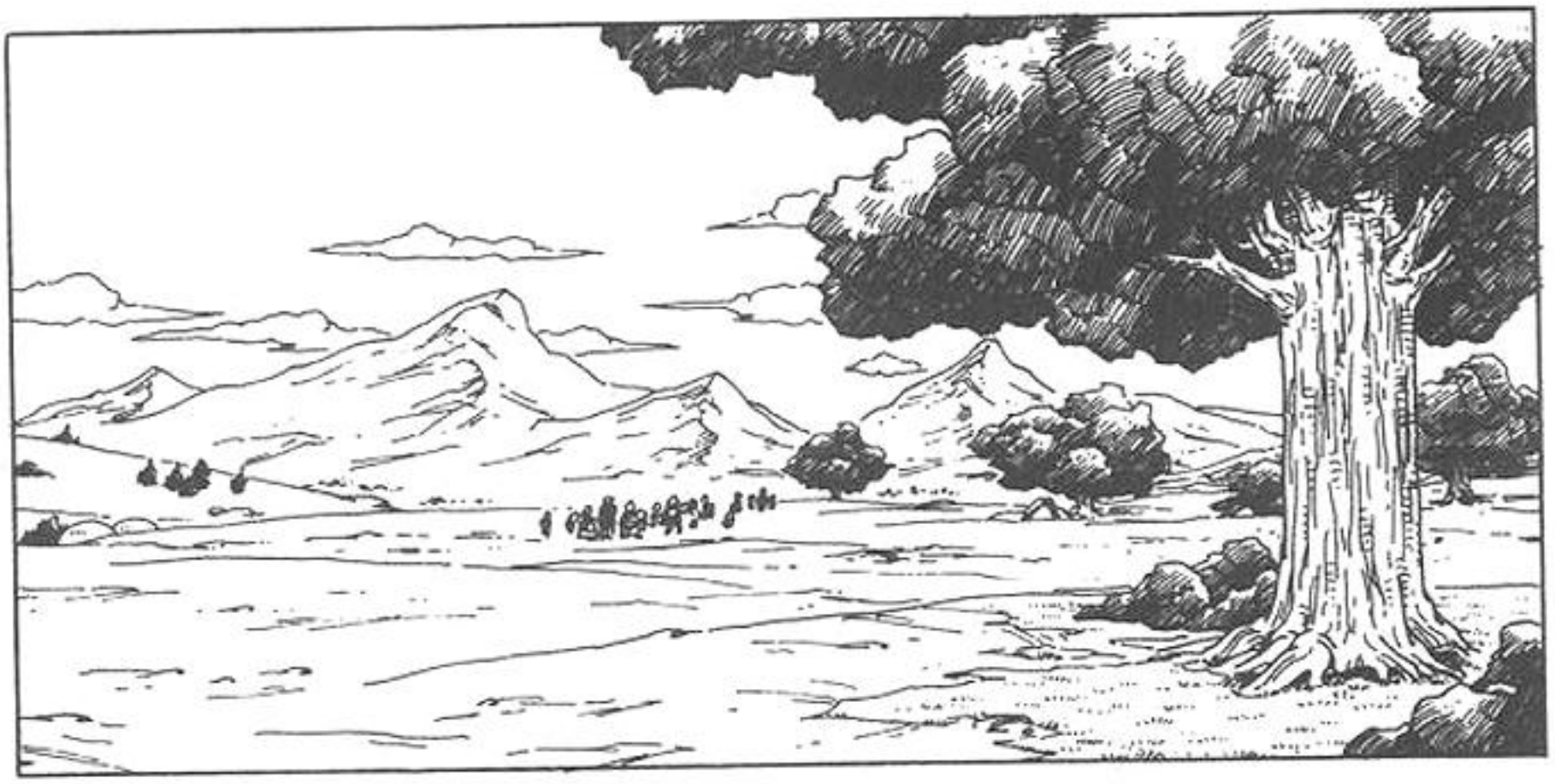
도저히
방법이 없어….
거긴 내 구역이
아니걸랑….

우주 공간에서
살아나게 되지….
그럼 살아난 순간
다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걸….

……



다음은, 제329화 돌아올 수 없는 오공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죽은 장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나메크성은 없잖아…. 그러니 우주공간이라서….

저… 저기…. 그러니까 차오즈처럼 신님이 육체를 재생시켜줘서 계왕님이 있는 곳에 있다면 가능한 것 같은데….

아, 아빠도 크리링 아저씨도 되살아날 수 없다고…!?

가능한 얘길 걸….

혼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그걸 이동시킨 다음에 되살려내면 되잖아….

머리 좀 쓰시지 그래.

게다가…, 나메크성 지역은 계왕님 담당구역이 아닌 것 같아….

그… 그런….

그 방법이 있었구나!

당신도 쓸모는 있네!

마, 맞다!!

아….

정말 고마워….

슥…

까불지 마….

……

철썩

그리고 언젠가는 그놈을 이겨내고 말 테야…, 반드시….

난…, 초사이어인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때까지
우리가 지낼 만한
좋은 장소 좀
없을까요?

우리들은
드래곤 볼이
부활하면 적당한
별을 찾아 거기로
떠날 생각이에요.

지구인
분…,
잠깐 실례….

아, 예.

그럼 우리집에 살면 되죠!
우리집은 엄청 넓어서
괜찮을 거예요! 나도
당신들의 드래곤 볼한테
좀더 신세를 지고 싶고-.

그렇게 해요!
이런 대인원이
여기 저기 몰려
다니다,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큰 소동이
날 테니까.

당신도
같이 가지-!
어차피 숙박비도
없을 텐데….

핑

맛있는 음식
많이 줄게!
아마 손오공이랑
똑같은 대식가겠지.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매력적이라 해도
요상한 짓 하면
안 돼-.

으씨!
정말 여자가
저질이다….

목소리만
크고….

그럼 여러분,
잠깐 기다려줘.
저쪽 집에서
아빠라도 오라고
연락할 테니까.

앗!

어…,
엄마한테
난 죽는
다구….

숙제
하는 걸
깜빡
했어….

나… 나도
부르마 집에
같이 있어도
되나…?

오반은
집에 가야지.
엄마가
기다리잖아.

뭐?
왜 그래?

……

이렇게 해서
나메크성 사람들은
서쪽도시의
부르마네 집에서
당분간 살게
되었다…. 그리고
베지터도….

CAPSULE
CAPSULE
339

부아아아….앙


나메크성의
드래곤 볼은
부활이 빨라서,
130일째에 용신을
불러낼 수 있었다.


보…,
본바닥
용신
이란 게….
이…
이렇게 큰 거
였나…!?
우와~!
이, 이거 진짜
대단하다!
BULMA


고마워,
최고장로님!
원하는
세가지 소원
모두 이루도록
해라.


크리링이란
사람의 혼은
여기로 불렀다.
그렇지만
손오공이란
사람의 혼은
부를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야.

뭐!?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사…, 살아 있다니….

서, 설마! 대체 어떻게…!

뭐, 살아 있다고!?

만세—!!

이얏호호—!!

사…, 살아 있다면 왜 안 돌아오는 걸까…?

아, 아마 우주선이나 뭔가가 망가져서…!

그럼 우선….

아뵤-! 두번째 소원! 크리링을 살려줘-!!

어… 어라!? 엥…?

와! 캡이다!

걸레가 된 육체와 옷은 특별 서비스로 원래 상태로 만들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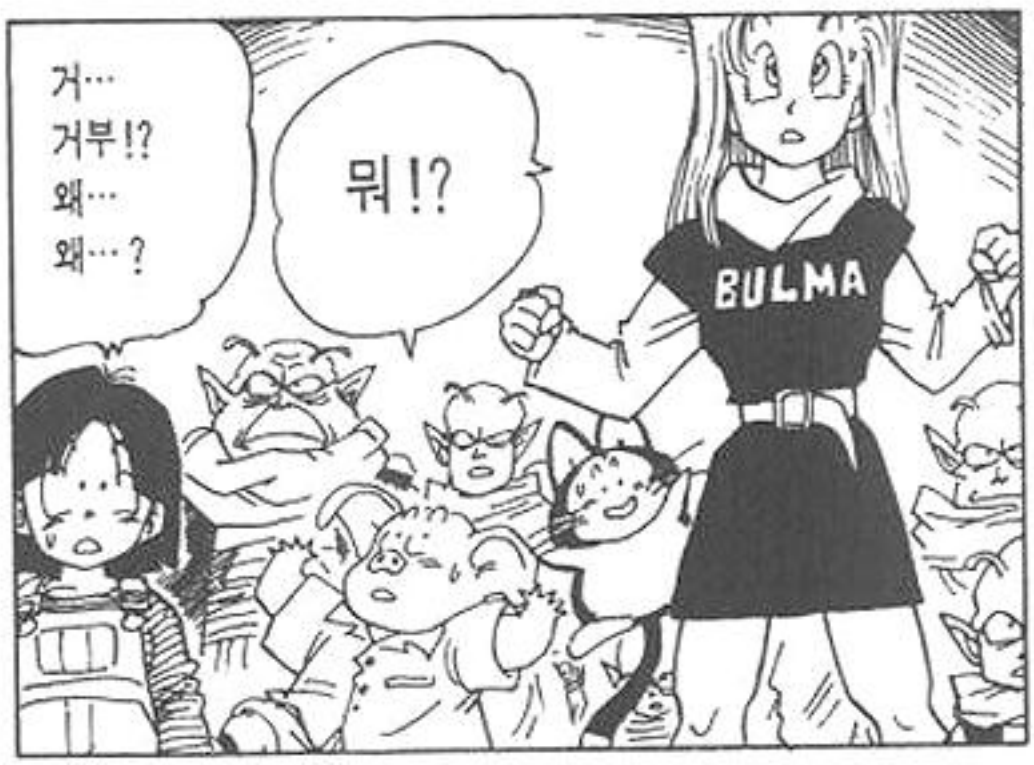
얼굴은 거의 조폭 수준인데 하는 일은 천사 같네. 음♡

그리고 드디어 이번엔….

여기로 손오공을 데려와 줘-!!

에라잇-! 헤이~!!




거…
거부!?
왜…
왜…?
뭐!?
BULMA


얼마 후
자기 스스로
돌아
오겠다는걸.
안 돼,
거부
당했어.


우선 계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살려
내자구.
얼마 후
자기 스스로
돌아온다잖아.


아….
농담…, 농담
이었습니다요….


마누라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오는
거야!
아,
알았다!
우주 최강의
전사는
손오공의
마누라
였구나!

그리고 다시
130일 후,
첫번째로 차오즈가,
두번째로 천진반이
살아났고, 세번째 소원을
이용해 나메크성인들은
새로운 별로 이동했다.
그들의 드래곤 볼과
함께….

결국 차오즈와
천진반은,
그들의 희망대로
나중에
살려내기로 하고
이번에는
야무치가
되살아났다.

그때까지도
손오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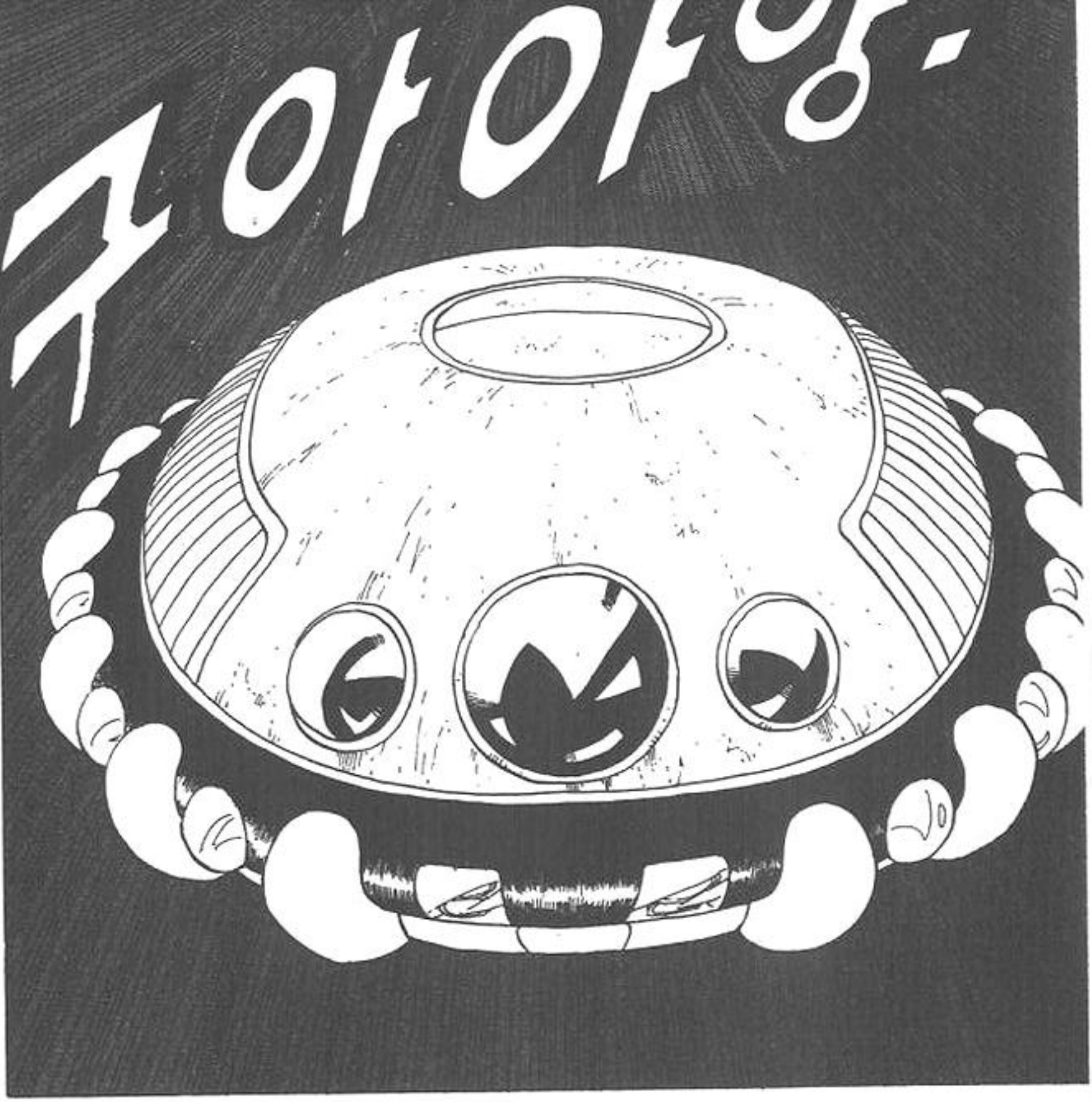
그 후,
약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도대체 아빠는 어떻게 된 걸까…?
지구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건가…?
오반, 너도 느꼈지? 엄청난 기를!
예!
아! 크리링 아저씨!
벌떡
따르릉 따르릉
프… 프리더는 그때 분명히….
마…, 말도 안 돼….
이… 이 기는 혹시 프리더의 것이 아닐까…!?
너도 으시시한 느낌이 들 거다….
저…, 점점 접근해 오는걸….
이… 이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건데….


이… 이런
황당한 일이…!!


이…
이 기는
진짜 프리더
일까!?
엥?
뭐, 뭐!?
카카로트 녀석….
프리더를 완전히
보내지
않은 거야…!
쳇…!


세…
세상에나….
하… 하나만이
아닌걸….
또 하나의
엄청난 기가….


쿠아아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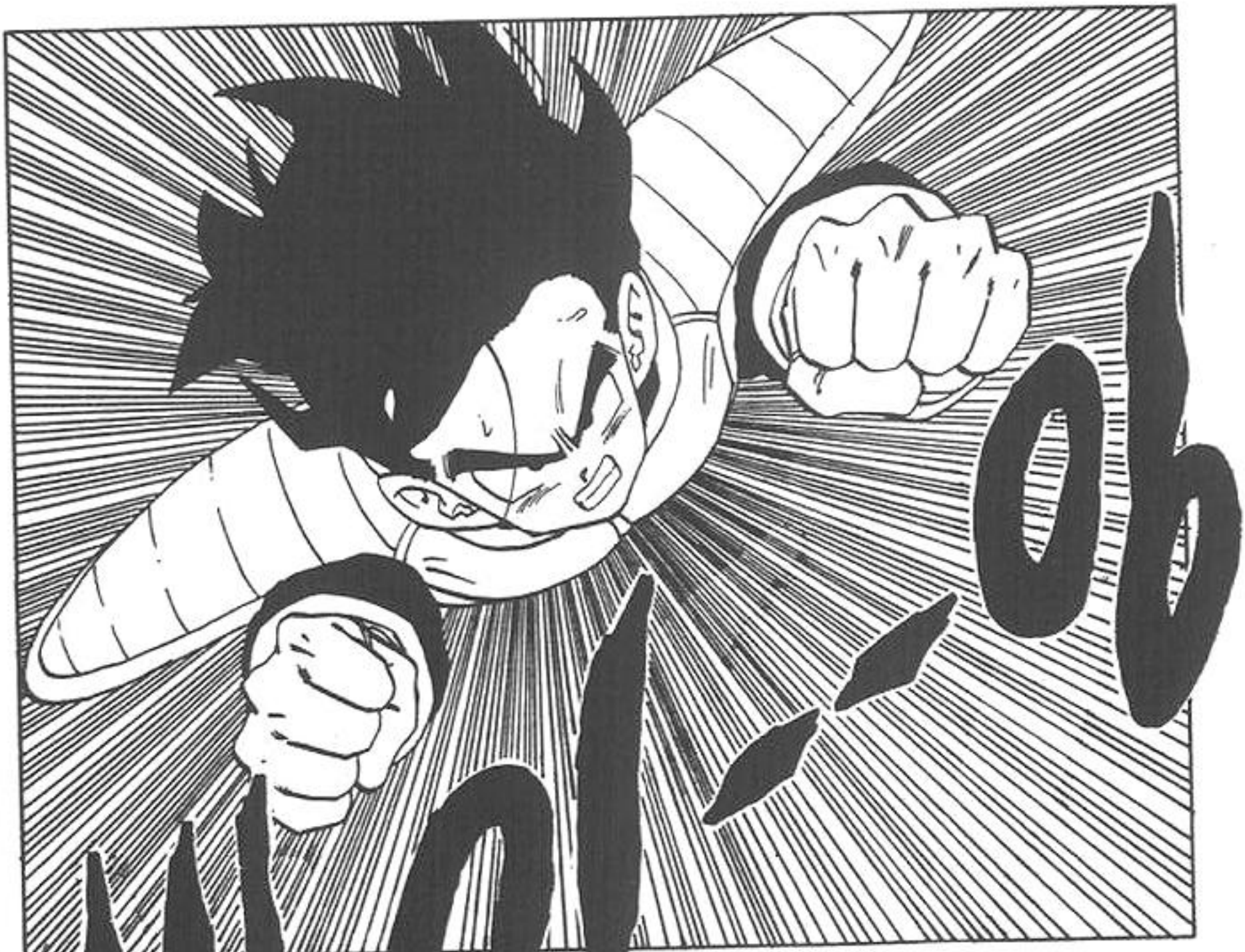

!
저게 지구야, 파파….
어쩌면 날 이 꼴로 만든 초사이어인보다 먼저 도착한 것 같은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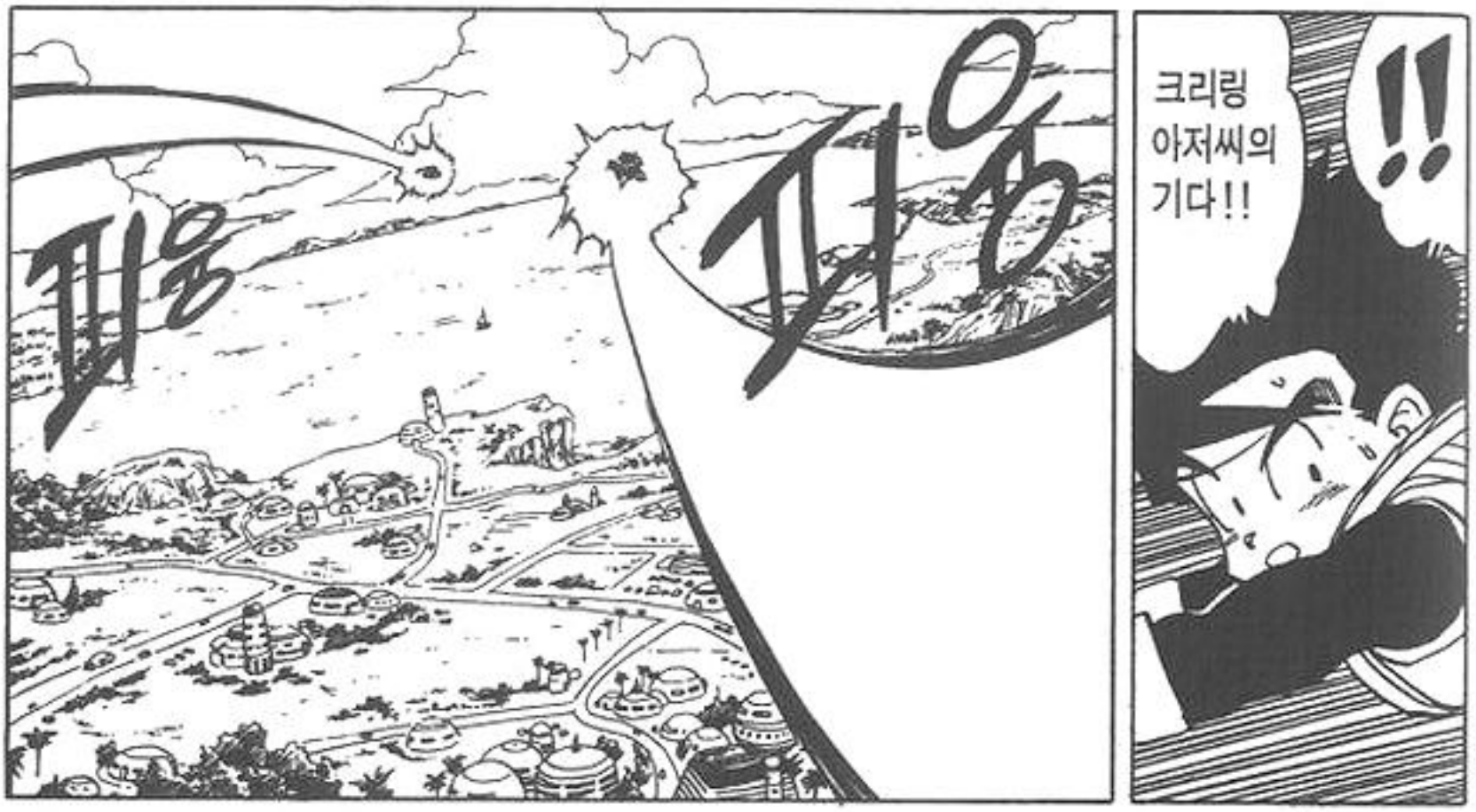






다음은, 제330화 프리더 부자의 지구 착륙


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최…
최악이다…!
아빠…!!


크리링
아저씨의
기다!!
!!


크, 크리링
아저씨도
느낀 거야!?
오반!
프, 프리더랑
또 하나의 비슷한
다른 거대한
기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거다.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거든
…!
이, 이거!
어찌 된
일일까…!?
안 느낄 수가
없겠지….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기를….
그, 그래,
맞아….

콜드 대왕님, 프리더 님!

지구에 곧 착륙 합니다!

아마 근처에 착륙할 거야….

앗!

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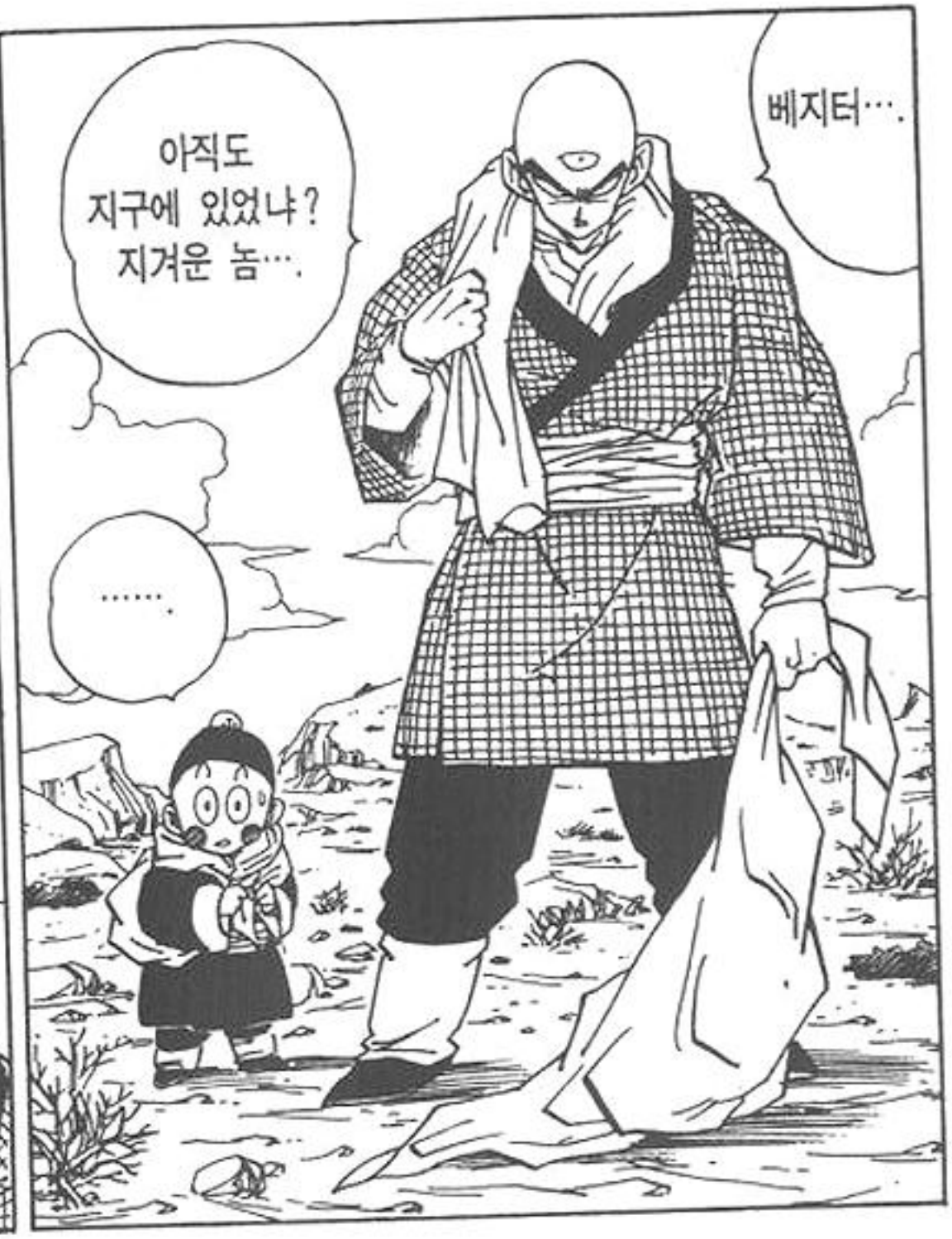
부, 부르마! 저 바보가…!


야무치 님!
영차!
뭐, 뭐 하러 온 거야! 니들!!
77


프리더가 맘만 먹으면 지구를 통째로 아작내겠지.
아니까 왔다구!
어디든 숨어봤자 마찬가지 잡아….
구경 왔다고!? 그놈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잡아!
나메크성에서도 전혀 본 적이 없었거덩.
프리더란 놈을 구경하러 왔지.


타탁
천진반과 차오즈!
!
그렇다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나 싶어.
……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네.


베지터….
아직도
지구에 있었냐?
지겨운 놈….
……


당근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썩을 만큼
쌓였다….
아무튼
나는 네놈들에게
죽었으니까….
너랑 같이
사는 야무치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늬들은
떠들기 전에
얼른 전투력을
숨겨!
이 띨띨이들아!!
놈들은
스카우터를
갖고 있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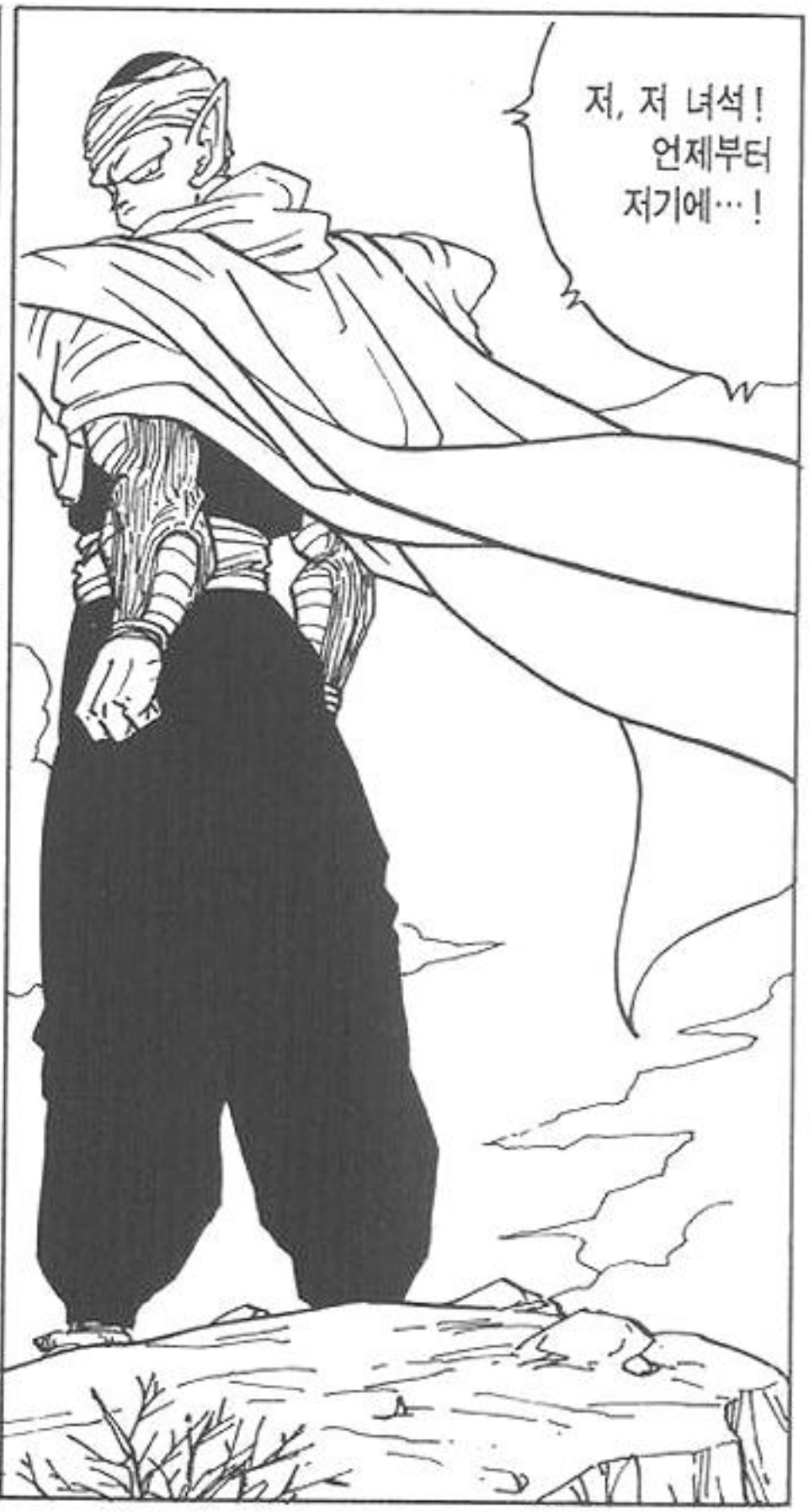

정말
큰일났구만….
저건
프리더냐…?
그래…,
그런 것
같아….


자, 잠깐!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잖아….


피콜로!


나메크 성인?
저 나메크성인은 벌써 숨기고 있구만…. 역시 분위기 파악이 빨라.


!!
오반! 모두들 저기 있다!


저, 저 녀석! 언제부터 저기에…!


모두 다 확실하게 느껴졌나봐!
피콜로 아저씨도 있네!

얘들아!

야호-!

역시
오공은 아직
안 왔나봐…!

왔다!!

TO BE CONTINUED


Horror
Show

저… 저기 내렸다…!

뷰아아-----앙

스카우터에 걸리지 않도록 걸어서 접근하는 거다!

너희들, 날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지!?

트…, 틀림없이 프리더야! 지, 지금 살아 있다…!

여…, 역시 프리더 말고 또 한 놈이 있어…!

프… 프리더란 놈은 저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기냐…?

저건 아무 것도 아냐…. 더욱더 강해지고 있어…!

자…, 잠깐….

…….

그… 그런 괴물 같은 놈이 두 놈씩이나 되잖아!

가, 가까이 접근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사, 상상을 초월한 괴물 아니냐구!!

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걸…!!

장난 아니네….

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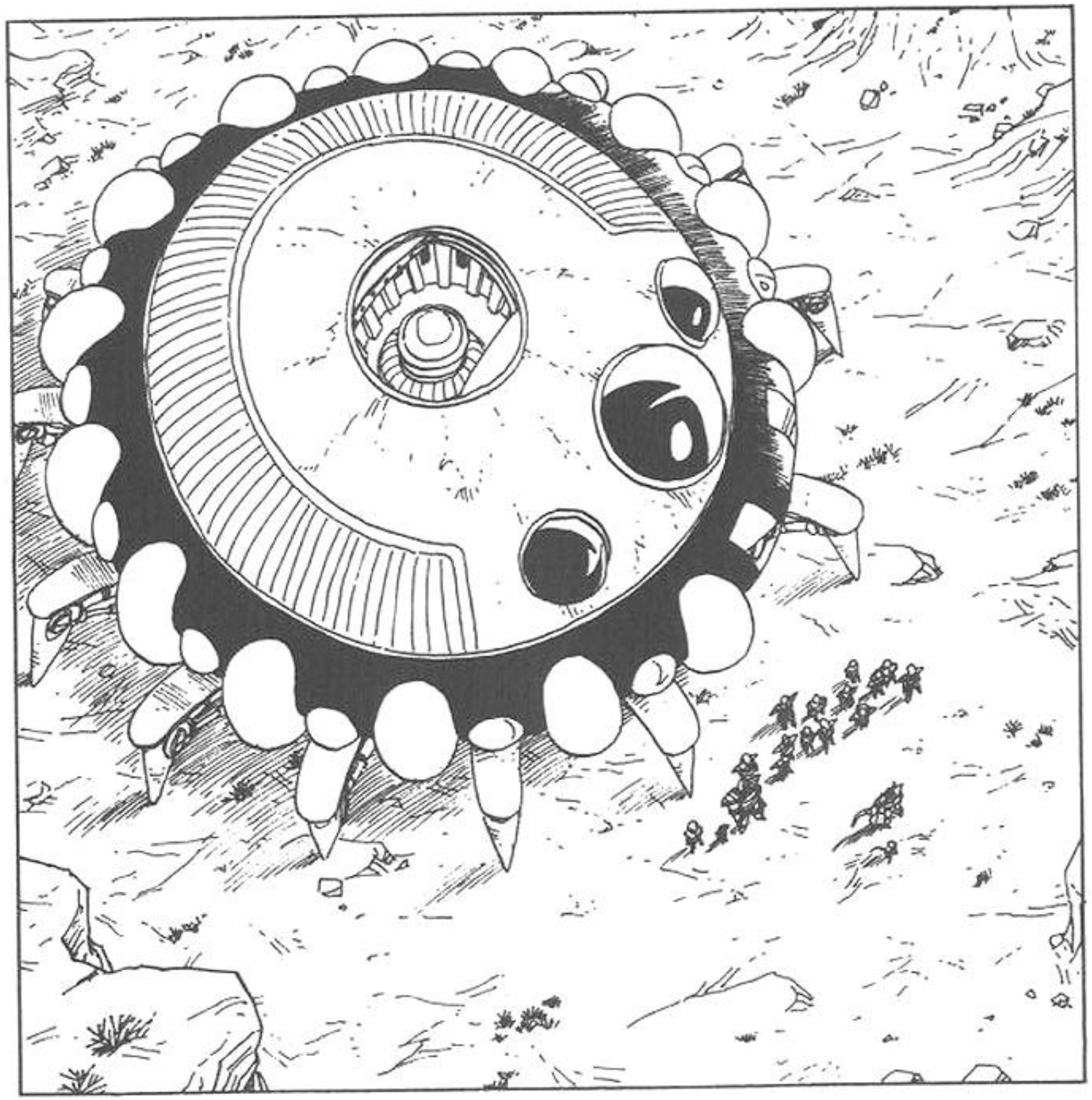
너… 너희들, 진짜 저런 놈과 싸웠어…?

확실히 말해줄까?

마음대로 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건 모두 알고 있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여기 숨어 썩자는 거니?

이제 지구는 끝장이다.




꽤
쓸 만한
별이네….
지구
로군….

그 초사이어인이란 놈은 앞으로 세시간 뒤에 도착하겠군….

기다릴래, 프리더?

물론이지, 파파….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세 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그렇지만 그놈이 왔을 때 분통 터지게 만들어 주고 싶으니까 지구인을 몰살시켜 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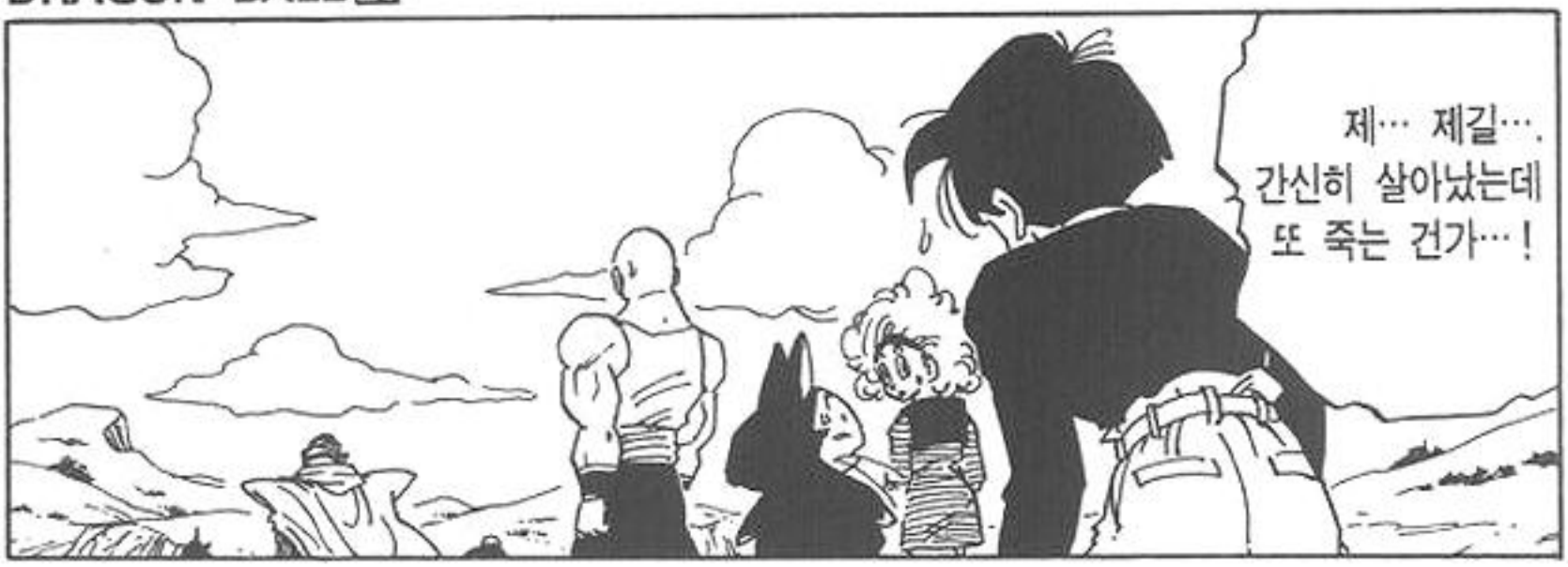
우주 최고의 힘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일족이어야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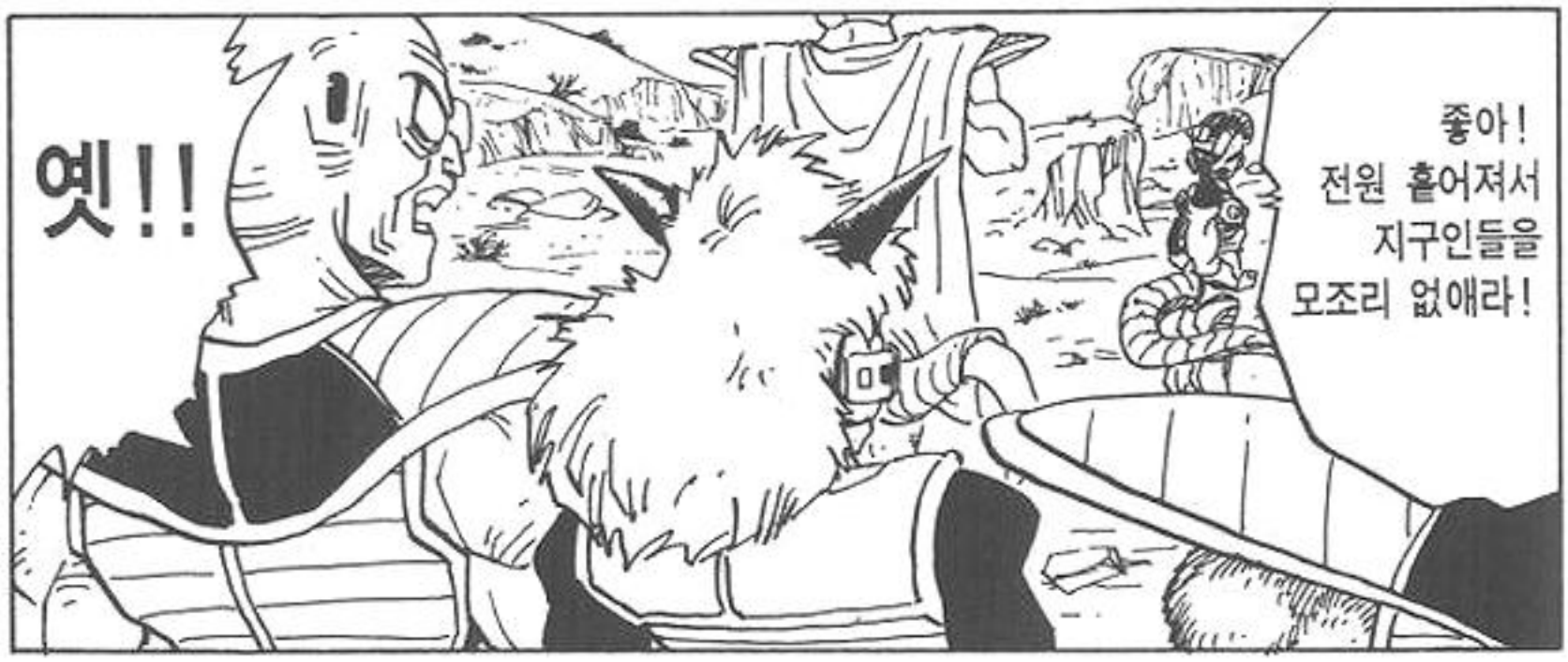
지구인 따위야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초사이어인만은 반드시 숨통을 끊어놔야 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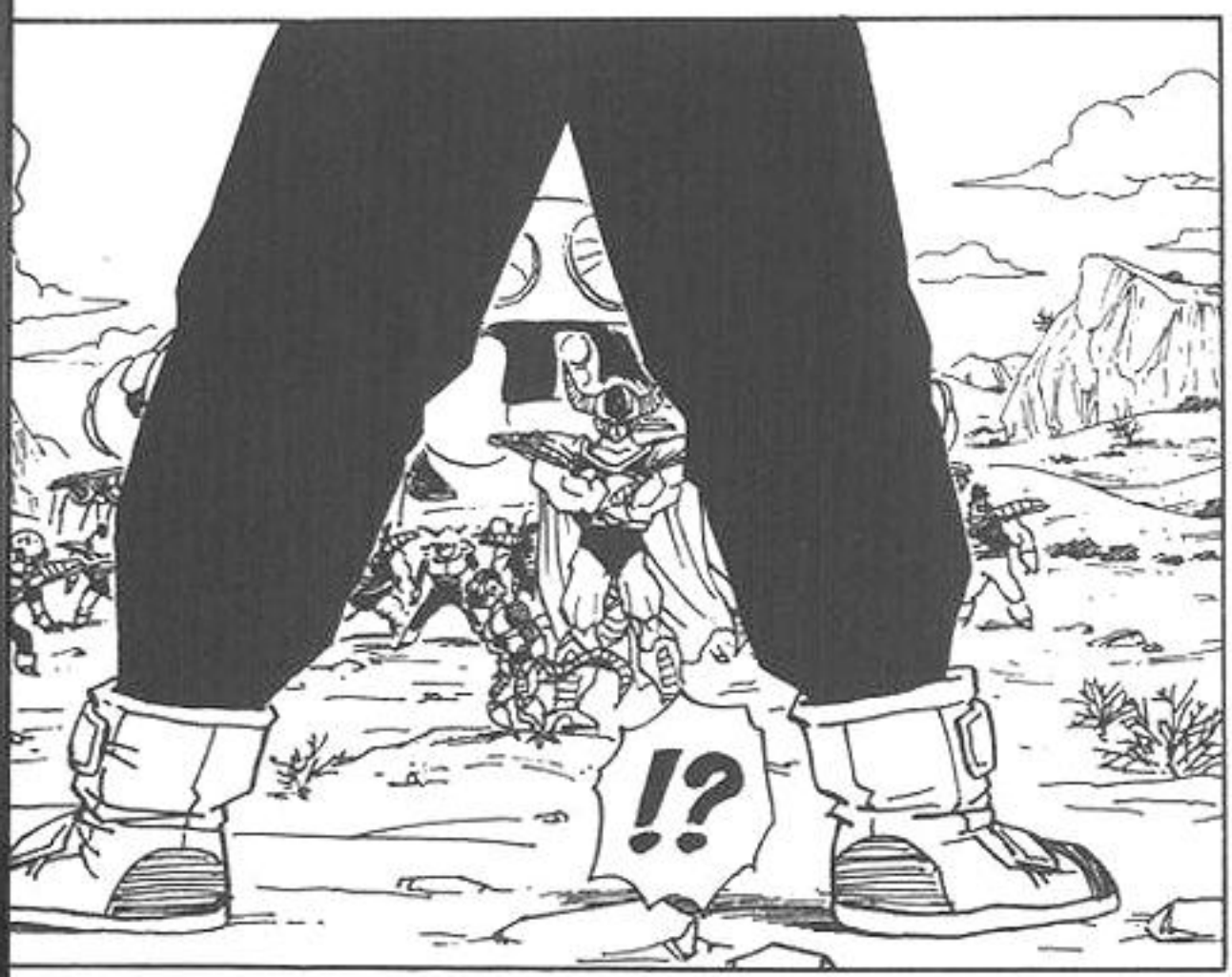
푸하하하! 두고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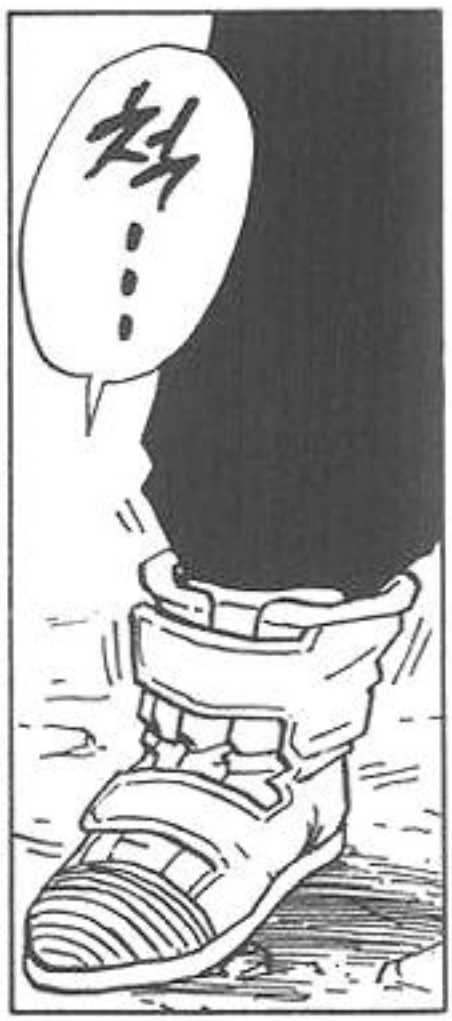
나도 파워업 했으니까. 어쩌면 나 혼자도 가능할지 몰라.

나랑 파파 둘이서 덤비면 반드시 처치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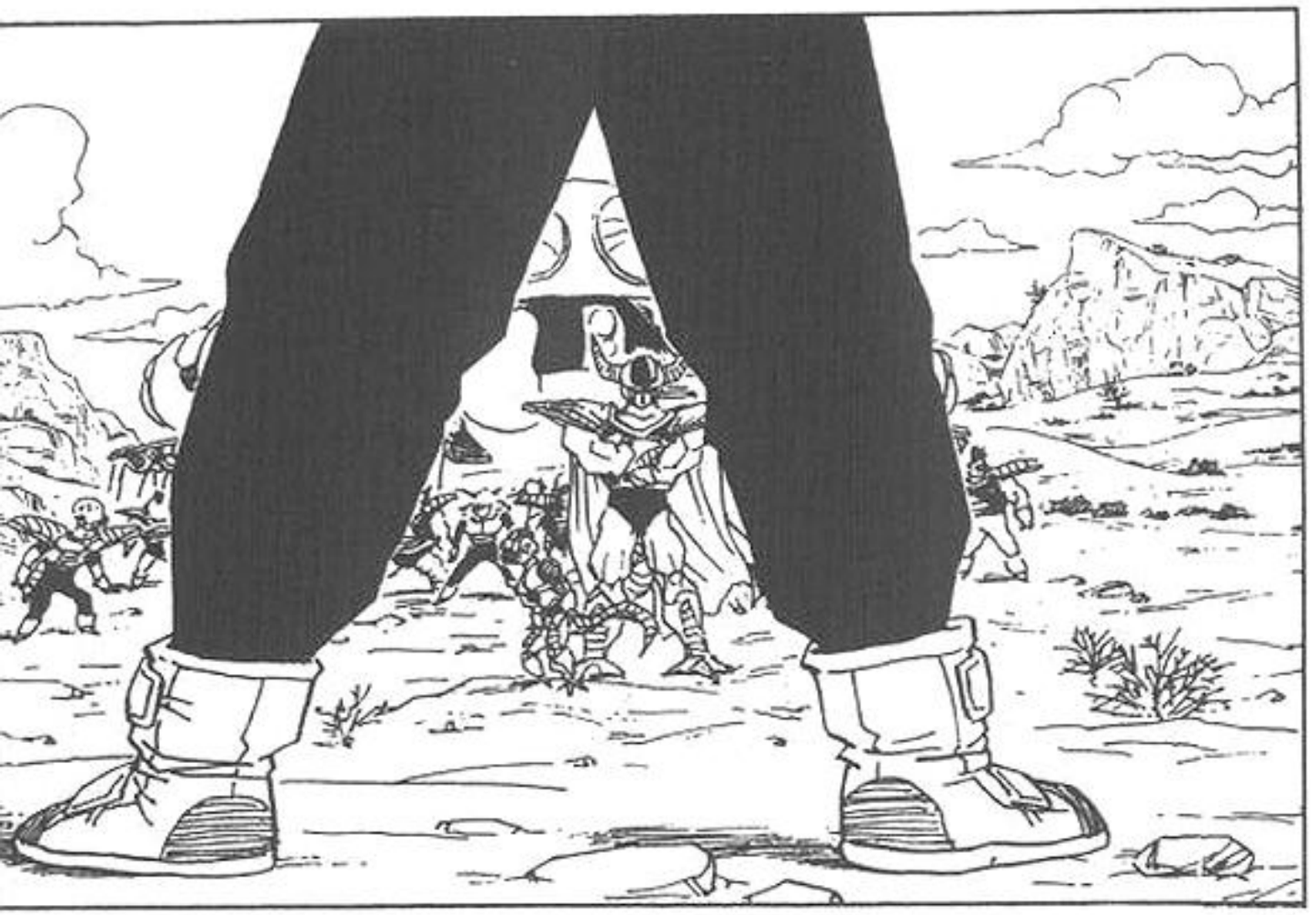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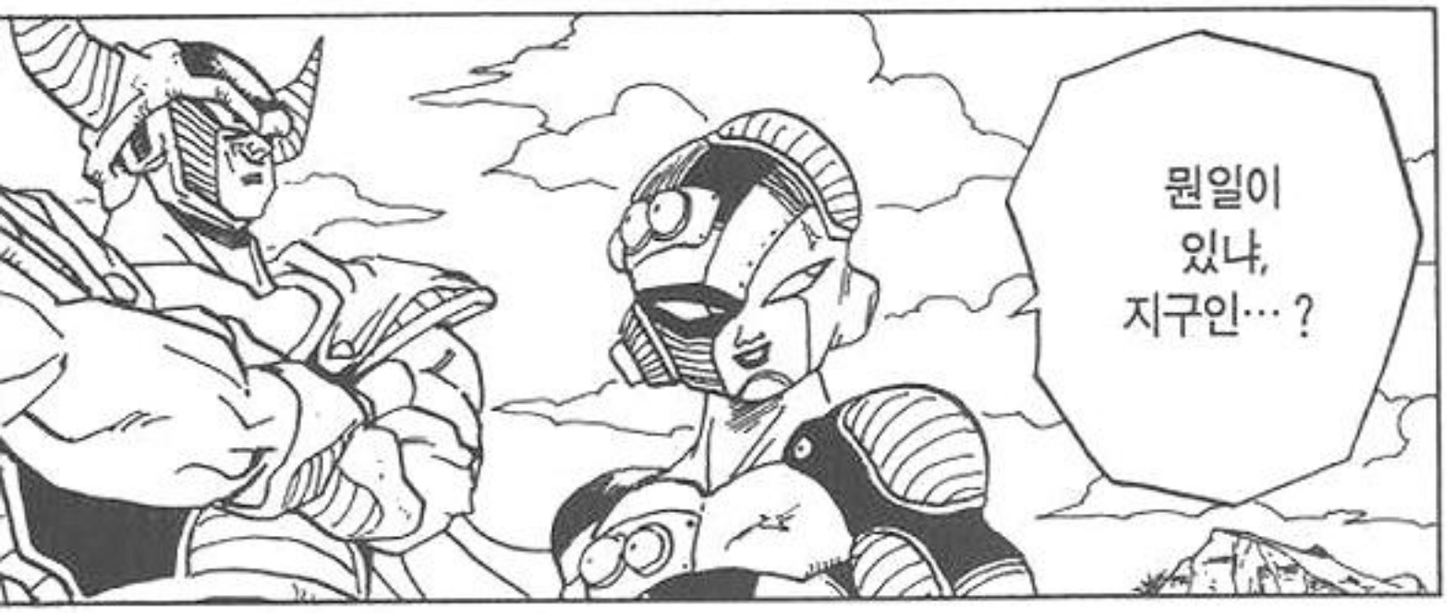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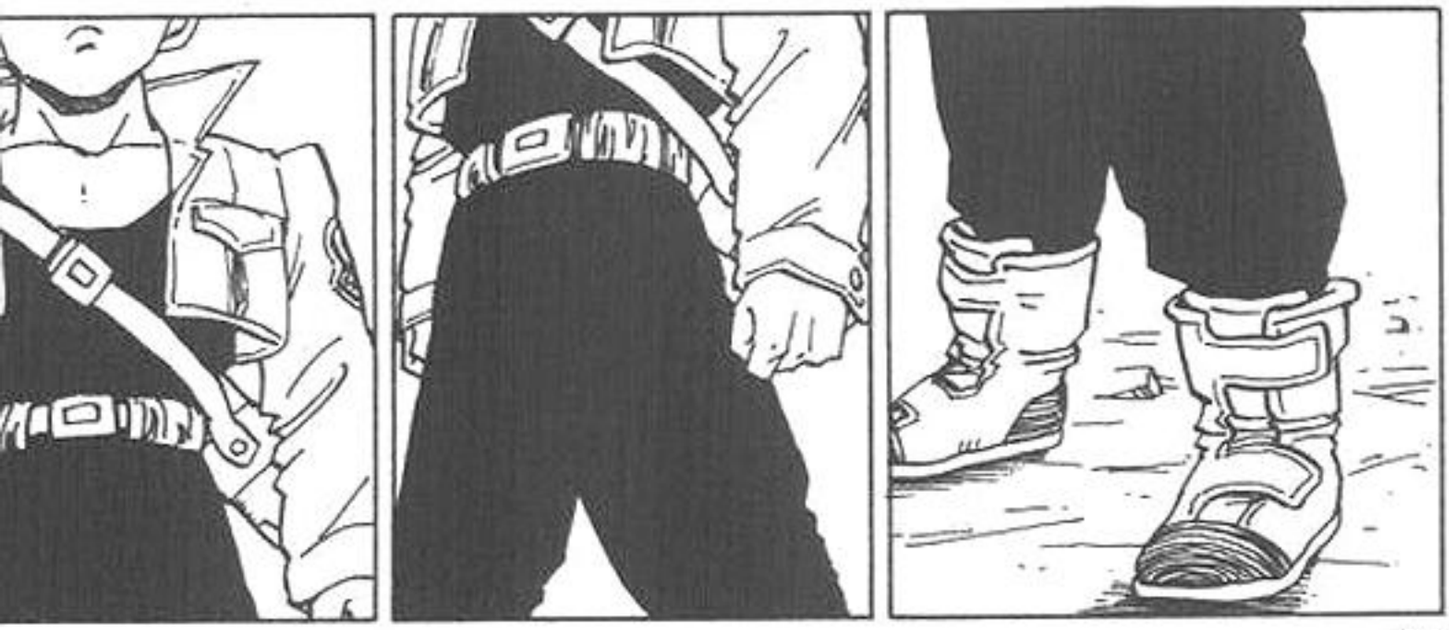



다음은, 제331화 수수께끼의 소년

anned by raprnb





너희들을
죽이러
왔다….

죽이러 왔다고라? 우리를?

크크큭…. 하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게 약이지…!

프리더 맞지…?

알고 있어….

처치해라!

옛!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이제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군….

영광이군. 이런 은하 한쪽 구석에 있는 별까지 내 명성이 알려져 있다니….

!


퍽


전투력이 겨우 5…, 쓰레기 같은 놈….
다른 애들은 어서 지구인들을 처리하러 가고!


Wa


퍼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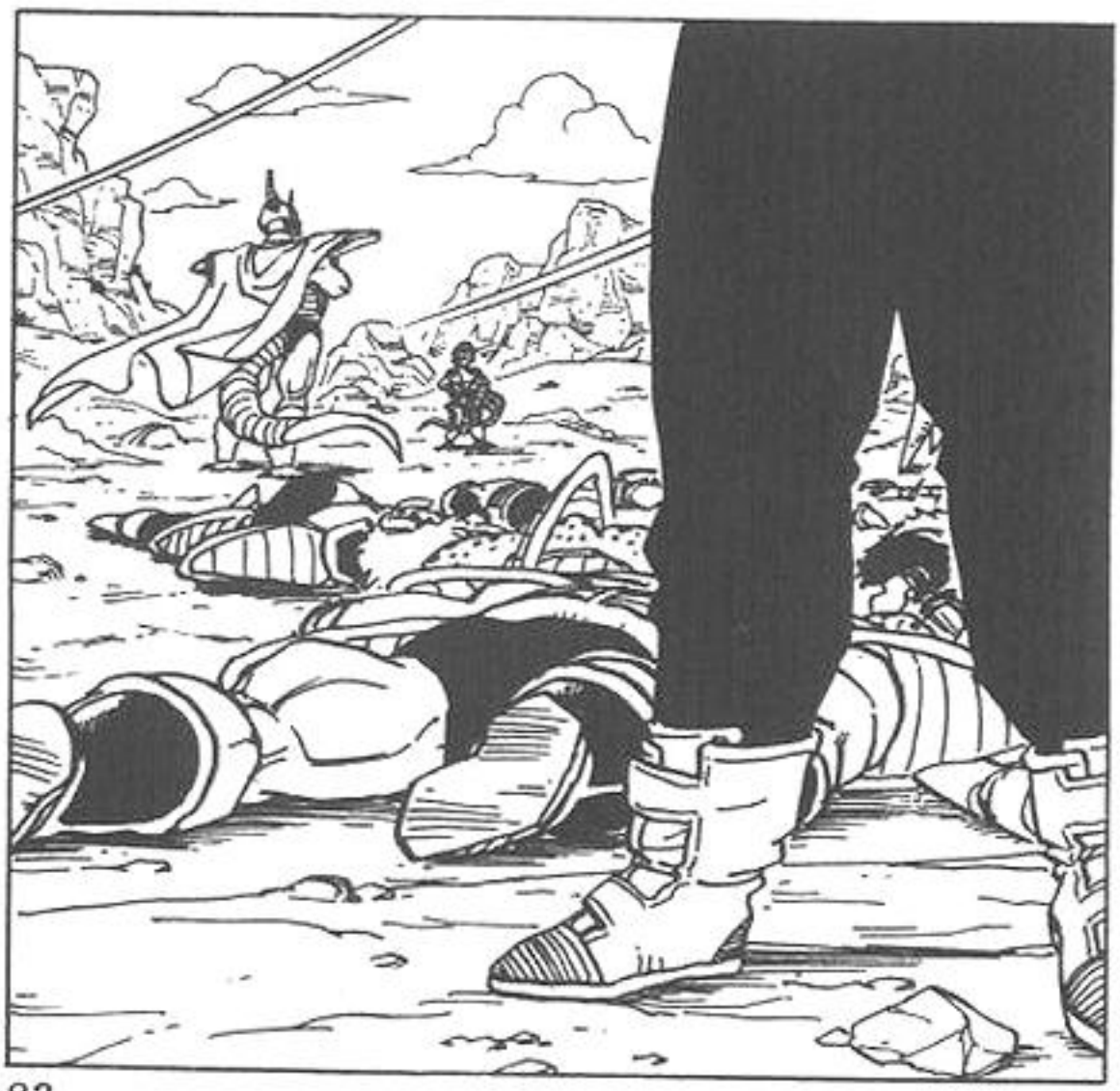

!?


!!
호오…
씨익…
이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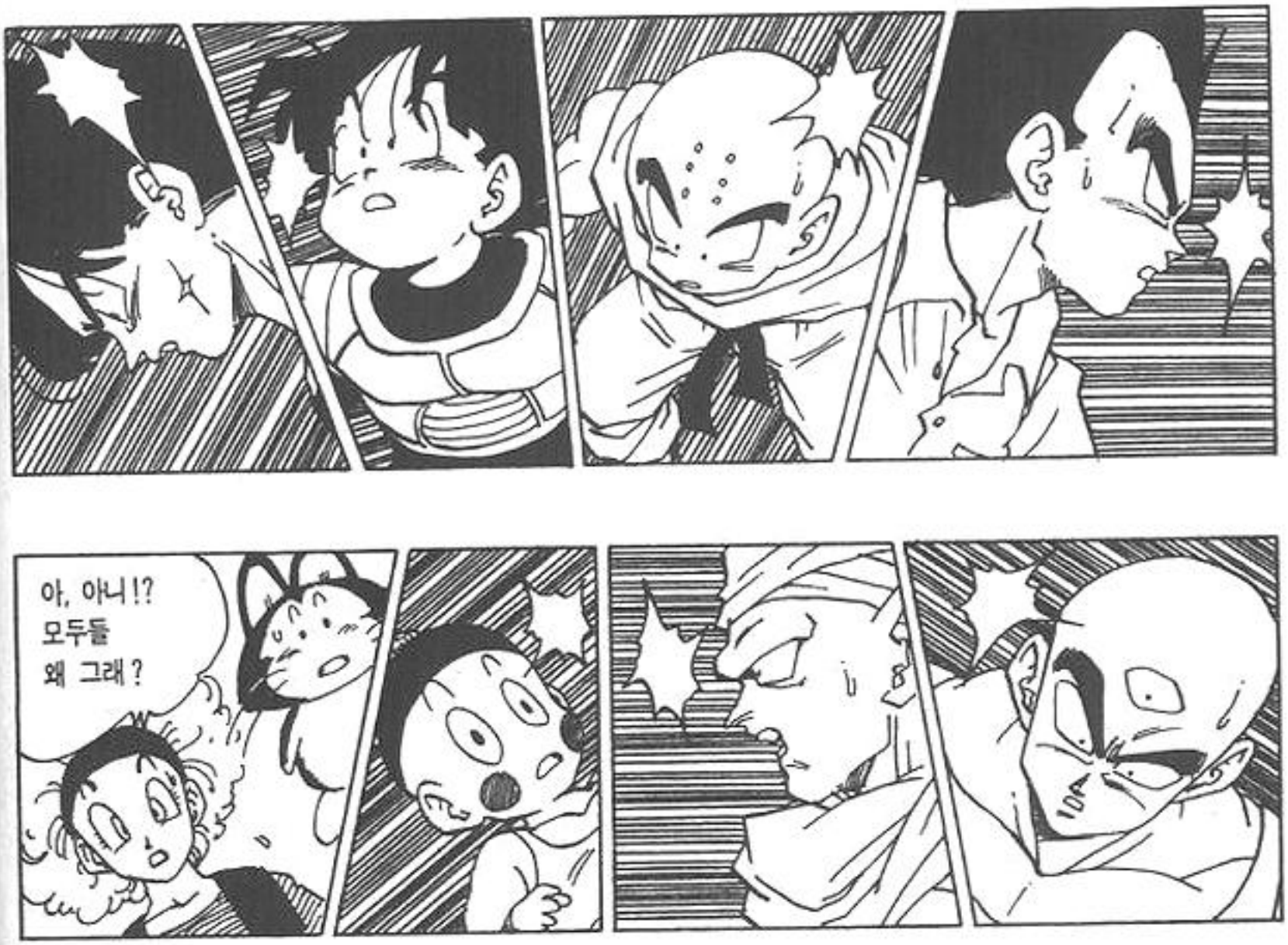

발라당..


FL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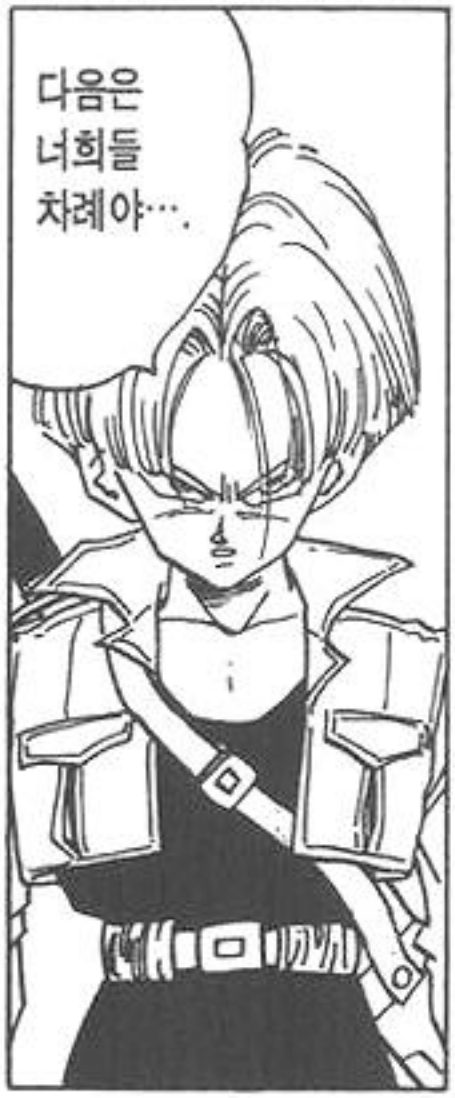





냐앙...


아, 아니!?
모두들
왜 그래?


어…
어찌된
일이지…?
저 산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수…,
순식간에
많은 기가
사라졌다….
갑자기
엄청난 기가
나타나고….


다음은
너희들
차례야….


호오….
꽤 솜씨가
있네….
크크큭….
지구인 치고는
말야….


그걸
똑똑히
가르쳐
줄까?
어정쩡한
실력을 가진 놈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지.


프리더,
들었냐? 이번엔
우릴 죽여
주시겠다는걸.
이거
웃기는
놈일세.


알겠느냐고?
호호호….
진짜 귀엽게
노네.


너흰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손에
죽는다.
알겠지?

난 손오공 아저씨처럼 누굴 봐주는 성격이 아니거든….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덤벼야 해.

너는 좀전에 그 초사이어인이 올 때까지 지구인을 몰살시켜서 분통터지게 해주자는 말을 했지…?

만난 적은 없다.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랬군. 너도 그놈과 한패였어….

손오공? 분명 그건 초사이어인 이름인데.

네놈이 내 부하를 죽여버린 덕분에 당연히 이 프리더 님께서 직접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렇다…. 너도 그 중 하나야….

내가 말한 너의 오판이란 건….

그런 게 아냐….

아니, 월. 쓰레기 지구인들을 대청소하는 것쯤이야 나에겐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운 일인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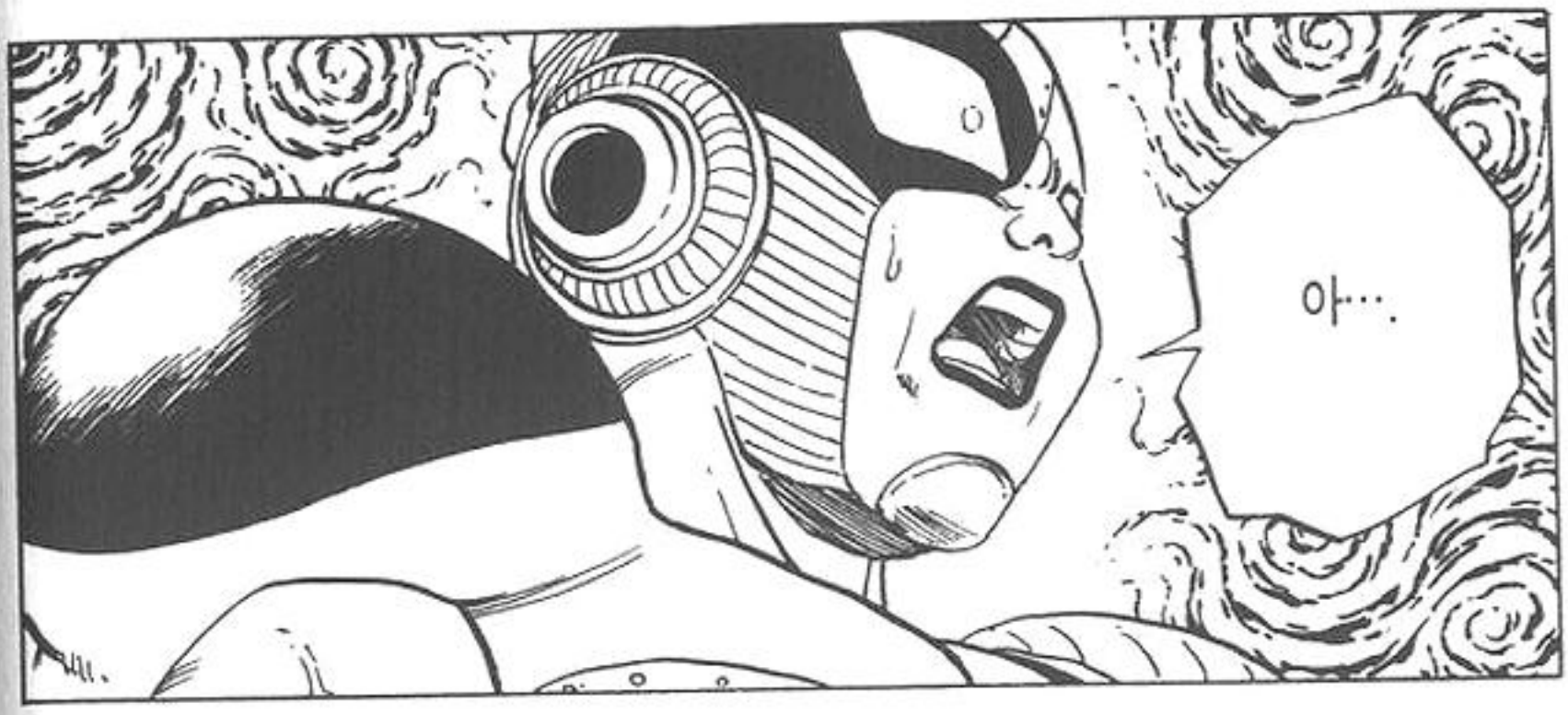
멋지게 오판하셨군….

여기도 초사이어인이 있단 말씀이지…!!

초사이어인은 손오공 아저씨 혼자만이 아냐….

하아아앗!!

뭐!?


아….


저게
초사이어인
이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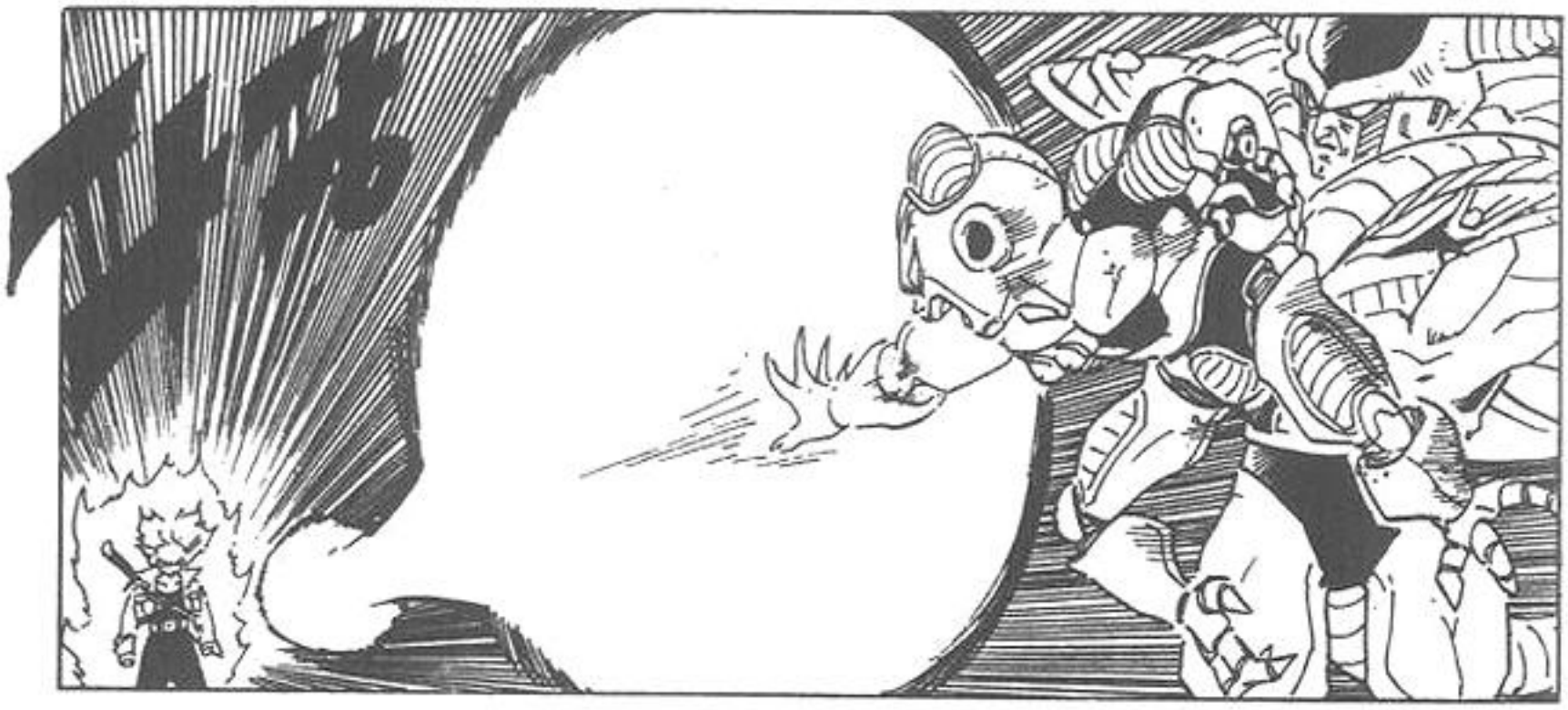
사라
져라!!




그때 느낀
아빠의 기와
똑같아!
그,
그럼…!!
아,
아빠다!


뭐,
뭐야!?
이, 이
기는!!


바로
너다!!
사라지는
건…!




시,
시작
됐다!!
쿠쿠궁…


쿠과과광



파

잘했구나, 프리더!
어차피 저 녀석은
우리의 적수가
아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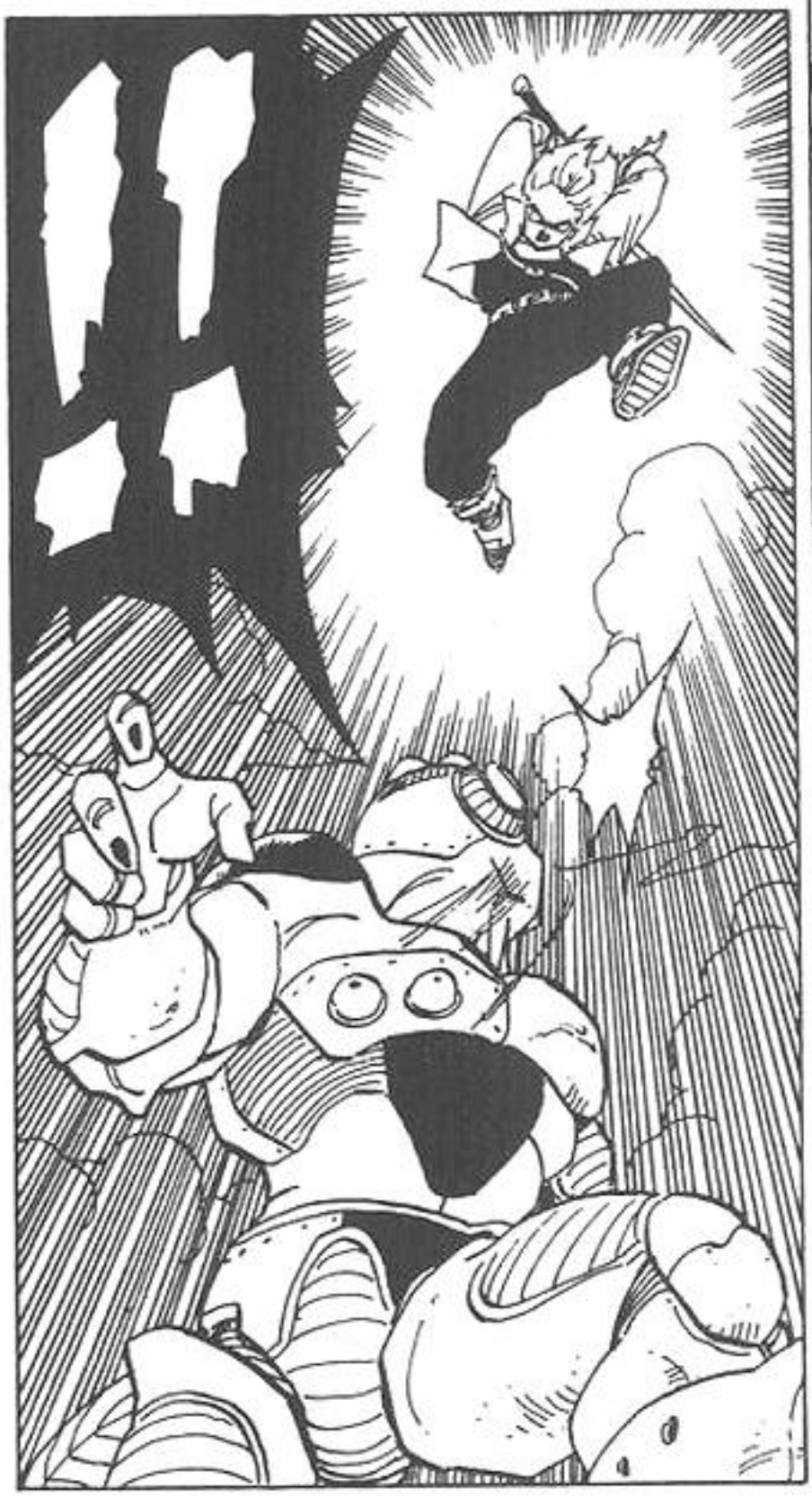
파바바바

!!

프리더
—!!

# KO

# THE H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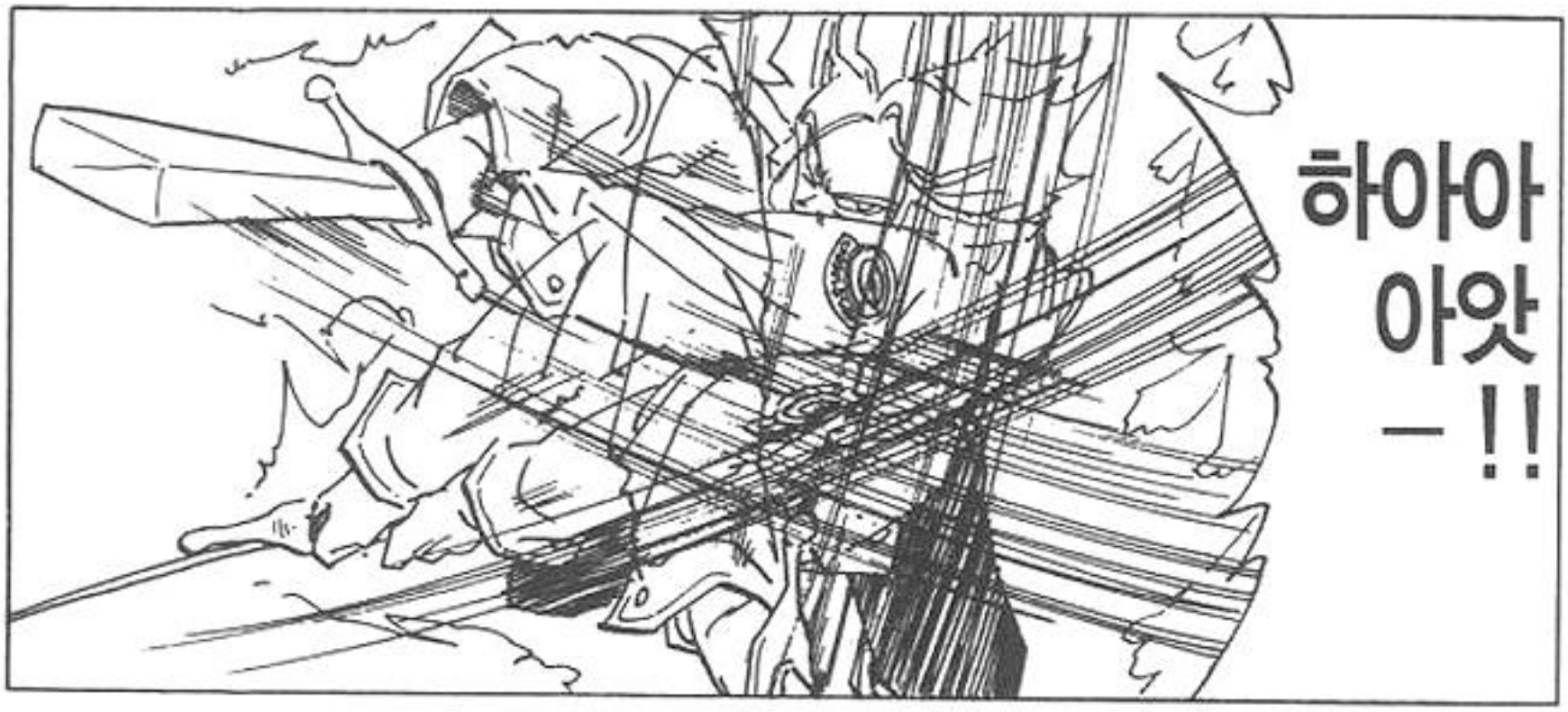


다음은, 제332화 두 번째의 초사이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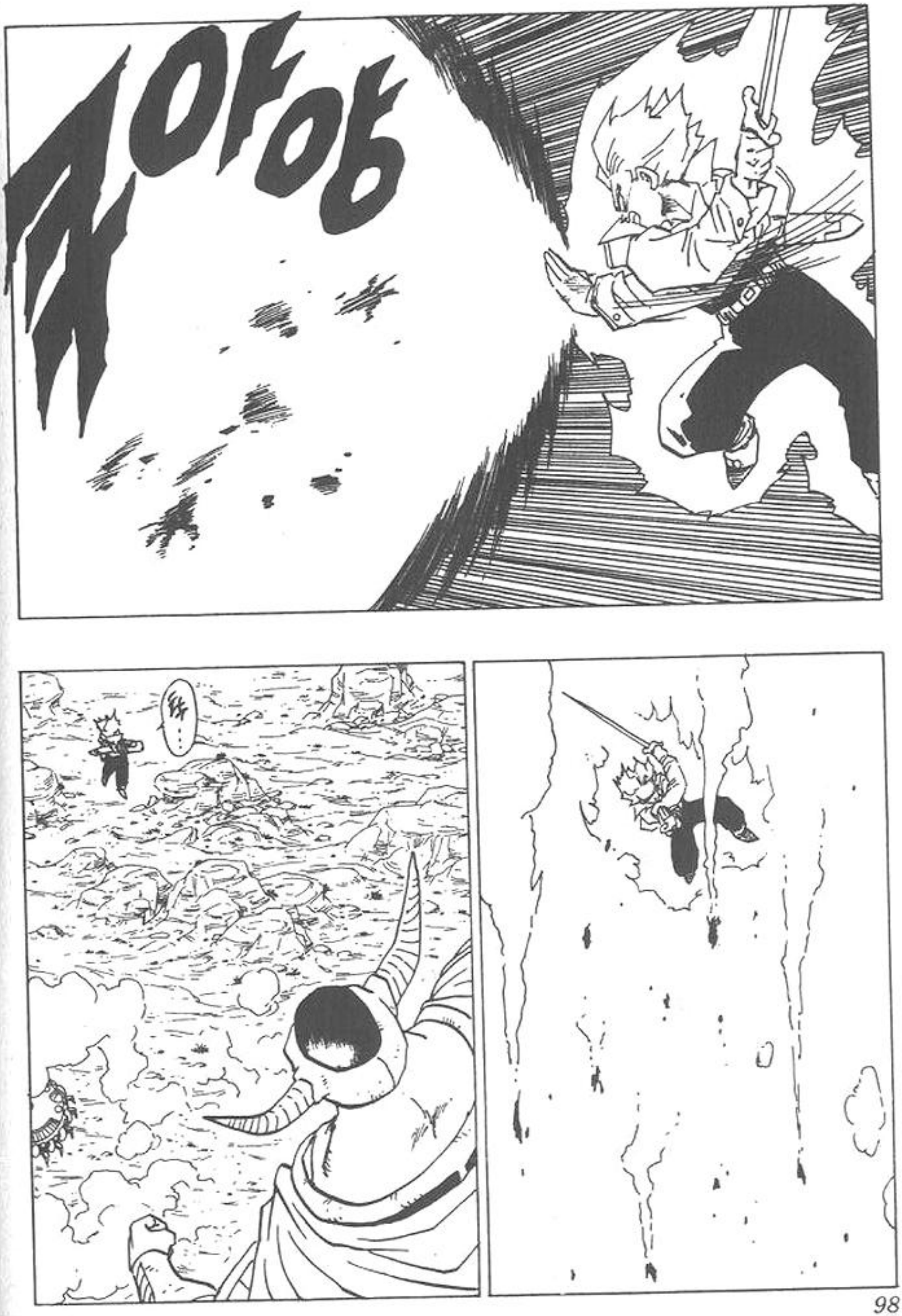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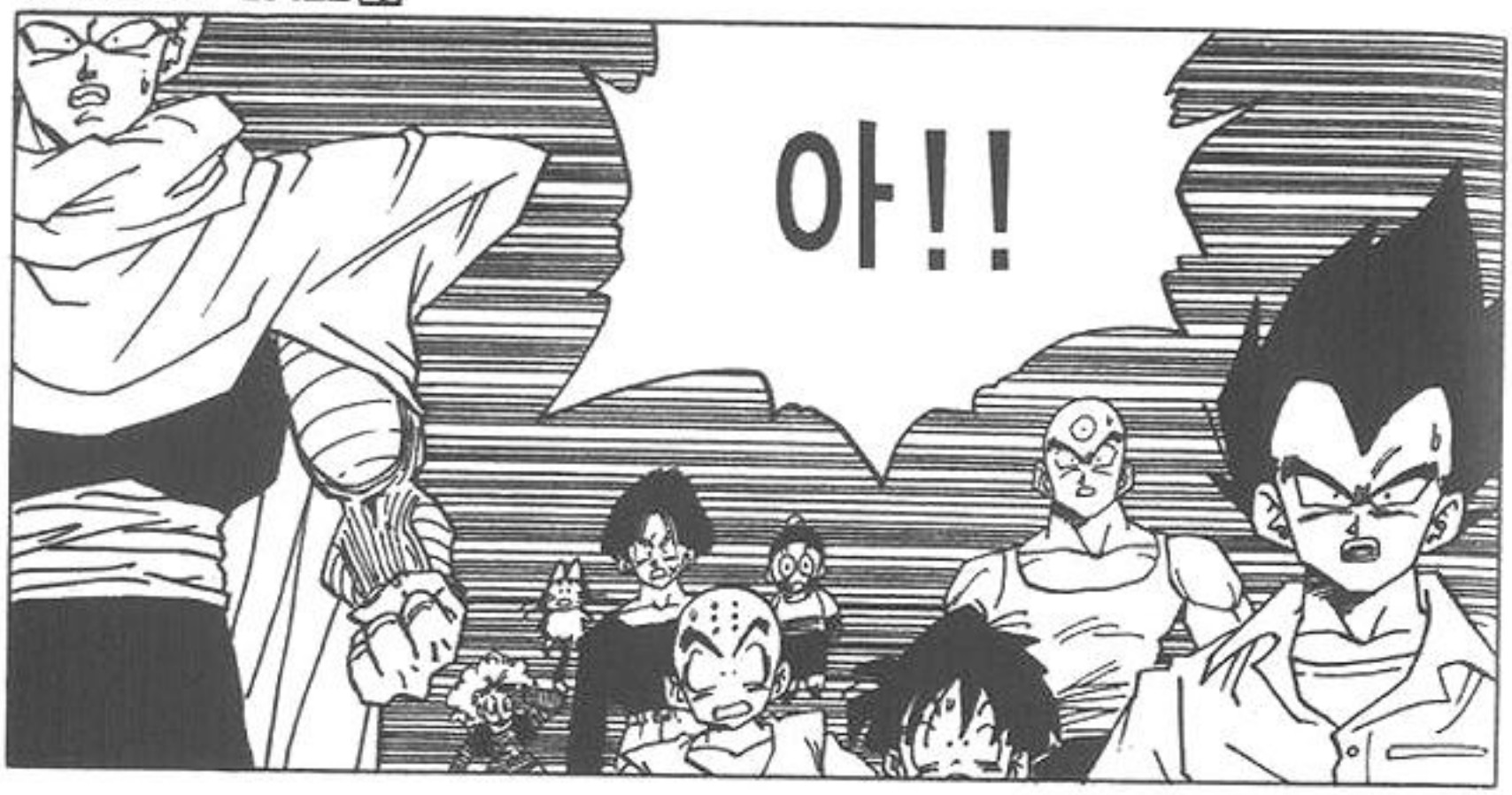

앗!!


크리링
아저씨,
저기…!
엇!?


하아아
아앗
—!!




ДОГОБ


아!!


그… 그처만 손오공 정말 강해졌네~. 눈 깜짝할 사이였어….
니… 니들 눈 한번 기똥차다…. 저렇게 먼 곳까지 다 보이다니….
또 지구를 구해줬구나!


지… 지금 저건 틀림없이 프리더였는데….
프… 프리더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먼지로….


!!


손오공이 아니야…. 초사이어인 같긴 한데….
뭐!?


나도 갈래!
슈슈슈
타닥

내 자식 프리더를
단숨에 먼지로
만들어 버리다니….

진짜 대단한걸.
너무 멋졌어.
상상
이상이라구….

흥미가
없는걸.

어떠냐? 프리더 대신
내 자식이 안 될래?
너야말로 우주에서
제일 강한 우리 일족이
될 자격이 있어.

이 지구 따위
보다 더 멋진
모든 별들도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구….

그런데, 그거 정말
훌륭한 검이잖아.
그토록 단련시켜준
프리더의 몸을 마치
두부 썰 듯 간단하게
조각내다니….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섭섭하군….

잠깐
보여주지
않겠냐?

사악…

왜 그러셔?

내게 검을 넘겨주는 게 무섭나?

꼬옥:

과연! 진짜 기막힌 검이로군….

그런, 네가 프리더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건, 이 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 내 말이 맞지?

즉, 넌 이 검이 없으면 내겐 절대로 이길 수….

아니, 뭐 간단한 얘기야….

무슨 소릴 하고 싶은 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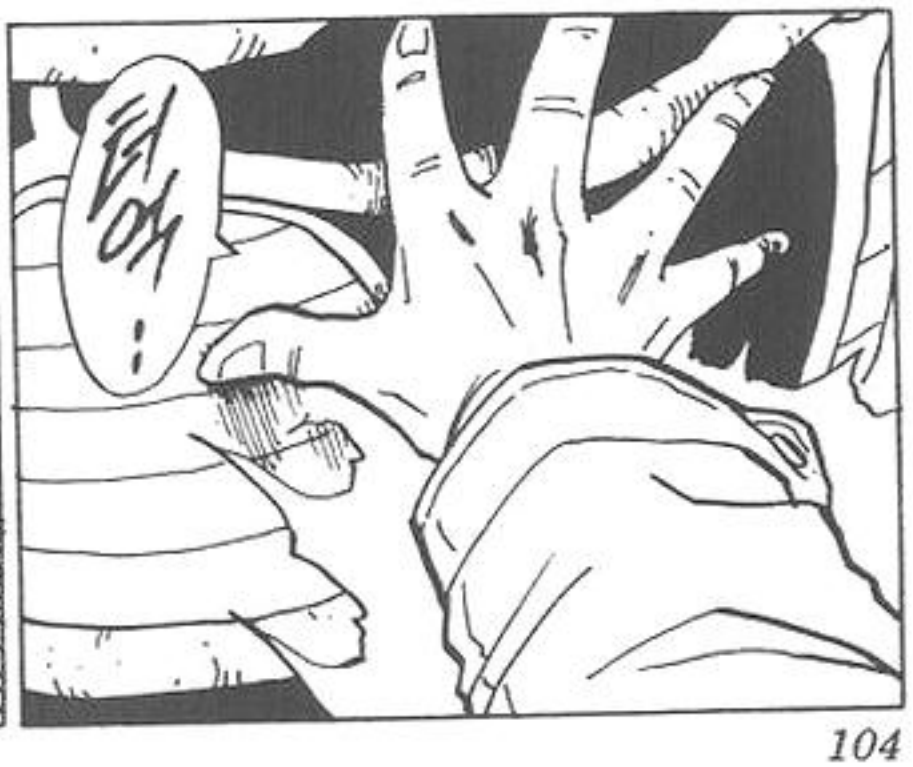
없다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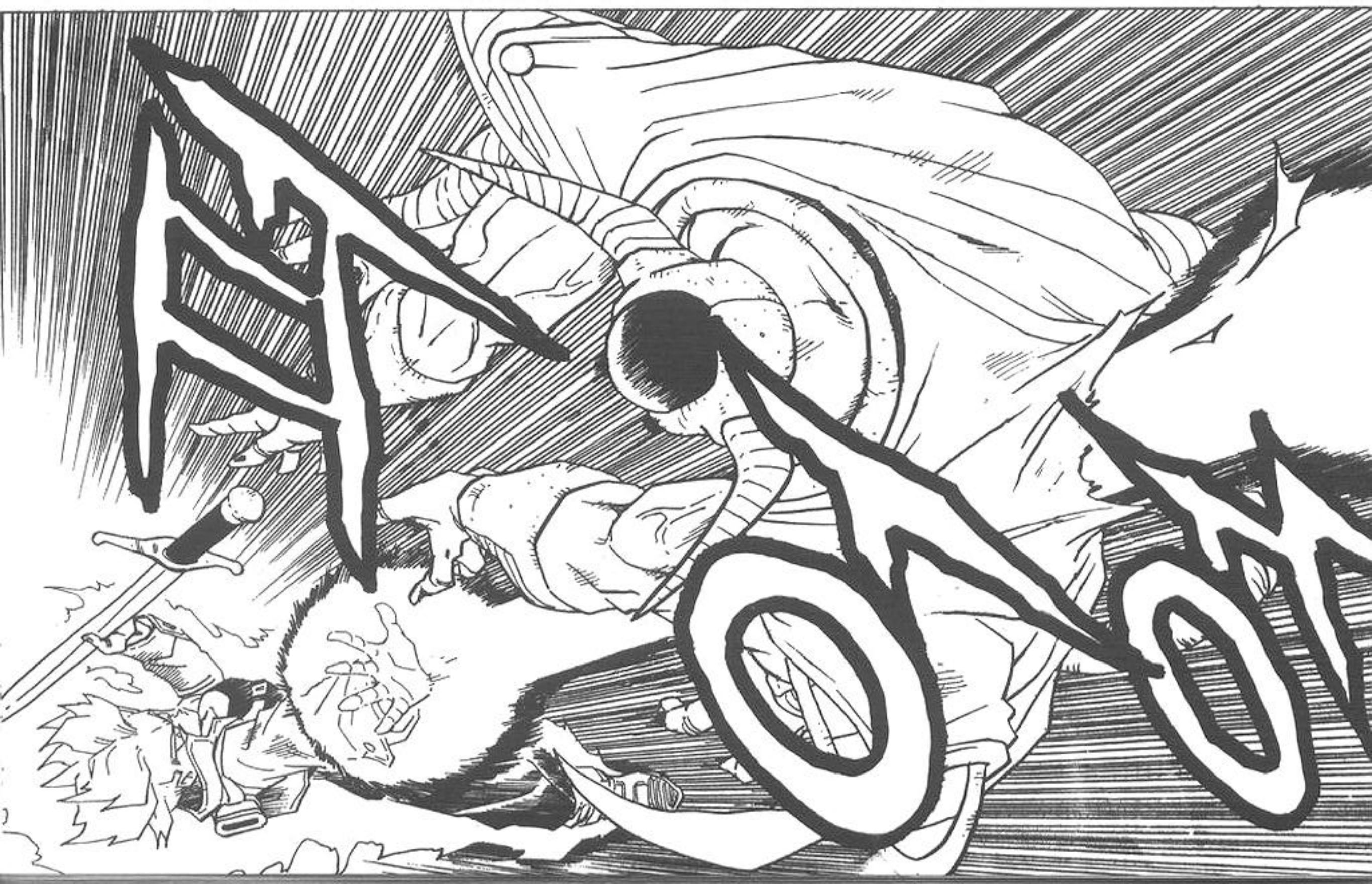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


윽…!
우ㅇㅇㅇ
…!!


앗…!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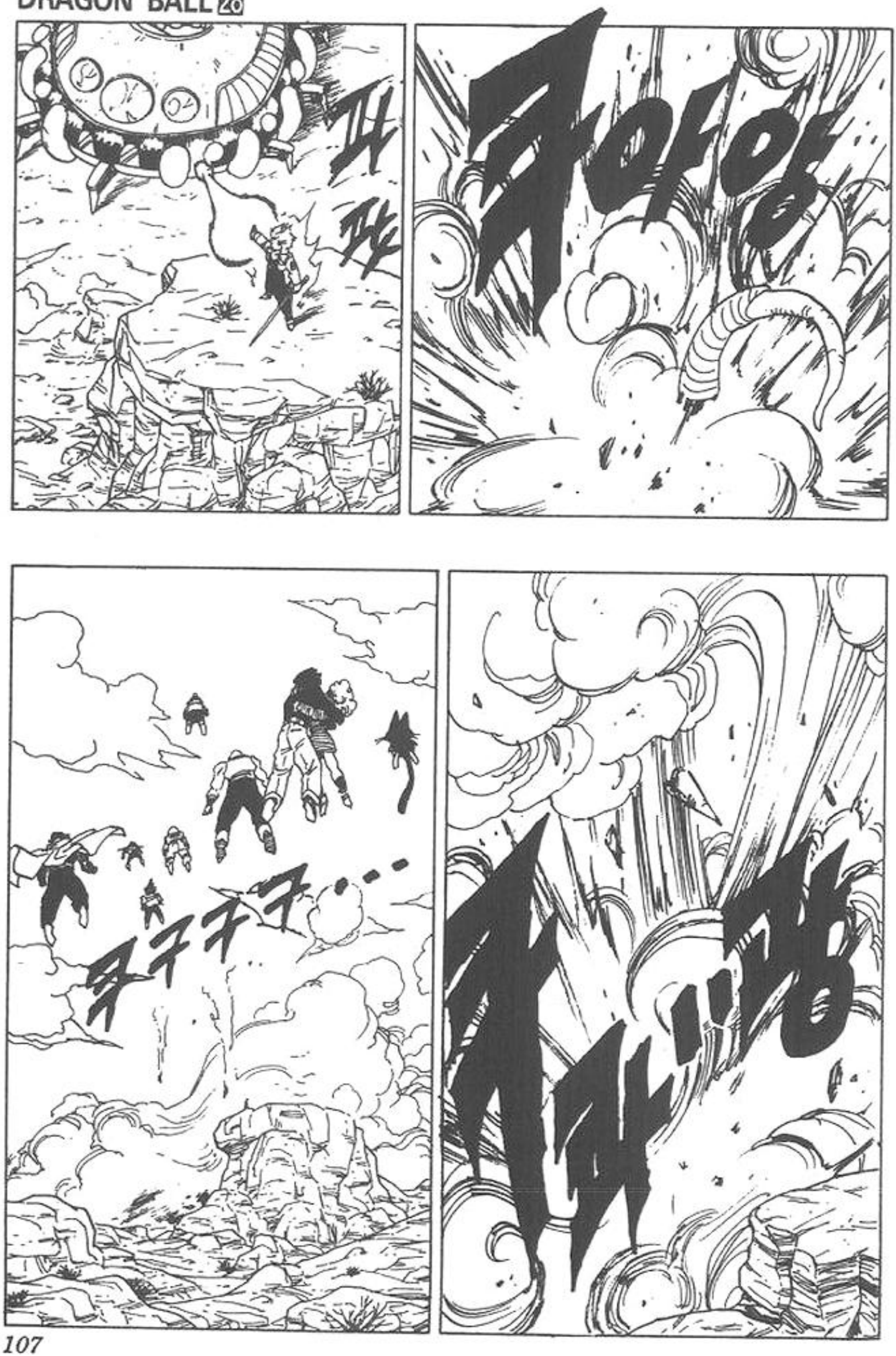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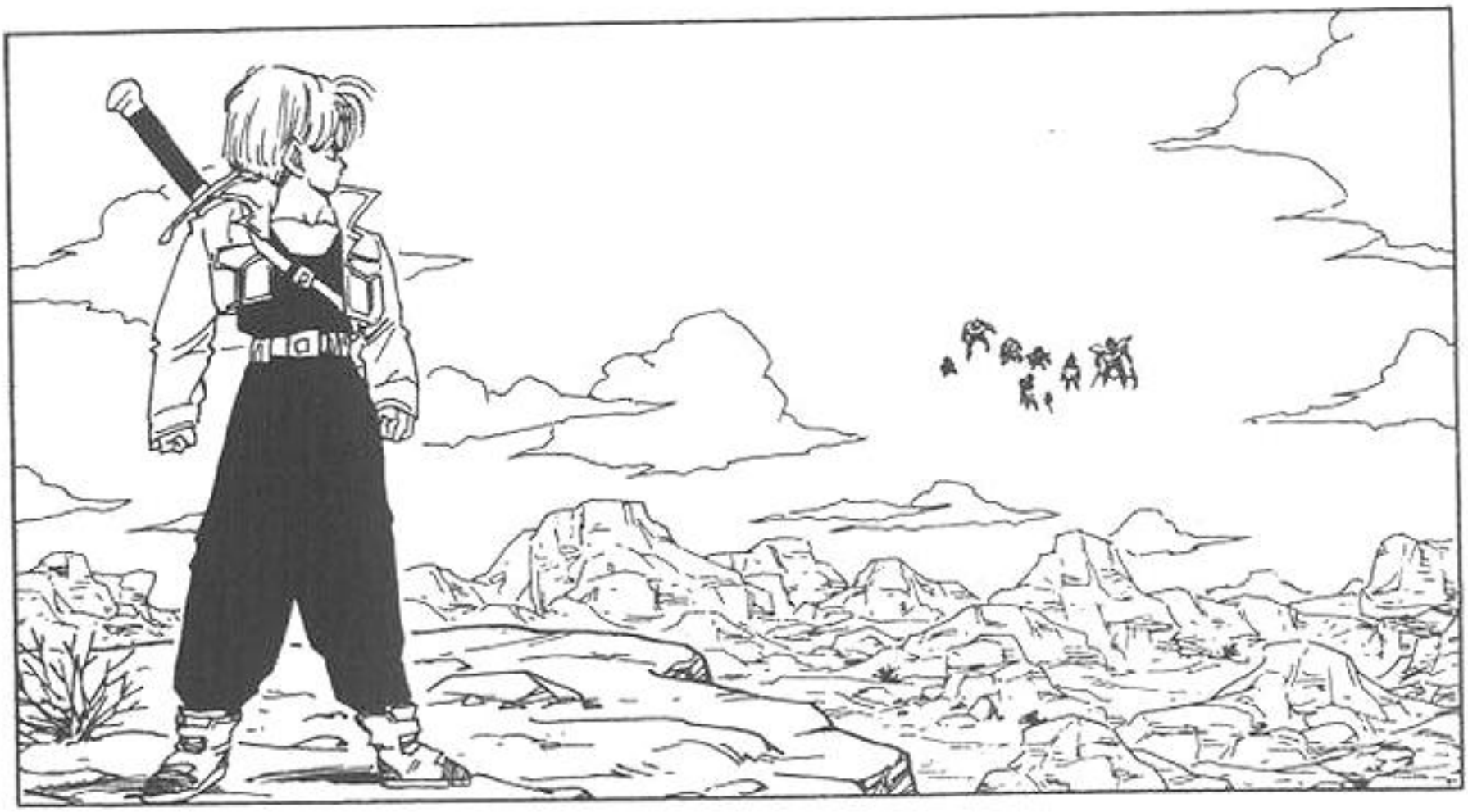





ヌチチチ…


녀석


치ㅇ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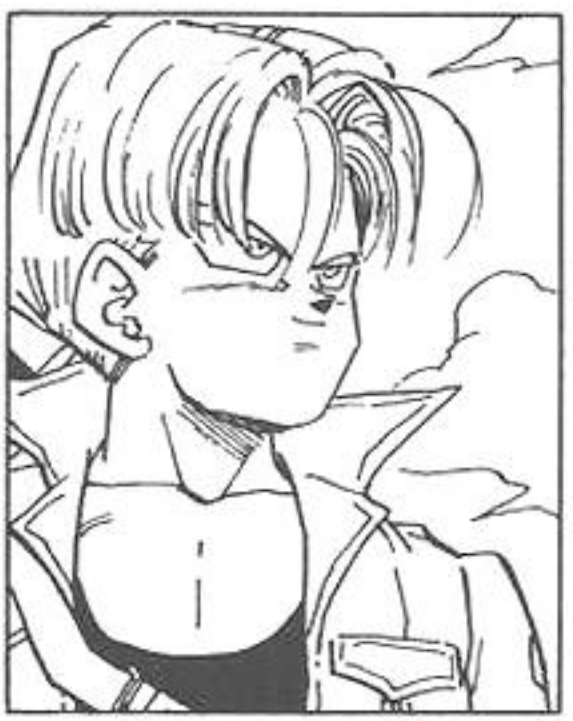



함께 가지 않을래 —!?
이제 손오공 아저씨를 마중하러 갈 거야!












다음은, 제333화 돌아온 손오공


나, 난 저 사람을 따라가볼 테야!
하지만 ….
정체를 전혀 모르잖아.
나도 간다. 저 녀석, 프리더 일당을 처치했고, 손오공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나쁜 놈 같지는 않은걸.
그리고 흥미도 있고….

놈의 정체를 까발려 주겠어.

나도 가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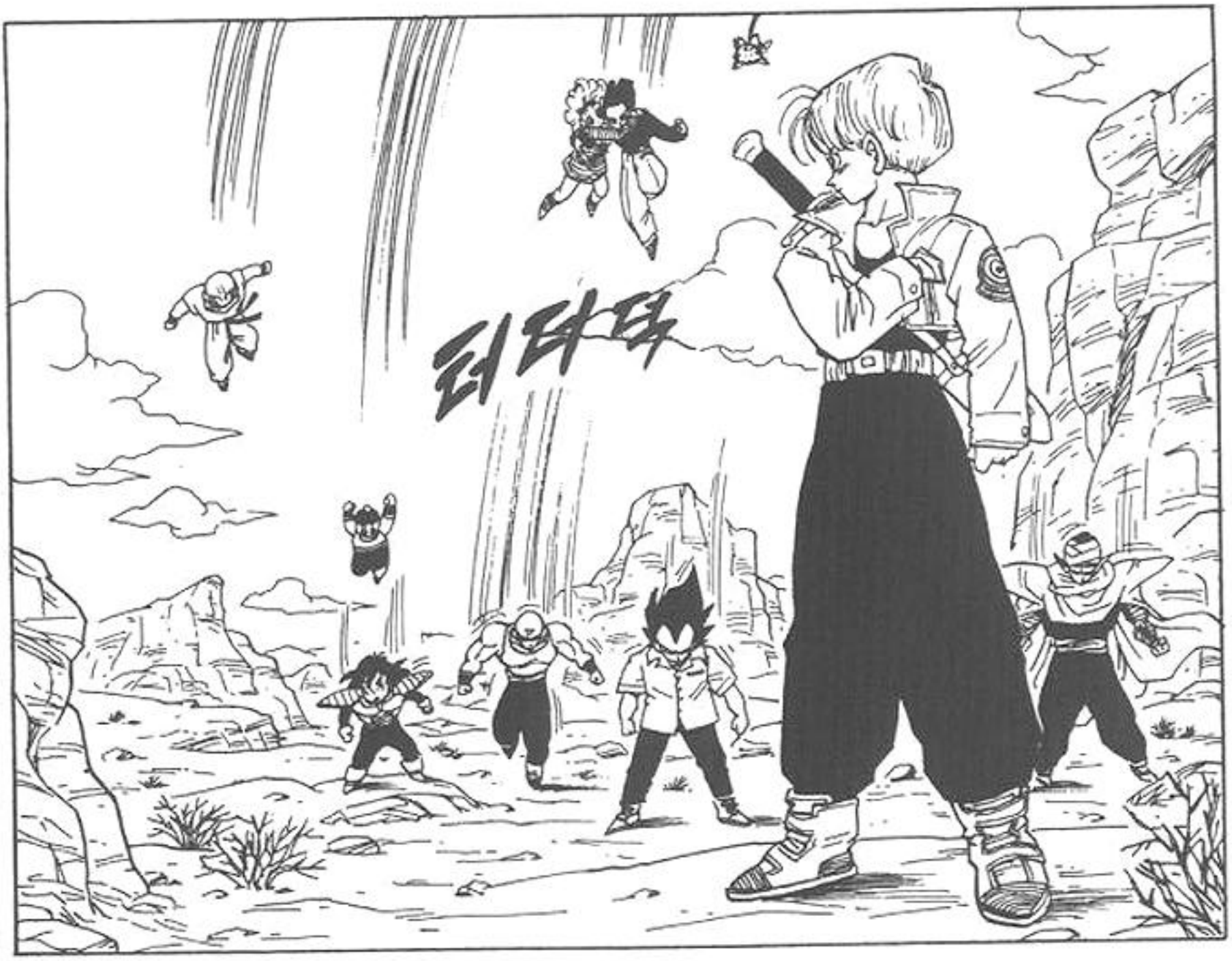
어떻게 그걸 알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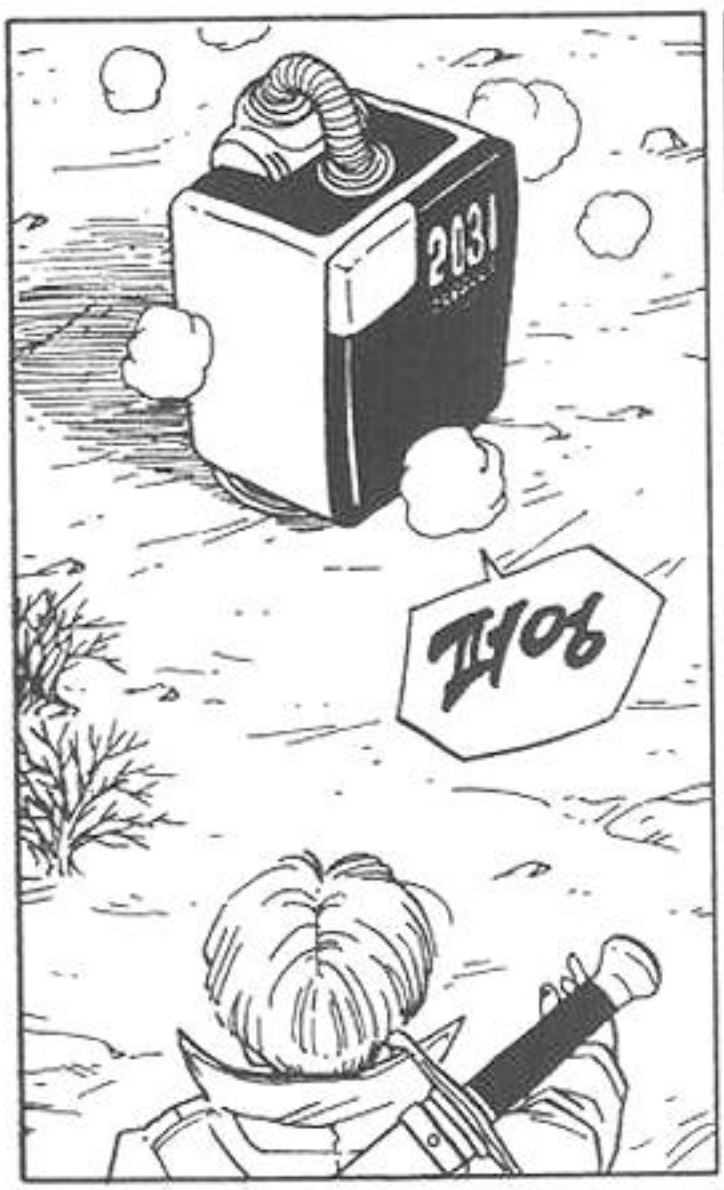
오공을 마중나간다니…, 정말일까…?

요상혜….

573의…, 18220 포인트 정도라….

그럼…, 이 근처군….


터터터


2031
피어




C
B-17


뭐냐

손오공 아저씨가 도착하려면 세 시간 정도 남았어.

철컥

조, 조심해. 이상한 걸 꺼냈어.

한잔 마셔볼까!

나도.

끄삭

마실 것은 충분히 있으니까 마음껏 드셔.

나… 나도 먹어볼까…?

우리 제품 중에 이런 냉장고가 있었나…?

그럼 잘 마실게.

어떻게 우리 아빠에 대해 아는 거지?

응? 아… 아니…, 저기….

너…, 어디서 나 만난 적 있니?

그건….

그럼…, 어떻게 세 시간 뒤에 여기로 오공이 온다는 걸 알지?

말할 수가 없어….

미안해….

아직 만난 적은 없어….

나도 얘기로 들은 적은 있지만….

저기…, 프리더 일당을 쓰러뜨릴 때…, 당신은 초사이어인 이었지…?

아…, 그래. 그랬지….

미… 미안 하지만 그것도….

넌 대체 정체가 뭐냐?

말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파워를 가졌지…?

웃기지 마!
사이어인은 나하고 카카로트,
여기선 손오공이란
이름이지만…. 그리고
지구인과 혼혈인 그 꼬마….

그… 그래도
실제로
초사이어인으로
변해서 프리더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이….

…….

이렇게 세 명밖에
안 남았다구!
네가 사이어인일
리가 없잖아!

BADMAN

저기…, 그건
우리 캡슐 코퍼레이션의
마크잖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회사 사원이니?

어라!?

사이어인의
머리카락은
모두
검정색일
텐데….

…….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나이는
17살이야….

그것도 비밀?
그럼 이름,
나이도 전부
비밀이란 말야?

그렇지는
않지만….

좋아!
질문은
이제 그만!
괜히 곤란해
하잖아!

이 애는
우리랑 지구를
구해줬는걸!

이름도
말할 수
없다는 건
좀 이상
하네….

그래…,
숨길 이유가
없잖아.

별 이유
아니야.

자극 없는
따분한
생활은
질색이라….

저기…,
왜 그때 다른
나메크성인들과 함께
가지 않았던 거야?

저…,
피콜로 아저씨.
계속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지…?

그렇겠지….
아마 지금도 손오공을
쓰러뜨리기 위해 열심일걸….
그 녀석, 자존심 되게
센 놈이니까….

베지터도, 낮에는
계속 안 보여.
분명 어디선가
특수 훈련을
하나봐.

사이어인의
왕자였대나
뭐래나….

글쎄….

그러면 지금도
매일 격렬한
수련을 하면서
지낸단 말야?

그런가…?
저게 닮았나….
그래도 성격은
전혀 다른걸….

저 이상한
애하고
베지터
말야.

저 봐,
왠지
분위기가….

닮았다고
생각
안 해?

뭐가?

아까부터
뭘 자꾸 째려봐.
네가 만약 진짜로
사이어인이라면
나 같은 건 이상하게
느껴질리가 없잖아.

할 끔…!

진짜 기분 나쁜 놈이네….

미… 미안해….

어쨌든…, 저 녀석 말대로 진짜 손오공이 잠시 후에 여기 도착하면 수수께끼가 조금은 풀릴 테지….

저 녀석, 손오공이 우주의 어떤 별에 갔을 때 알게 된 걸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렇지만…, 지구에 아주 오래 산 사람처럼 어색하지 않은걸….

슬슬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그, 그럼 저 애가 말한 시간, 장소가 딱 들어 맞은 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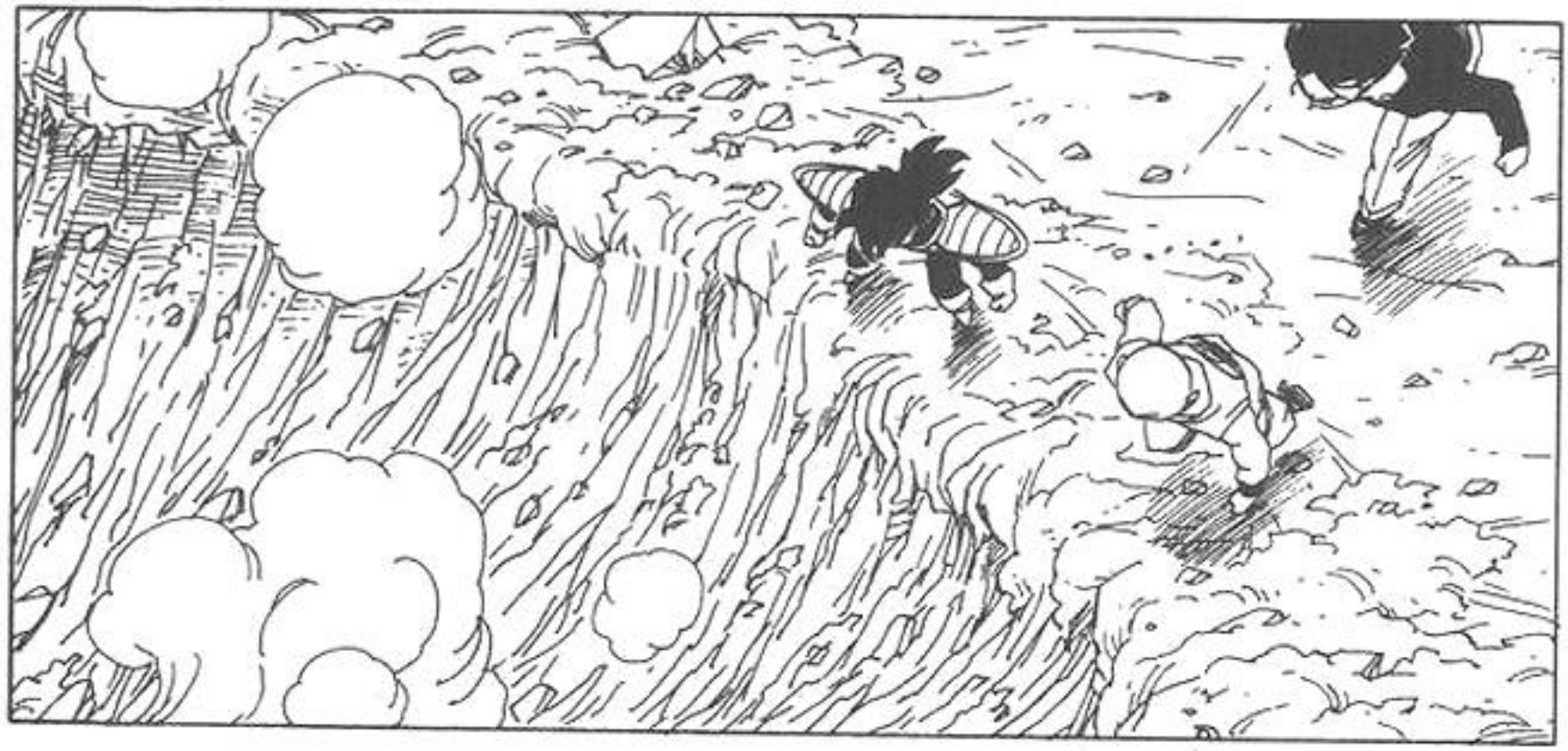
분명히 뭔가가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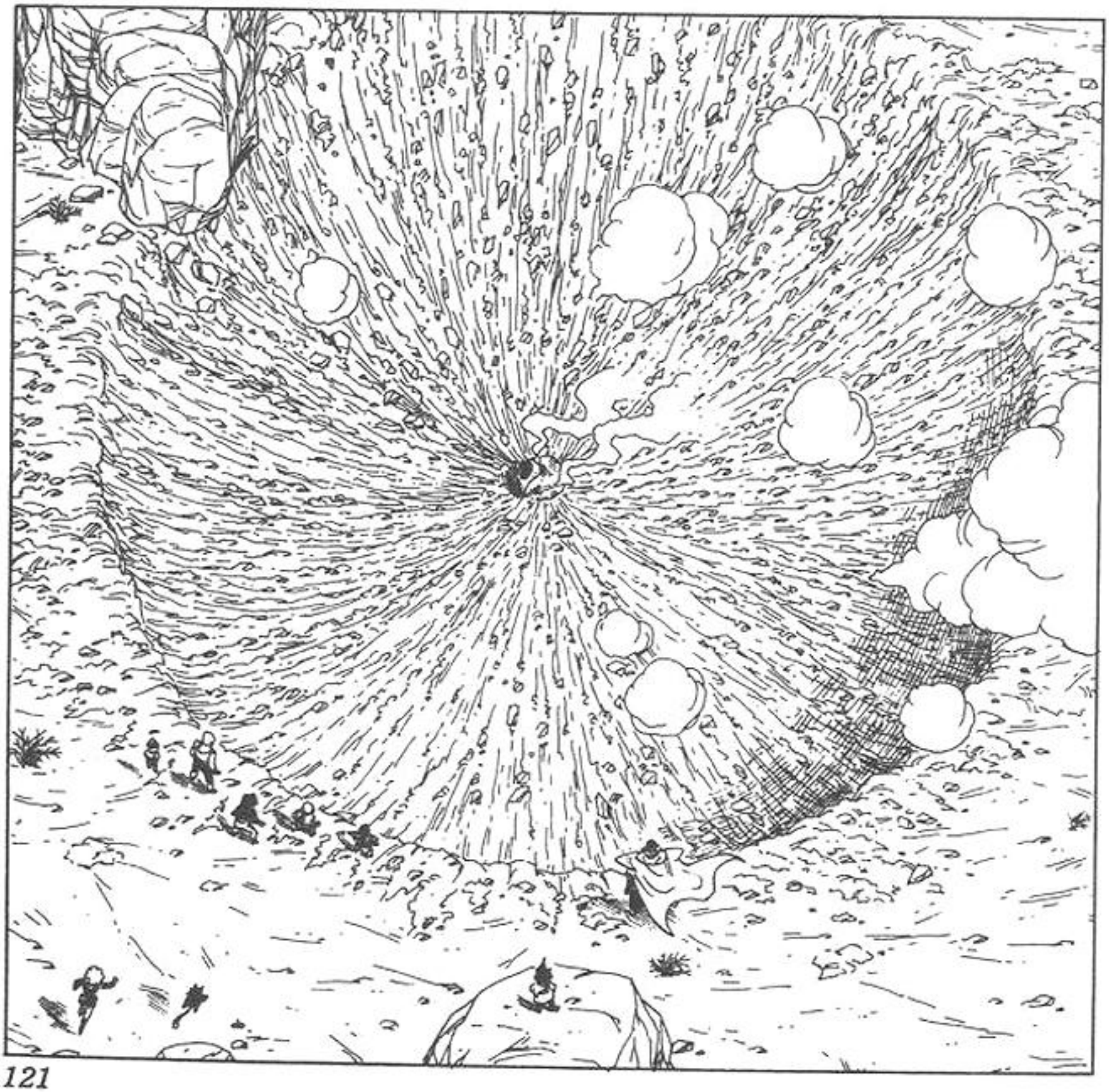
아빠다! 아빠의 기야!

지…, 진짜다…!

느껴져! 기가 느껴진다구…!


저쪽
이다!






푸하아
위이이--잉
어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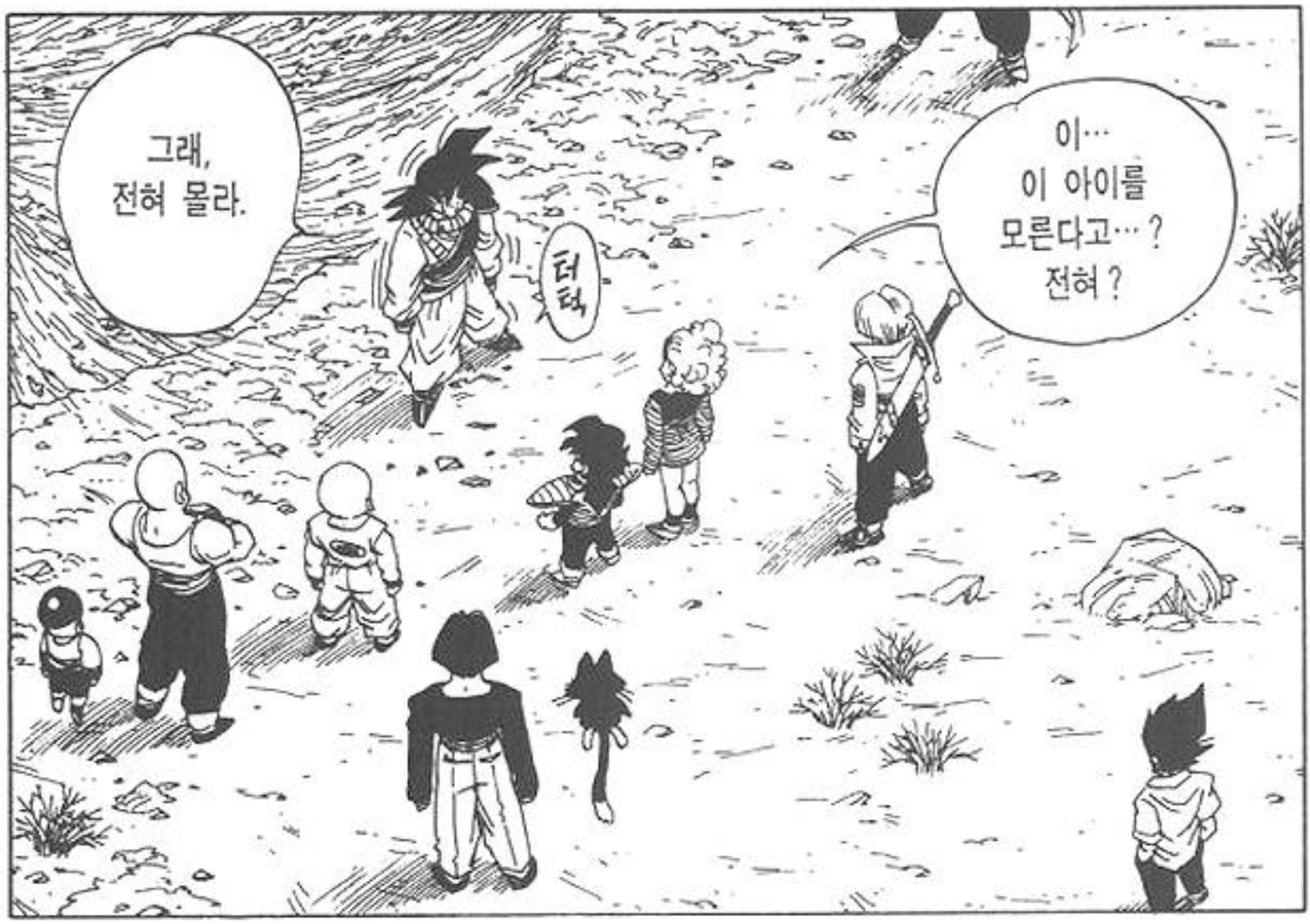








다음은, 제334화 미래에서 온 소년


그래,
전혀 몰라.
터덕
이…
이 아이를
모른다고…?
전혀?


프리더 일당은
내 우주선을
발견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지구에
도착할 지
알아낸 것
같지만….
진짜!?
그거
묘하네….


손오공이
이 시간에 여기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구,
이 아이는….
……


너처럼
초사이어인이
될 수 있던걸.
프리더 일당도
저 애가
해치웠어.
눈 깜짝할
사이에….


피콜로였나?
아니면
베지터니?
그런데 프리더
일당을 쓰러뜨린 게
누구야? 엄청난
기였던걸.

초사이어인 …!?

아냐!

절대로 사이어인은 우리밖에는 없어! 있을 턱이 없다구.

나이도 어린데 그거 대단하다!

그치만, 우리 말고도 사이어인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

오공 아저씨, 실은 좀 할 얘기가 있어…. 잠시만….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쨌든 초사이어인 맞아!?

흐음….

상관 없다니, 말도 안 돼. 넌 언제나 너무 단순 하다니까.

미안해,
잠깐 기다려줘.

뭐야?
우리한테는
비밀 얘기란
거냐?

그러고
보니 우선
고맙단
인사를
해야겠네.

프리더
일당을 처치
해줘서….

역시 내가
어리석었던
거야….
그 녀석은
나메크성에서
처치했어야
했는데.

이 근처
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프리더 일당은
당신이 쓰러뜨렸겠지만,
시간적인 엇갈림이
있어서 어차피
무리였어….

새로운 기술을 입수했거든.

아니…, 그렇지도 않아.

새로운 기술!?

당신이 도착할 때까진 세 시간이나 남았으니 무리였을걸.

그래, 프리더 일당의 우주선이 빨라서 추월당했지. 조금도 반성의 빛이 안 보여서 끝장을 내버릴 생각이었는데, 네가 나타난 거야….

말하자면 순간이동이란 거지!

그래….

야드래트란 별의 사람들이 가르쳐줬어. 이상한 사람들이었는데, 힘은 별로 세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술을 알고 있더라구.

순간… 이동… !?

그 때문에, 손오공 아저씨만 만날 생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만나 버렸고….

그… 그랬구나…. 난 무의미하게 역사를 바꿔 버렸네….

오공 아저씨는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초사이어인이 될 수 있어?

그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 처음엔 안 됐지만, 엄청 고생한 끝에 지금은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었지.

역사…?

그게 무슨 소리야?

부탁이야….

초사이어인이 되어 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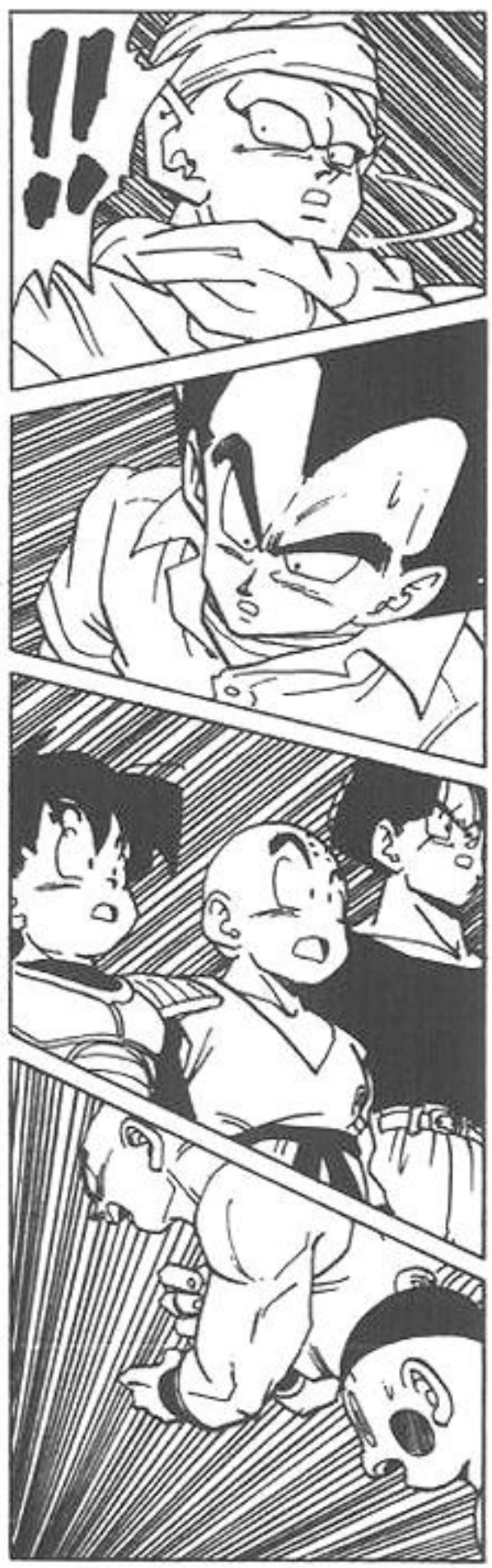
지금 여기서….

저 녀석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알았다….


읍!!


이걸로
됐니?


!!

고…
고마워….

놀라운걸….
초사이어인이 된
나하고 완전
붕어빵이잖아….

뭐… 뭐야….
오공이
왜 저렇게
된 거지…?

초…
초사이어인
….

초…
초사이어인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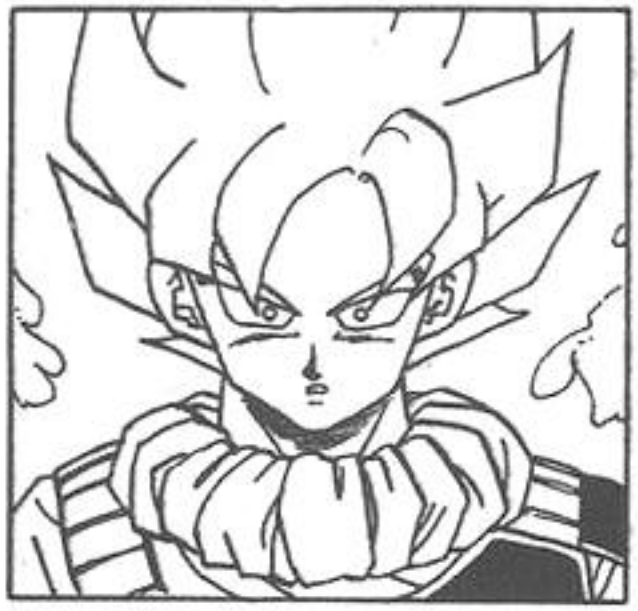
싸우지도
않고 있는데
엄청난
기다….

나도
초사이어인이….

그런데…,
왜 그러지?

……

프…
프리더는 쪽도
못쓰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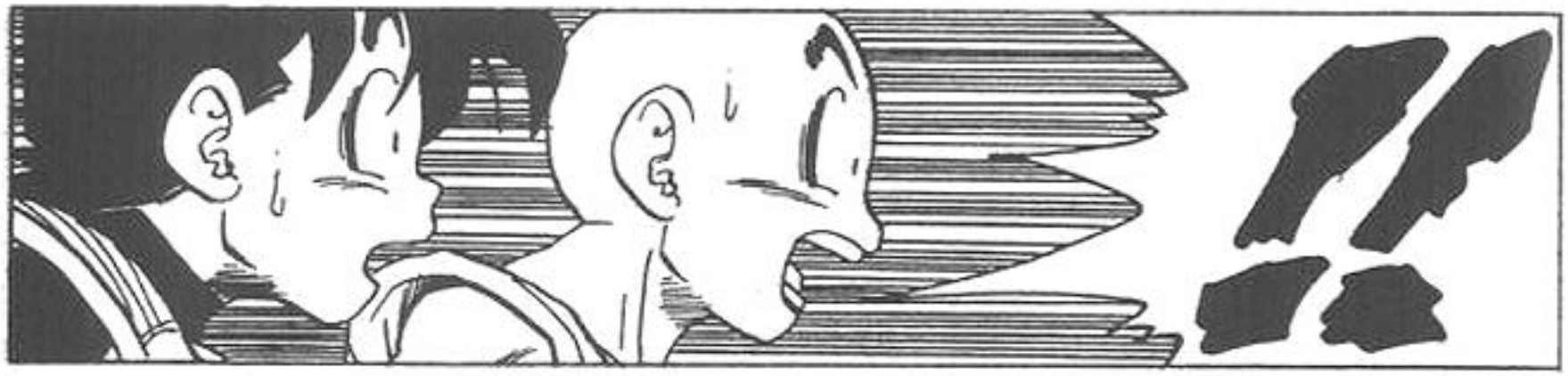

과연…,
정말
똑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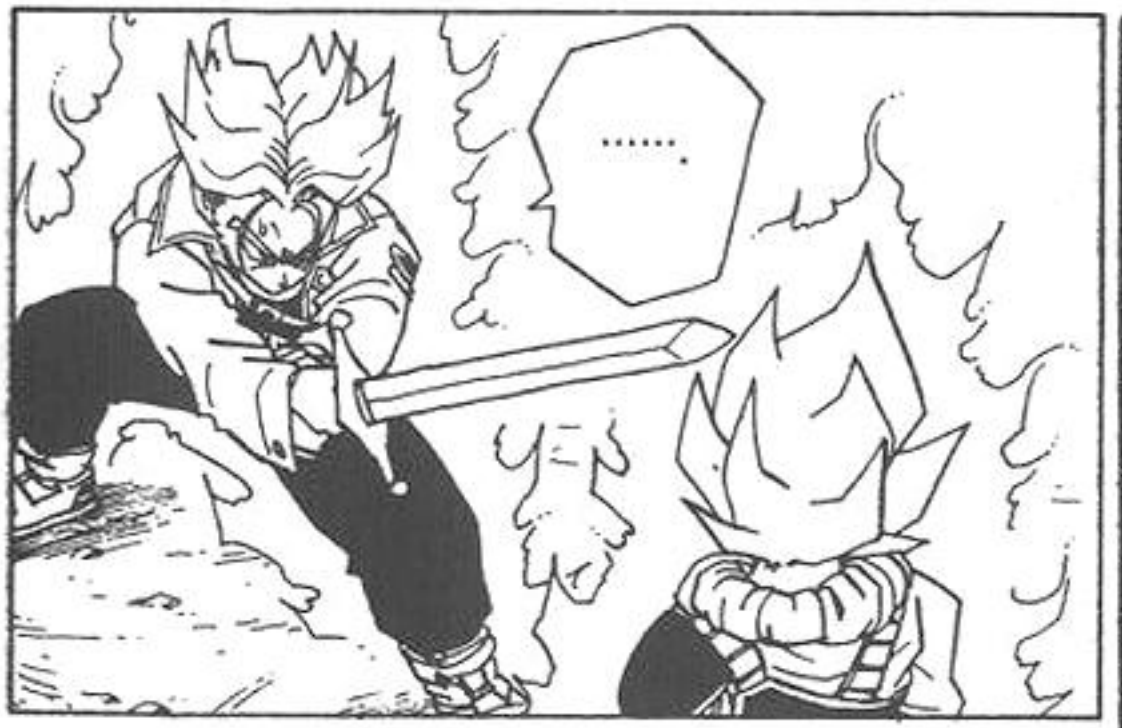

저…
저 애도
초사이어인이…!
어…
어떻게
된 걸까…!

뭐?

실례
좀….






……


멈칫


살기가
없으
니까.
멈출 줄
알고
있었거든.


왜…
왜 피하지
않은
거지…?


그랬군….
그럼…, 이번엔 진짜로 칠 거야! 알겠지?
그래, 알았어.
스ㅋ…
파팟…


쨔아앙
쨔쨔쨔쨔쨔쨔
쨔아앙



터억
휘익
역시나. 소문은 사실이었군.
아니…, 그 이상이야….
채앵
프리더도 가루로 만들어버린 칼인데….
쓱!
네가 진짜 실력을 발휘 안 했으니까.
당신한테는 이야기 하지.
봐…, 봤냐…?
그… 그래…. 정말 엄청난 놈들이야….
저… 저게 초사이어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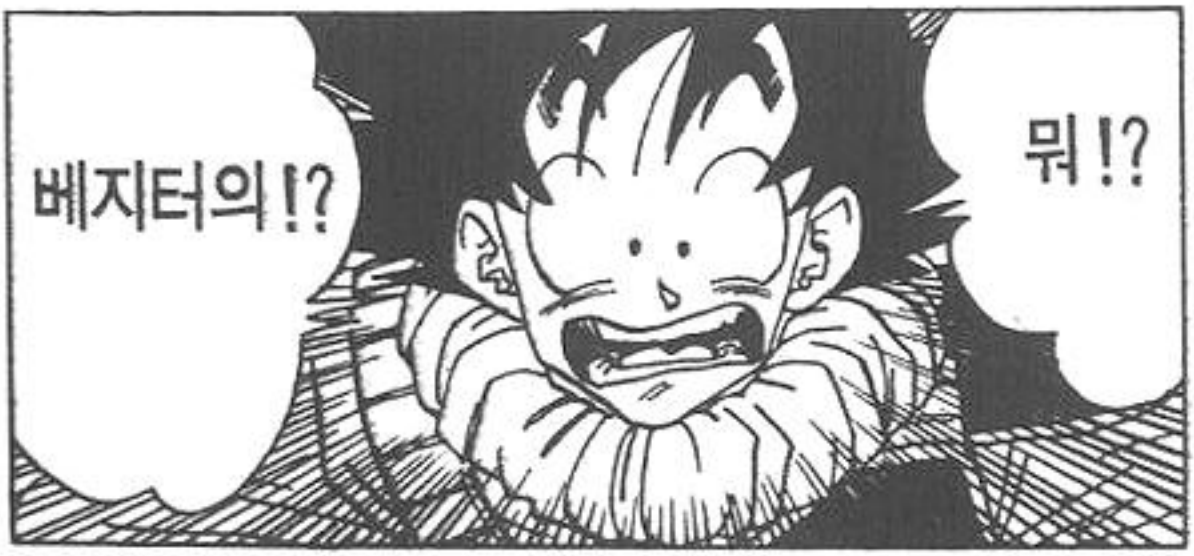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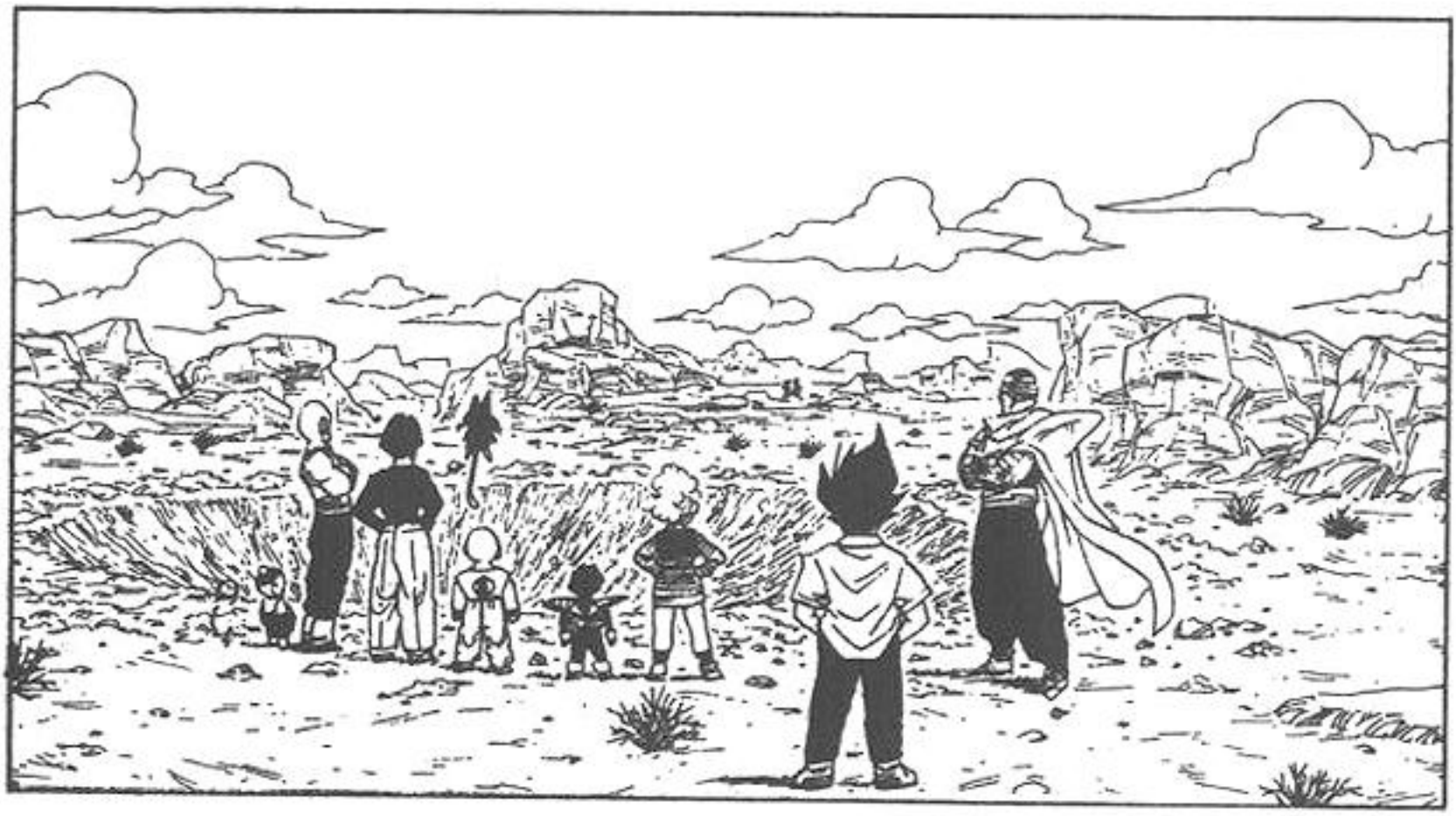









다음은, 제335화 공포의 메시지




……


그래.
저, 정말
네가 베지터의
아들 맞아!?


앞으로
2년 반 뒤에
태어날
거야….
저…
저놈이
아버지란
말이지….


그…
그러고 보니
닮았어….
닮았네.

당신에게
꼭 알려야 할
중대한 일이….

그렇지만
그런 얘길 하러
타임머신까지
타고 온 건
아니야….

이 세상의
생물이란
생각이
안 들 만큼
엄청난 파워를
지닌 괴물이….

지금 이 시대로부터
3년 후의 5월 12일
오전 10시경, 남쪽
도시의 남서쪽 9km 지점의
섬에 무서운 2인조가
나타날 거야….

아…,
그래….

뭐?

그걸 만든 건
원래
레드리본 군에
있던 미치광이
과학자
닥터 게로….

아니…,
이 지구에서
태어난 인조인간….
바로 사이보그란 거야.

…….

그래, 군대 자체는
당신이 먼 옛날
다 쓸어버렸지만,
닥터 게로는 살아
남아서 계속
연구했지….

레드
리본군!!

그게 뭐지?
우주인이니?


그러나, 궁극의 살인 머신으로 만들어진 그 인조인간 19호와 20호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인 닥터 게로까지 죽여버렸어….
즉, 단지 살인과 파괴만을 즐기는 인조인간만이 남아버린 거야….
무엇 때문에? 지난 번처럼 세계 정복이 목적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닥터 게로가 노리는 건 그런 거였겠지….


그래….
맞장을 떠봤지만 안타깝게도…. 더구나 놈들은 둘이니까…. 1대1 대결을 해도 도망가기 바빴어….
프리더 일당을 한방에 없애버린 초사이어인인 네가 괴물이라고 부를 정도니 상당히 무서운 놈들인가봐…?


……!
20년 뒤에 전사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거든….
없어….
잠깐…, 상대는 둘이라고 했지…. 네… 네 편은…?

겨우겨우 도망친
손오반도….
내게 전투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지만,
역시 4년 전에….

3년 뒤의 싸움에서
저기 있는 아버지와
크리링 아저씨, 야무치 아저씨,
천진반 아저씨, 차오즈 아저씨,
피콜로 아저씨가 모두 죽어….

CAPSULE CORP.

놈들은
너무
강하다구
…!!

너무
강해!

아저씨도 알다시피
피콜로 아저씨가
죽어서 드래곤 볼도
사라져, 누구도
되살아날 수 없게
되어 버린 거야….

자, 잠깐.
나는…?

난 어떻게
되지!?

나도
역시 죽게
되니!?

당신은
안 싸워….

이제 곧
병에 걸려
버리지….

그리고
죽게 되고….

세월이 가는 걸
즐기면서 천천히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인조인간의 행패
때문에 내가 사는
미래의 세계는
지옥 그 자체야….

뭐…!?

바이러스성 심장병이야…. 천하무적의 초사이어인도 병에는 쪽도 못썼던 거지….

……

크…, 큰일났네…. 선두를 먹어도 병에는 효과가 없나…?

끄응들…

제길~!

내가 죽다니….

분하다…. 그놈들과 싸우고 싶은데….

싸우지 못하는 게 분하단 거야…?

두렵지 않아…?

그야 무섭지만….

엄청 강한 놈이라니까 붙어보고 싶거든….

……

어머니나 오반이 이야기한 그대로의 사람이었어….
정말 반가워.
오길 잘했는걸….

당신은 역시 진정한 사이어인의 전사군….

그게 뭐지…?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걸 마셔.

그런 얘기는 미리 좀 해주지 그랬어.
진짜로-!

진짜!?
만세-!
땡큐-!!

당신의 약이야.
지금 시대에는 불치병이라도,
악 20년 후에는 특효약이 있거든.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
역사를 바꿔버리게 되는 거라서….
그렇지만, 그런 역사라면….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죽지 않게 돼….

어머니도 그것만을 바라고, 고생 끝에 겨우겨우 타임머신을 완성시켜준 거니까….

당신이라면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구해줄 거라 믿어.

서…, 설마…, 그 어머니란 사람은….

타… 타임머신을 만들었다고라…?

응, 아주 잘….

네… 네 어머니가…, 나에 대해 알아?

흐아악 —!!

응, 저기 있어….

부르마가 …!!

부….


오공이 왜 저렇게 놀라지?
대체 언제까지 속닥거릴 거야…. 사람 열받게 만드네…!


그때 마침 고독한 모습의 아버지 베지터를 보고, 아무튼 그렇게 됐나본데….
야무치 아저씨는…, 그 바람둥이 기질이 도져서…. 열 받아서 헤어졌다고….
그렇지만 결혼은 안 했어…. 저… 저런 성격의 어머니니까….


지… 지금 이 얘기가 제일 놀랍다…!
부, 부르마는 분명 야무치하고 잘될 사인데, 어떻게 하필 저 베지터랑….


아버지는 내가 철들기 전에 죽어버려서 처음 만나보니 감격했어.
저런….


좀 비웃고 있는 것 같네요….
저 녀석 왜 여길 째려 보지?


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 하긴. 부르마 성격이야 원래 그러니까….

저… 저기, 이 일은
특별히 비밀로 해줘!
그 사실을 알고 두사람 사이가
잘못되면, 나… 나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알았다,
알았어.

바뀌면
좋겠는데
….

미래가….

그럼 난
그만 갈래.
빨리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려야 하거든.

그래,
이거
고맙다고
전해줘.

손오공
아저씨의 파워를
알게 되니
조금은 희망이
생겼는걸.

응!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꼭
응원하러 올게.
3년 후에….

모르겠어….
타임머신의
왕복용 에너지를
얻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

또 만날 수
있을까?


좋은 목표가 생겼는걸.
나도 그걸 명심하고
3년간 열심히
수련할게.
살아있어라.


파슈웅




이런!
저 녀석 그냥
가버리네!
!!

아… 아냐.
저기….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오공,
그 녀석
뭐야!?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근데
이거 참
고민되네
….

내 청각은
늬들이랑
수준이 틀려.

너…
너…,
들었냐…?

엥!?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잖아….

어서
얘기해.

그처만
….

그….

네가 하기
어렵다면
내가 얘기해
주지.

그, 그
중대한
얘기란 게
뭔데…?

……?


뭐…, 죽어!?
제대로 수련도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도 너무 허무하니까….


걱정 마. 그 녀석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필요없는 얘기만은 안 할 테니까….


피콜로는 트랭크스의 출생에 대해서만 살짝 비밀로 하고, 모두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역시 모두가 충격의 표정을 감출 수 없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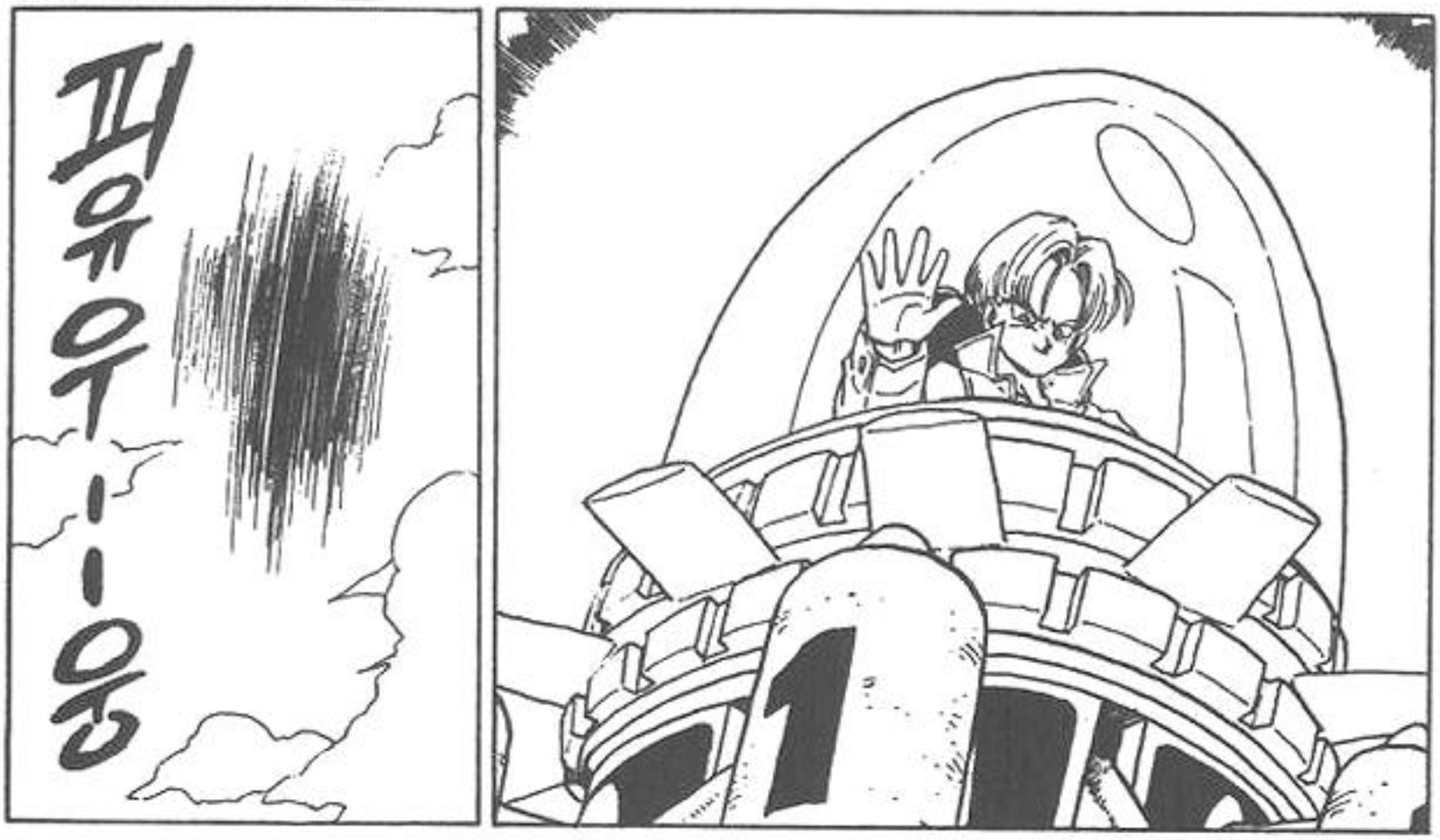

난 수련
하겠어.
죽기는
싫으니까….
믿기지 않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좋아.
맘대로 놀라구.


좀
뻥같은
얘긴데….
미래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타임
머신
으로
…?


제발 죽지
말기를….
아버지….
어머니 말대로
강하고, 자존심 세고,
엄격하며, 그리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구나.
젊은
어머니도
힘내시고.


어!?


뭐,
뭐지!?












다음은, 제336화 3년 후의 도박


트랭크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전해준,
3년 후 5월 12일에
나타난다고 하는 두 명의 두려운 인조인간….
역사를 거슬러, 그 살인 머신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모두는 각자 무서울 정도의
수련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프리더의 우주선은
망가졌잖아?
계왕님도
살아 남지
못할 거라고
했거든….


카카로트,
가르쳐 다오.
넌 어떻게
나메크성에서
살아남았지…?


아, 나도
끝장난 줄
알았지.
그런데 운좋게도
바로 근처에
저 달걀 같은
우주선이 있었어.
네 갠가
다섯 개가….

그리고 우주선은 지 멋대로 야드래트란 별에 도착한 거야….

어쨌든…, 그걸 타고 무작정 스위치를 눌렀더니 제대로 날아서 탈출할 수 있었거든.

기뉴특전대…! 그놈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야!

마…, 맞다!

그랬구만. 그 광대같이 요상한 옷은 야드래트의 것이냐…?

기뉴 놈들은 야드래트를 공격하고 있었어…. 그러니 거기에 도착하도록 입력되어 있었겠지….

너 같은 놈이 야드래트에 가서 그냥 돌아올 리는 없을 테고…. 놈들은 파워는 없지만 신비한 주술을 사용하는데…, 그 주술을 배워왔겠지…?

그래. 친해졌거든. 좀 쪽팔리긴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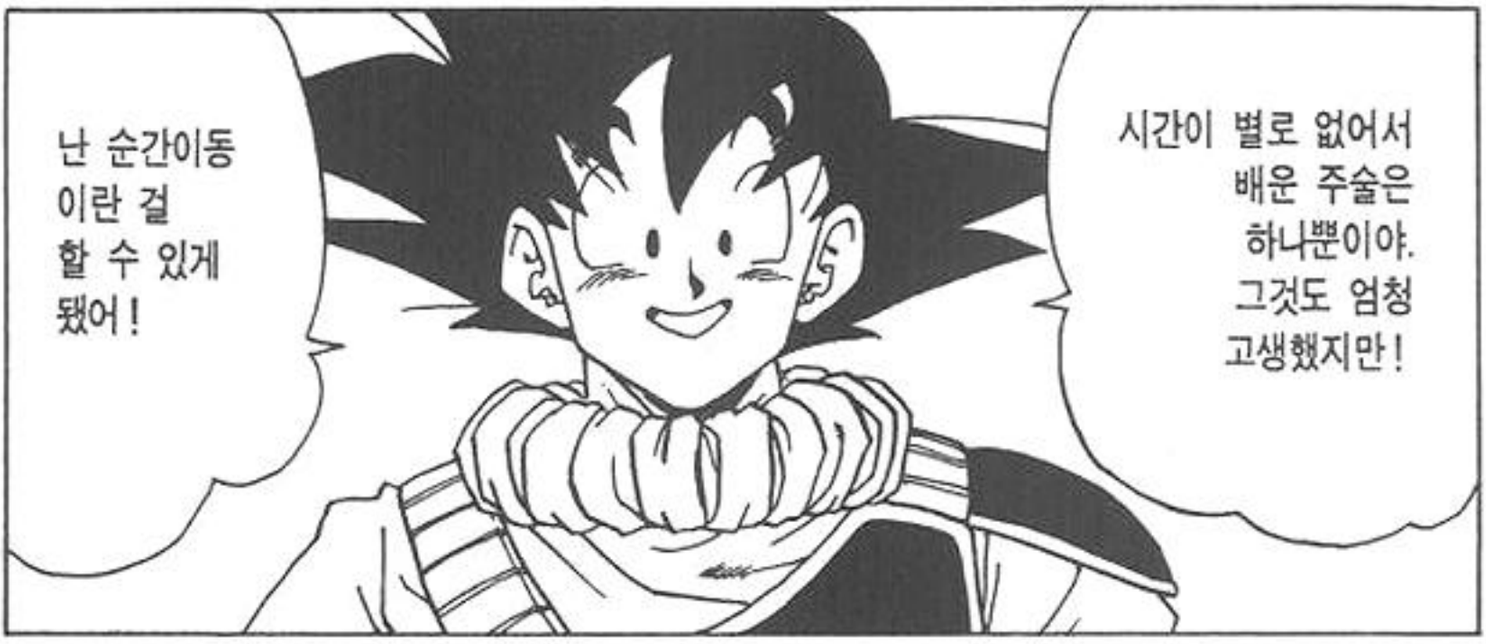
내 옷은 완전 걸레가 돼버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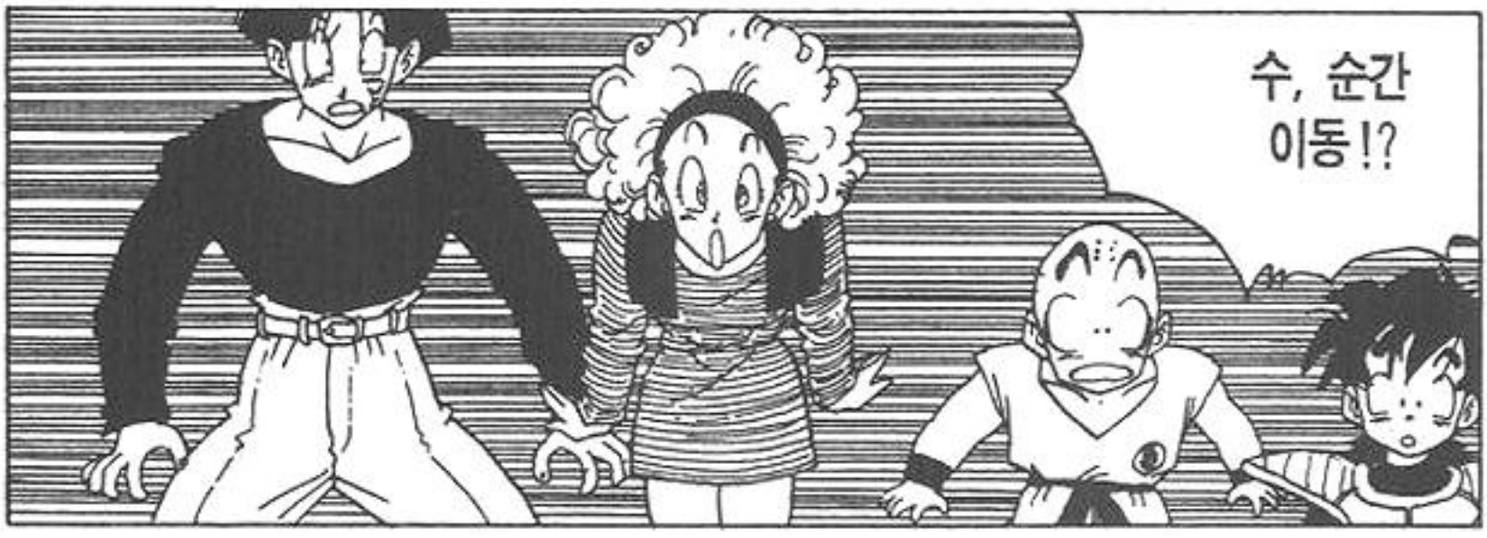
빨랑 가르쳐 줘!

저기, 어떤 주술인데!?

당근이쥐~! 역시 넌 잘 아는 구나!

맞아! 너,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로 안 돌아온 거였어!


난 순간이동
이란 걸
할 수 있게
됐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배운 주술은
하나뿐이야.
그것도 엄청
고생했지만!


수, 순간
이동!?


저…,
그럼
어디로
가볼까….
좋아….
따라서 아는
사람이 없는
장소
같은 데는
갈 수 없어.
이건 말이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떠올려야 돼.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기를
느끼는 거지….
저…,
정말이니,
손오공…?
어디 해봐…!
보고
싶니?
좋아.



다녀 왔슴다-!
파팟
앗!!
끝
이게 뭘까요!
짜안-!
초스피드로 움직여 우릴 속인 것 뿐이잖아….
헹…! 놀고 있네. 순간이동 좋아하셔….
여… 여기서 거북하우스는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머, 멋지다….
내 말 뻥 아니지?
그래, 맞아!
윽…! 무천도사 님 선글라스야….

3년 후에 언제, 어디로 가면 되지?

좋아…. 그럼 모두들 3년 후에 현지에서 모이자.

너… 너, 이젠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그… 그래…. 알았어.

크리링! 이거 나중에 거북 할아버지 한테 돌려줘.

1시간 전…, 오전 9시까지라도 그 섬에 도착하면 되겠지.

3년 후의 5월 12일 오전 10시경, 남쪽 도시 남서쪽 9km 지점에 있는 섬이다.

그… 그건 저기…. 내가 뭐랬지….

엥…?

까… 까먹었다….

공연히 나타나서 방해만 되면 괜히 입장 곤란해지거든….

경고하는데, 자신 없는 사람은 오지 마! 이번 적은 훨씬 엄청난 놈인 것 같으니까….

휴~, 살았다-!

너…, 정말 피콜로가 들어놔서 다행이구나….

하… 하하….

그… 그래…. 오지 마….


뭐라고? 한 번 붙어볼래?


제일 자신 없는 건 바로 너 아냐-?
웃기시네….


저, 저기! 내가 짱구 좀 돌려봤는데 말야! 그 인조인간을 만든 닥터 게로란 사람을 찾아 지금 없애는 건 어때!?


그, 그래! 맞아, 부르마!
그럼 분명 안 싸워도 되잖아! 만세! 죽이는 아이디어다!


그따위 쓸데없는 짓 하면 널 죽여버릴 거야!
알았냐!!

손오공도 내 의견에 찬성이지!? 그치? 응?

지구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구!

누구보고 쓸데없는 짓이래! 이게 무슨 전자오락인 줄 알아!?

내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거든….

나도 싸우겠어….

죽으면 내 운명으로 알고 포기하는 거지, 뭐….

여, 여러분! 이, 이런 사이어인들이랑 노닥거릴 필요없어! 이놈들은 피에 굶주린 전투 매니아 인종이라구!

이번에 죽으면 다신 살아날 수 없잖아!

게… 게다가 지금 그 과학자는 아무 것도 안 만들었는데, 처치한다는 건 좀….

미… 미안해…. 솔직히 나도 싸우고 싶어….

쭈르륵

그런데…, 모두들 엄청난 적이 나타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손을 잡게 된 거지…. 그…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엔가 친구가 되어버렸고….

부… 부르마…. 이… 이건 내 생각인데…. 여… 여기 있는 모두는…, 옛날에는 각자가 적이었어…. 나… 나도 처음엔 오공 따윈 진짜 싫었다구….

으아….

질렸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지옥이 따로 없지….

공통의 적이라고 하는 목적이 없으면 피콜로는 뭐 괜찮다해도, 베지터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른다구. 이 아가씨야….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보… 보통 이런 경우는 없거든…. 저…, 전부 엄청나게 막강한 상대들 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휩쓸리는 나 같이 불쌍한 일반 시민은 잠자코 있지만은 않을 테지만.

알았어…. 니들 맘대로 하시지.

어린애가 건방진 소리 말라구!

시꺼!

크리링 아저씨…. 중간까진 내용이 좋은 얘기였는데….

내 말은 진리야!

그럼 3년 후…,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그 장소에서 만나자! 진짜 자신있는 사람만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마치…, 어딘가 위험한 독재자 같군….

네 얘기는 전혀 틀리다구, 이 변태야….

할 수 없으니 우선 돕기는 하겠지만….

미래의 평화는 싸워서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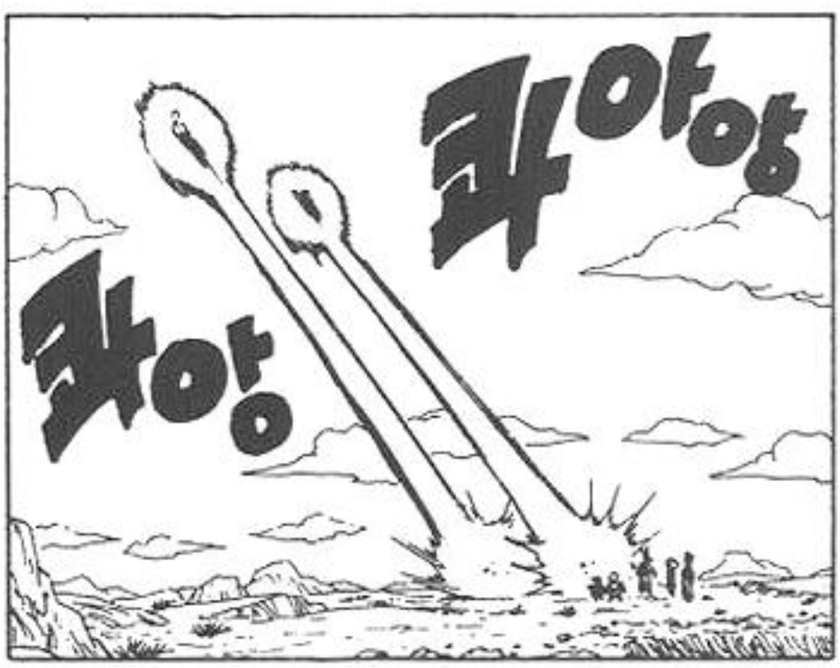
이야아 – !!


사이어인의
넘버원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초사이어인이 되었다고
너무 까불지 마….
내가 바로 반드시
네놈을 눌러버릴
테니까….


카카로트
….


콰앙


그러지….


콰앙
콰앙


우리도
갈게.
그럼 3년
후에….
바이
바이!

난 됐어.
무천도사 님과
내 페이스대로
수련할 거야.

뭐?

크리링과
야무치도
함께 어때?

피콜로, 나하고
오반이랑 같이
수련 안 할래?
대련도 해보고 싶고.

좋아…,
바라던
바다….

뭐?

부르마,
튼튼한 애기를
낳아라!

그럼
안녕!

솔직히 말해
도저히 너희들의
수련을 따라갈
자신도
없거든….

나도
사양할래.

우리도 이제
적당히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게
어떻겠냐는
소릴 하고
싶었겠지.

이런, 이런!
말하자면
저 녀석이
하고 싶었던
말은….

으하하하!
저 녀석도 이런
농담을 다하다니,
진짜 많이 컸다!

아기라고….
부르마,
임신했니?

임신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오공은….

파
파
파
앙


그리고, 3년 뒤에
나타날 강적에
대비해 각자
엄격한
특수 훈련이
시작되었다….
크, 크리링!
유령이야!
조, 좀전에 손오공의
유령이 나타나서
내 안경을….
어…,
얼라!?
어… 어떻게
네가
그 안경을….


CAPSULE CORP.
CAPSULE CORP.


겨우
놈의
세 배라구….
카카로트 녀석은
100배의
중력에서
수련한 것
같아….


무… 무려
3백 배의
중력실을
만들어
달라고!
익-!?
그렇다.


베… 베지터의
체중이 60kg이라고
하면….
18톤이 된단
말이야…!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

수련으로 더 강해질 필요도 없다구! 오공이랑 피콜로 둘이서 쳐치하면 되잖아!

제발 어지간히 좀 해! 빌어먹을! 오공, 오반 공부를 대체 언제까지 방해해야 속이 풀리겠어!?

결혼 하고나서 한 푼이라도 벌어온 적 있어!?

헛소리 마…! 도대체 당신, 직장도 없이 나한테 오반 키우는 걸 모두 맡겼잖아!

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3년 후에는 지구 자체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구….

말했잖아. 오반의 힘도 분명 필요해질 거라고….

그, 그럼 너는 지구의 미래보다 오반의 공부가 더 중요하단 말야…?

안 돼! 안 돼! 절대 허락 안 해!

지…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구. 오반도 싸우고 싶어하고….

그… 그런 말하면 나도 찔리긴 하지만….

퍼억

에이, 농담도 지나치셔~!

하늘이 두쪽나도 내 알 바 아니라구! 오반의 공부가 무조건 먼저야!

그럼! 그게 당연하지!


미, 미안! 찌찌! 내, 내가 너무 세게 쳤나봐! 그, 그냥 툭 민다는 게…!
홍알 홍알…
언제나 눈물 흘리는 건 여자쪽 이라니까….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꼭 권법은 때려치게 할 거야…!
지…, 진짜 미안해…. 내가 그만 주제도 모르고….
초사이어인 에게도 약점이 있었네….
허억
허억
허억

초…
초사이어인을
훨씬 능가해야
된다구…!

초…
초월해
버릴 거야…!

미안해.
찌찌!
그럼
다녀올게!

아…,
됐어.
고마워.

정말
도시락
안 가져갈
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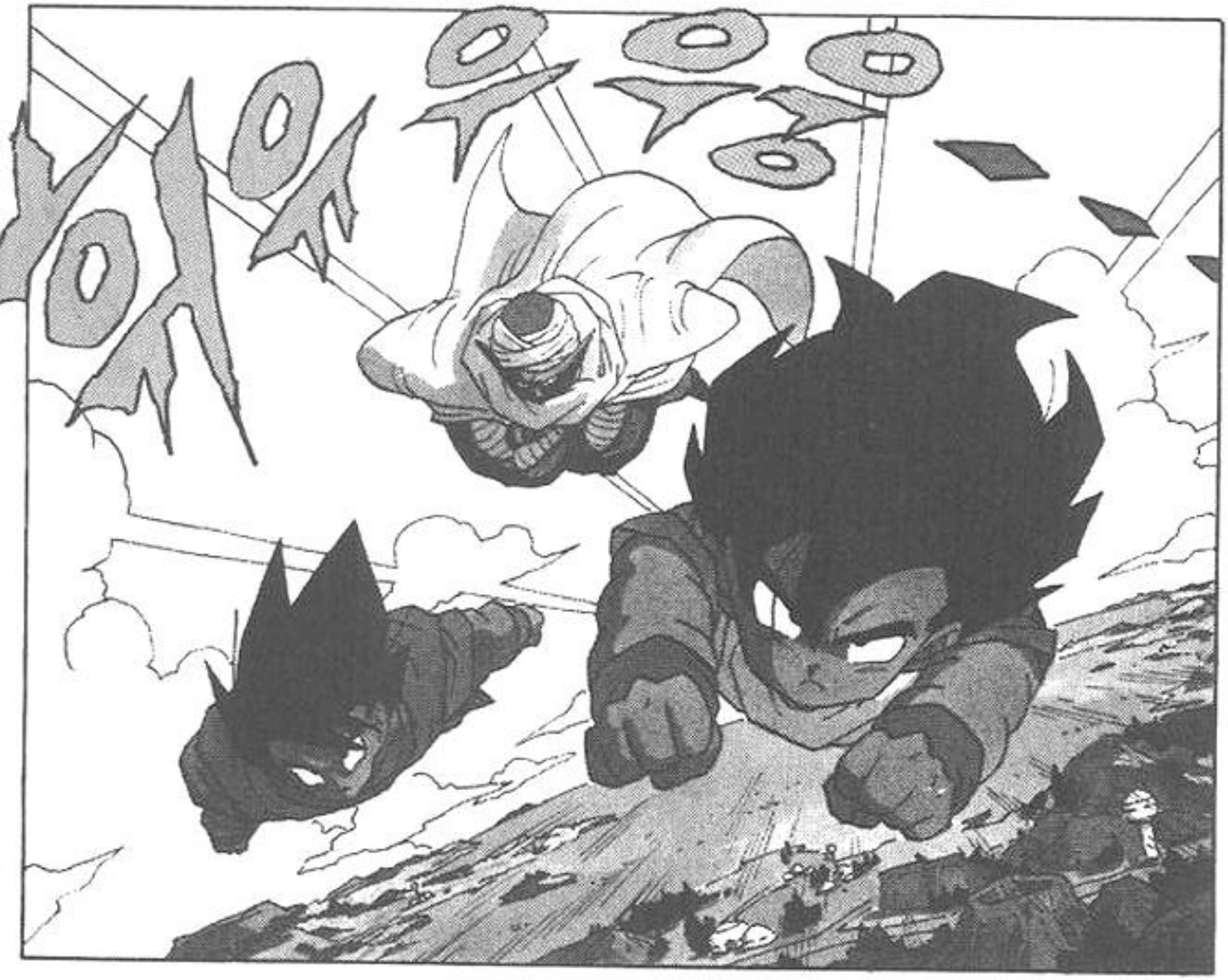
오반, 오공,
피콜로!
모두 조심해!

그리고 순식간에
3년의 세월은 물처럼
흘러, 드디어 5월 12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과연 인조인간
19호, 20호란
어떤
상대일까…!?



# 제337화 초전사들의 집결












# 제337화

# 초전사들의 집결



# DRAGON BALL

드래곤 볼



나도 자신이 없는 건 아냐….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예감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아….

진짜
태평해서
좋겠다….

아빠,
저기!
크리링
아저씨가!

피콜로!
부탁인데, 넌
위급해져도 절대
무리하지 마.

네가 죽으면
드래곤 볼도
없어져 버리니까.

왜 그래,
크리링?
오랜만인데
기운이 없어
보이는걸.

안뇽!

크리링
아저씨-!

이제부터
괴물이랑
한바탕 치고
받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냐….

나…, 난
초사이어인도
아니잖아….

아…, 안녕.
많이 컸구나,
오반….

저기다!
저 섬이야!

남쪽 도시의
남서쪽
9km 지점….

꽤 큰
섬이네.

그래, 이거 좀
찜찜한데….
게다가 비교적
큰 마을까지
있잖아….

인조인간들을 다른 장소로 유인해 내지 못하면 섬 사람들이 전투 때문에 희생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

저 산 부근에 아주 큰 기가 두 개 느껴지는데….

아마 야무치 애들이겠지….

가자!

역시 맞았다! 손오공들이야!

龜

얼라리여 !?

어이 - !!

야호 - !

어머머 - ! 오반, 너 엄청 많이 컸구나.

척

타탁

부, 부르마 … !?

기다렸잖아 ! 니들 좀 지각이야.

나…, 난 그것보다 부르마가 안고 있는 물체쪽이 더 놀라운걸….

아무치 아저씨랑 결혼했구나!

그야 구경왔지!

이 멍청아-! 뭐 하러 너까지 여기 왔어!

걱정 마. 인조인간 한 번 구경하고 금방 갈 테니까.

어, 어떻게 그걸 알았지?

난 놀라게 해주려고 이무한테도 연락 안 했는데….

네 아빠는 베지터지, 트랭크스?

내 아이 아냐….

우린 예전에 헤어졌다구. 누구 아이인지 알면 놀랄걸?

저, 정말!? 우와-! 나, 나한테 초능력이 있나봐!

이름까지 딱 맞추잖아….

으에에엑…! 지…, 진짜 베지터의 아이…!?

아… 아냐~! 그,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얼굴이 베지터랑 좀 닮지 않았니…!?

그런데…,
그 베지터는
어떻게 된 거지?
모습이
안 보이잖아….

그런
쓰잘데 없는
잡담할 때가
아니라구.

그 녀석은
꼭 올
거야….

온다….

그처만 곧
올 거야.
오늘을 대비해서
굉장한 훈련을
하는 것
같았거든….

난 몰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30분 남은
거야.

어디…,
9시 반….

저기…,
지금
몇시지?

수련은
했지만,
솔직히 이번
전투는 걔한테
무리거든….

차오즈는
떼놓고
왔어.

그러니까
인조인간이란 거
구경하면
돌아간댔잖아!

지금 빨리
돌아가.
아기까지
데려오다니
정신 나갔구만!

그래,
잘했어.

이 애 꼬리는? 잘랐니?

메롱 메롱!

나 정말 충격 먹었다…

걔는 사악 하잖아….

엥? 베지터 아냐…?

뭔가가 이쪽으로 온다.

사악한 기는 아닌데….


앗!!
야지로베!!
저기다! 저기!
안 늦어서 다행이다.
안녕, 야지로베. 너도 싸우러 왔니!?
이거, 카린 님이 주신 선두야!
와! 잘 됐다-! 역시나 카린 님이야!
그럼 안뇽! 잘 싸워라.
야, 얌마! 같이 싸우는 거 아냐!?


피유-웅
……
니들이랑 붙어있으면 내가 제명에 못살지.
난 너희같은 바보가 아니걸랑.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구.
이미 10시가 지났는데, 적의 기가 전혀 나타지 않아….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만 10시쯤이라고 했잖아. 지금 10시 17분이니까 아직 모르지.
역시 그 꼬마가 허풍 떤 거 아냐? 인조인간이니 뭐니….
어?
그치만 강한 기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질 않는걸. 그렇게 대단한 놈들이라면 이 지구 어디에 있어도 알 수 있을 텐데.
그… 그러고 보니…

뭐,
뭐지!?

야지로베가
…!!

앗
!!

구아아---앙

저게
공격한
거야!

저봐!
뭔가
있다!!

!!

거, 거리로
내려갔다!

봐,
봤어!?

아, 아니!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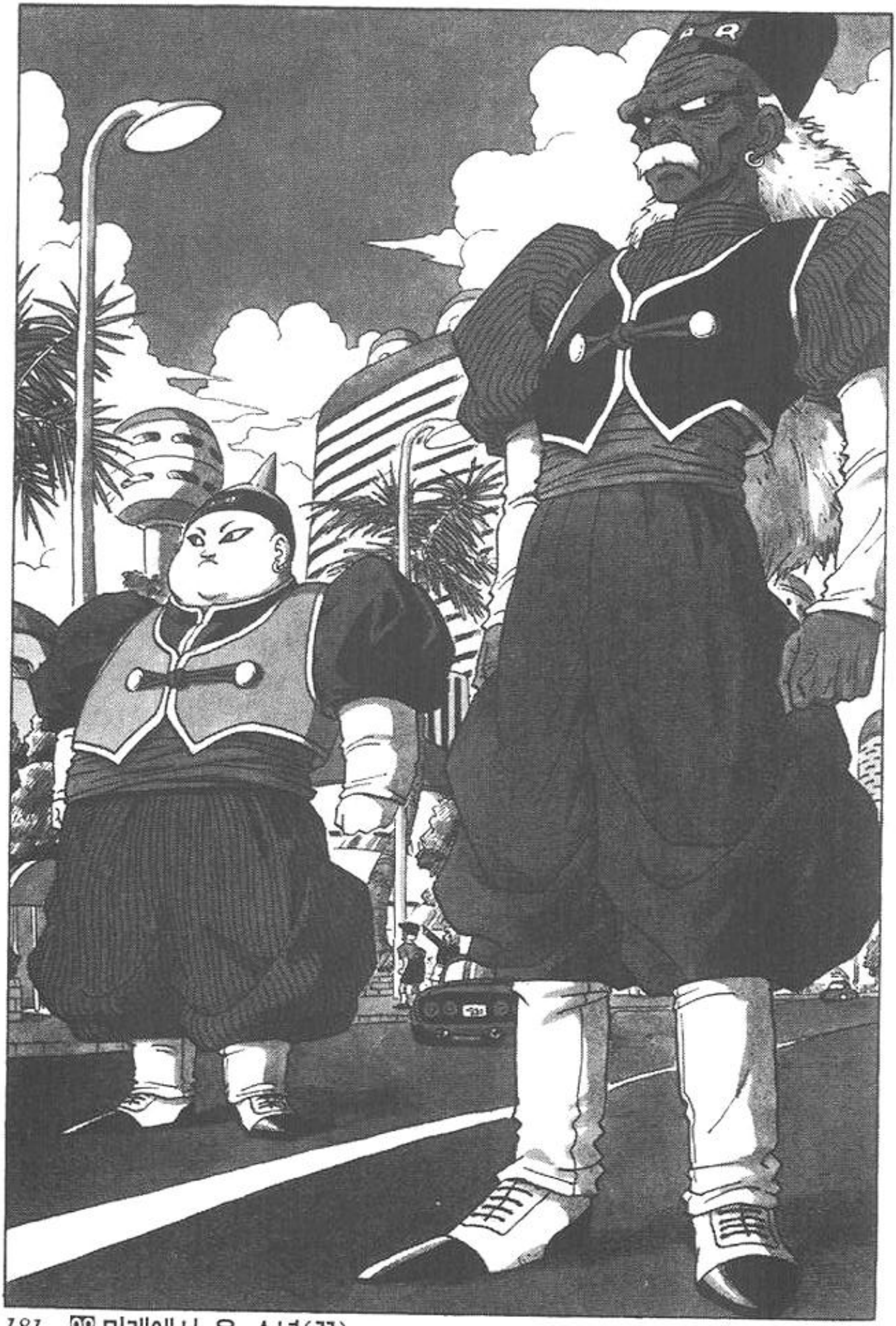
저…, 전혀
기가 느껴지지
않았어….

이…,
인조인간
이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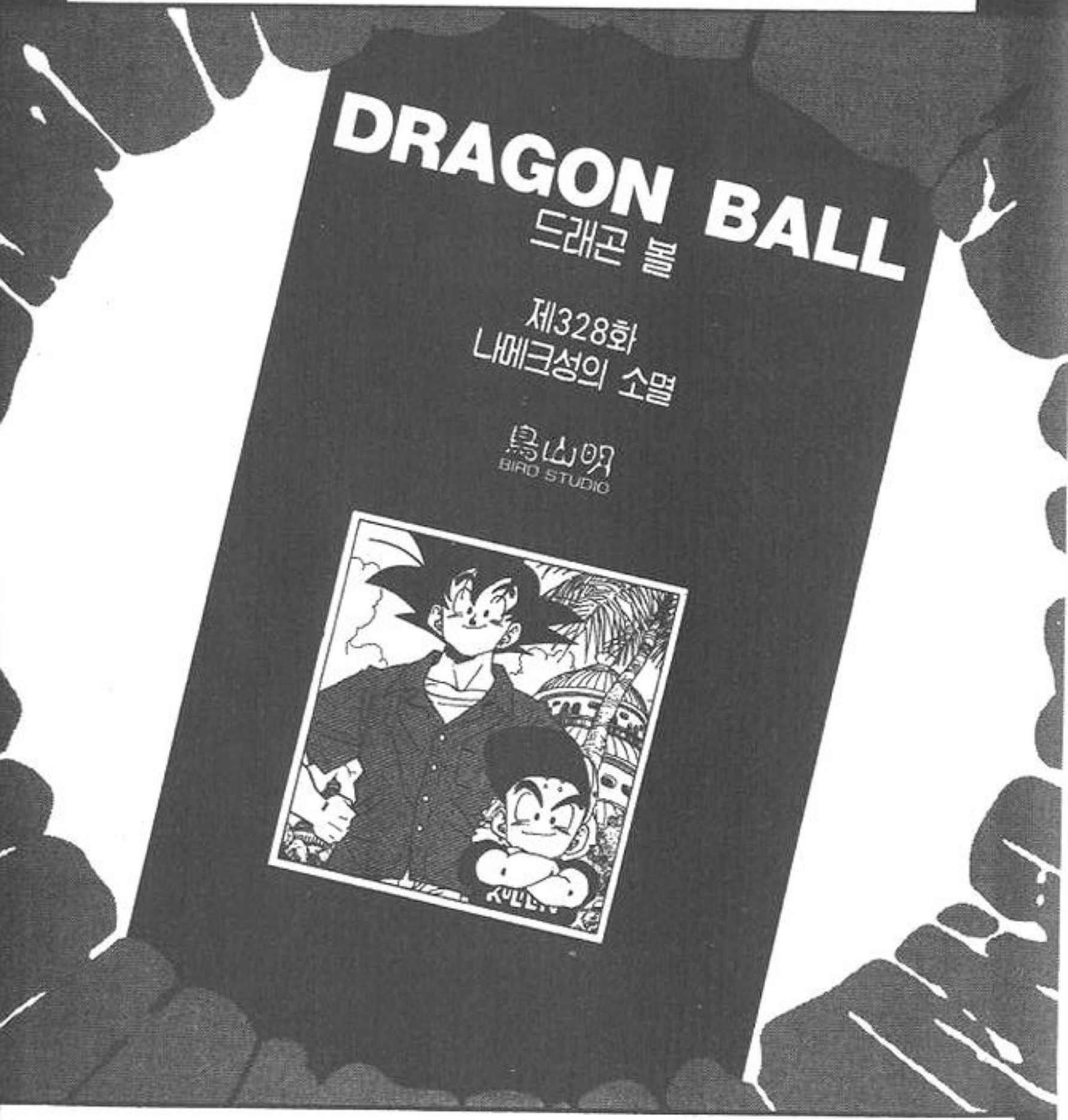
기…
기 같은 게
없나봐….

뭐…,

뭐라구
…!?



# 표지 페이지 대특집XXVII




마침내, 지구에 내려온 인조인간!!
기도 표정도 없는 살기만이 가득한 몬스터… !!
이런 사악한 놈들을 상대로 초전사 오공 일행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초격렬한 결전을 앞에 두고, IQ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이다- !!

#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29화

돌아올 수 없는 오공

BIRD STUDIO 鳥山明



드래곤 볼
DRAGON BALL

# 제330화
# 프리더 부자의 지구 착륙



鳥山明
BIRD STUDIO

# DRAGON BALL

드래곤볼

鳥山明
BIRD STUDIO

## 제331화 수수께끼의 소년



# DRAGON BALL



• 드래곤 볼 •

제332화 두 번째의 초사이어인

鳥山明 BIRD STUDIO

#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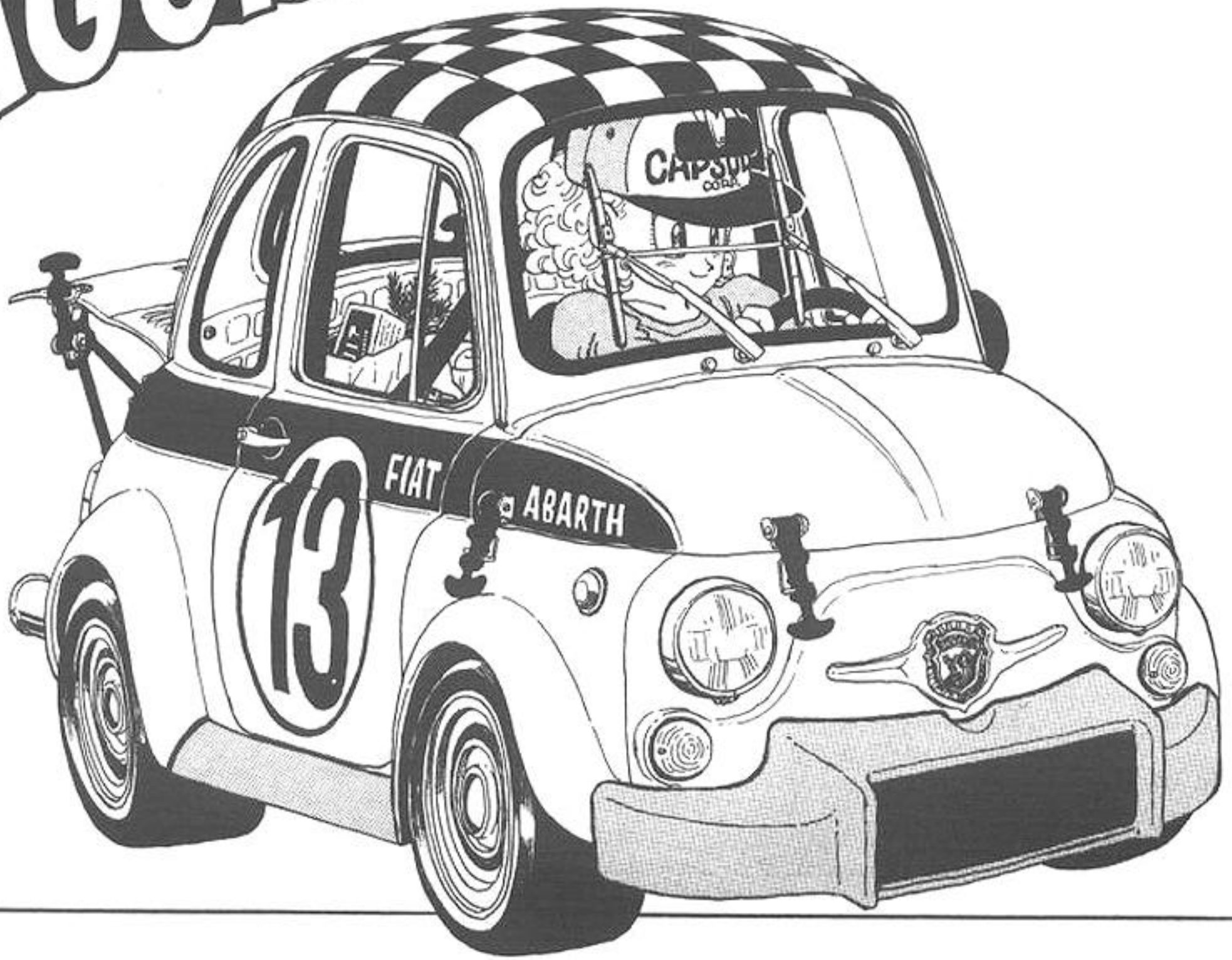
드래곤 볼

제333화
돌아온 손오공



鳥山明
BIRD STUDIO

# DRAGONBALL




드래곤 볼

제334화

미래에서 온 소년

鳥山明

BIRD STUDIO

scanned by raprnb

# DRAGON BALL

드래곤 볼

## 제335화
## 공포의 메시지

鳥山明
BIRD STUDIO



# DRAGON BALL

드래곤

鳥山
BIRD ST

제336화 3년 후의 두박

